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2-02

연구보고 08-R14-1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국제비교

책임연구원 : 문경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박순용(연세대학교 · 교수)

Ozawa Masayuki(게이오대학교)

Gudrun Quenzel(비엘레펠트대학교 · 교수)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임지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이선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8-22-02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게이오대학교, 연세대학교, 비엘레펠트대학교, 남스톡홀름대학교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광주대학교, 부경대학교, 고신대학교, 건국대학교, 뮌헨시교육연구소(독일), 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울살라대학교(스웨덴), 스밀라인터내셔널(스웨덴)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경숙 연구위원 김현철 연구위원 김지연 연구위원	민경석 교수 (세종대학교)
협력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김혜영
	게이오대학교	와타나베 히데키 교수	마쓰다 시게키 오자와 마사유키 배지혜
	연세대학교	박순용 교수	노경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비엘레펠트대학교	Gudrun Quenzel 교수	Janina Herrmann
	남스톡홀름 대학교	최연혁 교수	Liva Alonso Hedvid Jensmar

목 차

I. 서론	3
II.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네트워크 분석-한국	
1. 서론	7
2. 청소년 사회화와 계층 : 이론 및 문헌검토	10
1) 청소년 사회화와 계층	10
2) 청소년의 학업활동과 계층의 영향	13
3)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사회계층	17
4) 소결	20
3. 연구방법	21
1) 네트워크 차트	21
2) 조사대상자 선정	23
4. 연구결과	24
1) 청소년의 가족배경과 가족에 대한 인식	24
2) 청소년의 계층별 사회화 과정	29
5. 결론 및 정책 제언	65
참고문헌	68
III. 청소년의 교우관계와 사회화 : 청소년 생활 관련 퍼스널 인터뷰-일본	
1. 연구 목적	73
2. 조사 방법과 대상	74
3. 청소년의 '이야기'	76
1) 친구관계	76
2) 공부·학력	80
3) 가정	81
4) 학교·교사와의 관계	84
5) 인터넷·휴대전화	87
6) 금전감각	88
7) 장래의 진로	89
4. 결론	91

참고문헌	95
------------	----

IV. 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미국

1. 서론	99
2. ‘청소년’의 개념정의 및 네트워크 분석의 이해	100
1) ‘청소년’과 ‘청소년기’의 용어정의	100
2) 청소년의 사회성	102
3)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과 질적 네트워크 분석(Qualitative Network Analysis)의 실제와 유용성	104
3. 연구방법	109
1) 연구대상, 장소 및 기간	109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11
4. 연구결과의 분석	113
1) 가족	113
2) 친구	114
3) 학교	116
4) 기타 영역	117
5. 종합적 논의: 다층구조의 지원체제 유무와 사회성 발달	118
6. 결론	121

참고문헌	124
------------	-----

V.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네트워크 분석

1. 연구의 방법	135
2. 네트워크 분석결과	141
1) 가족, 학교, 또래친구의 비중도	141
2) 가족관계에서의 정서교감	142
3) 또래친구와의 관계	146
4) 학교관계	148
5) 제4섹터 관계	149
6)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 공간의 이해	150
3. 결론	156

참고문헌	159
------------	-----

VI. 독일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 친구, 학교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	
1. 개인 인격의 상호합의과정으로서의 사회화	163
2. 오늘의 청소년이 안고 있는 도전	163
3. 사회관계	165
1) 사회관계와 삶의 부분	165
2) 사회관계의 중요성	166
4. 연구목표	167
5. 부가설명: 독일 교육시스템	168
6. 샘플	170
7. 질적(qualitative) 네트워크분석 방법론	172
8.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 친구, 학교, 여가의 중요도	175
1) 가족 : 기반과 피난처	175
2) 친구 : 균형, 재미, 문제 극복	177
3) 학교 : 미래와 직업세계	177
4) 여가와 클럽활동은 비교적 이차적	178
9. 청소년과 가까운 사람들	178
10. 사회계층별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 친구, 학교와 클럽활동의 의미	179
1) 특히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는 가족이 큰 의미	179
2) 친구와 학교는 중요하다.	181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182
4) 그 밖의 친척	183
5) 친구와 친지	183
6) 학우와 선생님	184
7) 여가와 클럽활동	185
8) 여자와 남자 청소년의 각기 다른 우선순위	186
9) 남자청소년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하다.	186
10) 남자와 여자 청소년은 친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87
11) 학교와의 관계는 유사했으나, 여가활동은 달랐다.	188
12)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와 클럽활동을 감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189
11.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청소년은 큰 유사점을 보였다.	196
참고문헌	198

부록

1. 네트워크 쉬트	203
2. 반구조화된 질문지	204

표 목차

<표 I-1> 각 국의 네트워크 분석 참여자 현황	4
<표 II-1>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 학력	24
<표 II-2>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 직업	26
<표 II-3> 부모와 동거여부	27
<표 II-4> 가장 중요한 영역	29
<표 II-5> 가족의 의미	30
<표 II-6>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31
<표 II-7>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선택한 이유	32
<표 II-8> 가족영역에 선택한 가치	37
<표 II-9> 미래의 자녀를 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	39
<표 II-10> 가족의 전반적 분위기 비교	40
<표 II-11> 가족에 대한 만족도 비교	41
<표 II-12> 친구의 의미	44
<표 II-13>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선택한 이유	46
<표 II-14> 친구영역에 선택한 가치	47
<표 II-15> 친구관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	49
<표 II-16> 친구관계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	50
<표 II-17> 온라인 친구	52
<표 II-18> 나와 가장 가까운 학교 내 사람과 선택한 이유 비교	54
<표 II-19> 학교영역에 선택한 가치	55
<표 II-20>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56
<표 II-21>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57
<표 II-22> 선생님께서로부터 받는 영향	58
<표 II-23> 학교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	59
<표 II-24>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지 여부	61
<표 II-25> 나와 가장 가까운 기타 내 사람과 선택한 이유 비교	62
<표 II-26> 기타영역에 선택한 가치	63
<표 II-27> 기타영역 내 사람들로로부터 받는 영향	64
<표 III-1> 조사대상자	75
<표 IV-1> 참여자 구성 분포 (백인 및 소수민족 구분에 의한 분류)*	109
<표 IV-2> 참여자 구성 분포 (부모 동거여부에 의한 분류)	110

<표 IV-3> 제1 선호그룹 및 선호그룹과 관련된 단어군	113
<표 IV-4> 네트워크 주체 지정 영역	118
<표 IV-5> 부정적인 연상단어*	119
<표 IV-6> AM의 질적 네트워크 차트 일례	120
<표 IV-7> LM의 질적 네트워크 차트 일례	121
<표 V-1> 면담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인터뷰 기간 및 소요시간	138
<표 V-2> 면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39
<표 V-3> 가족, 또래친구, 학교의 비중도	142
<표 V-4> 가정내 가족과의 거리	143
<표 V-6> 제4섹터의 구분	150
<표 V-7> 가족, 또래친구, 학교, 제4섹터의 정서적 이해관계	154
<표 VI-1> 8학년 학생들의 각 학교유형별 분류	169
<표 VI-2>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 친구, 학교, 클럽활동의 중요도	176
<표 VI-3> 사회계층별 가족, 친구, 학교, 클럽활동의 의미 - 일반계층	177
<표 VI-4> 사회계층별 가족, 친구, 학교, 클럽활동의 의미 - 저소득계층	177
<표 VI-5> 네트워크모델에서 나와 어머니, 아버지의 거리	179
<표 VI-6> 사회계층에 따른 청소년 클럽회원 가입	182
<표 VI-7> 성별,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른 클럽활동 참여	185
<표 VI-8> 청소년들이 사용한 단어의 빈도	187
<표 VI-9> 각 계층에 따른 가족과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188
<표 VI-10> 각 계층에 따른 친구와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189
<표 VI-11> 각 계층에 따른 학교와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190
<표 VI-12> 각 계층에 따른 클럽과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191
<표 VI-13> 성별에 따른 가족, 친구, 학교, 클럽과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197

그림 목차

[그림 II-1] 네트워크 차트	21
[그림 II-2] 아버지 학력	25
[그림 II-3] 어머니 학력	25
[그림 II-4] 아버지 직업	26
[그림 II-5] 어머니 직업	27
[그림 II-6] 부모와 동거여부	28
[그림 II-7] 가장 중요한 영역 1순위	30
[그림 II-8]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선택한 이유	32
[그림 II-9] 부모님과 대화시간	35
[그림 II-10] 가족영역에 선택한 가치	37
[그림 II-11] 가족의 전반적 분위기 비교	41
[그림 II-12] 친구영역에 선택한 가치	47
[그림 IV-1] 인터뷰 진행 흐름도	112
[그림 V-1] 스톡홀름의 지역 구분	136
[그림 V-2] 네트워크 차트	140
[그림 VI-1] Ego-네트워크카드	173

I. 서론

I. 서론

네트워크 분석은 질적인 연구방법의 하나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인자 속에서 개인이 어떤 연결고리를 사용하여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사회화를 살펴 본 이유는, 청소년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에이전트인 가족, 친구, 학교 속에서 각국의 청소년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이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청소년과 각 사회화 에이전트와의 결속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네트워크 분석은 2007년 연구에서 독일에서만 사용된 방법이었는데, 2008년에는 모든 연구 참가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질적 연구방법의 통일을 꾀하였다. 특히 2008년 연구에서는 저소득 계층을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한국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교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반가정 청소년 16명, 저소득계층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다. 일본의 조사 대상자는 조사 대행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동경, 가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연 소득이 300만 엔 이하이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정의 청소년 자녀 10명을 선정하였다. 미국 조사는 중서부 지역의 미시간 주, 위스콘신 주, 인디애나 주의 11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표집을 구하는 기간에 졸업한 학생 2명도 연구에 참여시켰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은 가정의 월 소득(\$1,000 이하), 무료학교급식 (free lunch)수혜 여부, 거주 하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16명을 선정하였다. 스웨덴 조사는 스톡홀름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무작위로 25개 학교를 선정한 후 면접 인터뷰를 허락한 4개의 학교에서 지원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은 스톡홀

름의 남부인 본쉬르카(Botkyrka)에 거주하고 있는 26명의 청소년이었다. 스웨덴의 특성 상 거주 지역의 차이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이 곧 소득계층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 조사는 부유한 헤센 주의 라인-마인 지역과 경제와 문화 인프라가 빈약한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루르지역에서 32명의 청소년을 선정하였고, 사회계층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인터뷰 후에 부모의 직업과 거주 형태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주관 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Kahn과 Antonucci(1980)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그려준 네트워크 쉬트(부록 참고)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네트워크 쉬트에 위치시킬 의미단어도 13개(책임, 압력, 성공, 신뢰, 돈, 자유, 기쁨, 만족, 무시, 규칙, 사랑, 불안정, 소속감)로 한정하여 각 국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네트워크 조사와 함께 사용할 반구조화된 질문지(부록 참고)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였고, 이것을 각 국의 면접 조사 시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 1-1> 각 국의 네트워크 분석 참여자 현황

국가	표집 수	표집대상	표집 지역	조사 시기
한국	32명	13-19세	서울, 경기, 인천지역	9월
일본	10명	13-19세	동경을 포함한 수도권	9-10월
미국	31명	13-18세	미시간 주, 위스콘신 주, 인디애나 주	8월
스웨덴	40명	14-17세	스톡홀름 지역	9-10월
독일	32명	14-17세	헤센 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	8-9월

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

1. 서론
2. 청소년 사회화와 계층
: 이론 및 문헌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II.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네트워크 분석-한국¹⁾

1. 서론

부모 세대와 비교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소자녀 가족 환경에서 성장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경제적 궁핍함과 전통적 규범의 영향력이 컸던 이전 세대와 비교해 상이한 방식의 사회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과거 가족의 경제적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집단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학업성취 및 입시와 관련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와 관련된 경쟁이 강화되고 공교육이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문화적 영향력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업성취가 강조되는 경쟁적 환경에서 가족배경은 청소년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007년도 청소년 사회화 과정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에서 계층에 따른 사회화 과정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지적되었지만(김현철·김은정, 2007),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

선진국이나 한국에서 교육성취나 직업적 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이 소속된 가정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Haveman et al., 2004; Lee, 1998).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가족배경 요인이 이들의 교육이나 직업적 성취에 중요한데, 이것으로 인해 저소득 계층 자녀의 사회적 성취와 관련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계층에 따른 기회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이다. 계층요인이 교육 및 직업 성취기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희석시키려는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은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습 및 여가, 취미 활동과 관련된 스포츠 및 예능활동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저소득 청

1) 본 연구는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소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습이나 여가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영역에 공공재원의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성취하고 향유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계층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청소년의 사회화를 위한 공적 지원이 미약한 경우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불건전한 사회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비교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학업성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결정하는데 여타 국가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났다(김현철·김은정, 2007). 청소년 사회화 국제비교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의 청소년 사회화 과정에는 학업성취의 비중이 높고 이것과 관련된 경쟁이 심하게 나타난다.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한국 청소년의 비율은 77%로 여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는데(김현철·김은정, 2007), 이것은 방과후 사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과중한 부담은 한국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내 자녀 사회화 과정은 공부에 치중하고 있으며 부모의 자녀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의 비중이 높아지고, 시험점수로 학생들의 사회적 위상이 평가되고 있다(손승영, 2007). 공적 교육이 취약하고 사교육이 발달된 상황에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과 학원 및 명문고·명문대 진학과 관련된 어머니의 정보수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손승영, 2007).

한국에서 공적 부문의 교육이 취약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학업 성취관련 경쟁의 과열은 사교육 영역의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계층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계층별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에는 차이가 있다. 저소득 계층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학교일에 있어서 학부모 참여가 낮고 학생을 방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함인희, 2007). 이런 경우일수록 사회화 주체로서 공교육 및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청소년기는 “자기탐색”과 “자기표현” 과정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주요 주체는 친구, 학교, 대중매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함인희, 2007). 한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여가 공간이 부족하다(함인희, 2007). PC 방과 노래방이 한국 청소년들의 주요 여가 공간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관심과 통제가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지만(손승영, 2007),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은 저소득 계층의 부모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일상생활의 주요영역인 가족, 친구, 학교, 기타 영역에서 이들의 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려고 한다. 빈곤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차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각 영역에서 전개되는 계층별 청소년 사회화 과정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2. 청소년 사회화와 계층 : 이론 및 문헌검토

1) 청소년 사회화와 계층

청소년들은 가족을 통해 자신의 인성이나 취향은 물론 성취기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족은 청소년사회화 과정의 가장 강력한 기제이다. 한국사회의 핵가족 문화는 부모자녀의 강한 응집력에 기초하여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한국 중산층 가족의 독특한 모습으로서 부부중심의 서구 핵가족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김혜영, 2006). 이런 점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그 어떤 사회보다 부모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야 하는 과도한 학업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문화권의 청소년들에 비해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이들의 주된 과제와 목표가 대학진학과 연계되고, 자녀의 진학을 위해 가족단위의 전략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도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 부모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거주지역과 사교육의 수혜정도가 달라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들 자녀의 사회화 과정과 특성에 관하여 크게 알려진 바 없다.

부모의 사회계층과 자녀사회화 과정을 연계하여 설명하려는 고전적 연구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미국 시카고학과와 하버드학과를 꼽을 수 있다. 비록 이들이 사용한 계층개념²⁾에는 차이가 있지만, 계층에 따른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상)중층의 부모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엄격성(strictness)을, 하층의 부모는 허용성

2) 시카고학과에 있어서 사회계층은 타인들에 의해 평가된 직업이지만, 하버드학과에 있어서 사회계층은 교육과 경제수준을 함축하는 직업에 기초한 것이다(황석규, 2004).

(permission)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미국의 사회변동에 따른 자녀 양육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경험적 현상들까지 발견되면서 이들의 연구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황석규, 2004).

한편 196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사회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특히 초기 사회구조적 관점의 사회화 연구자들은 사회불평등 구조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불평등 구조가 자녀 양육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사회불평등 구조를 형성하는 다차원적인 불평등 요인들이 부모의 의식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자녀의 양육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가족내 사회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는데 그 가운데 콘(M. Kohn)과 번스타인(Bernstein)의 연구는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콘에 따르면, 계층은 일차원적인 변수가 아니라 직업, 교육, 수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다차원적 변수이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사람과 자료와 함께 일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작업환경에 있는 부모집단은 (상)중간계층으로, 아버지가 사물과 함께 일하면서 통제된 작업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는 하위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모의 직업 환경과 경험이 부모의 의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예컨대 (상)중간계층의 부모들은 능동적인 자아실현의 의식을, 하위계층의 부모는 수동적인 동조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직업 환경에서 형성된 부모의 의식은 자녀의 양육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청소년들은 부모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콘은 (상)중간계층의 경우 적극적인 자기실현과 함께 자녀의 내재적 규범을 중시하고 있어 자녀의 행동이 자아지향적 가치에 위배될 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해 하층의 부모들은 동조성과 복종을 강조하고 자녀훈육의 기준이 자녀의 동기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자아지향성을 강조하는 중상층들은 외부적 권위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규준에 준하여 행동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만, 하위계층에서는 외부 권위에

대한 동조 경향이 크며 이것이 자녀사회화 과정에서 차이로 나타난다(M. Kohn, 1977:28; 김혜영, 1996:228에서 재인용)

번스타인은 계층의 하위문화에 주목하여 가족의 사회화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가족 내 의사소통을 가족사회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았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어 계층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상)중층 가족은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는 열린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자녀가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데 비해, 하층 가족은 한정된 언어를 사용하는 닫힌 의사소통방식으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지식 습득과 학습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다³⁾.

이들 접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설명방식은 사회화 과정에 있어 가족이 갖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화 조건과 사회화 동질집단이라는 개념으로 가족사회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사회화 조건이란 부모의 전체 생활조건 중에서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와 연관된 다양한 불평등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화 동질집단은 부모의 사회화조건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 의식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 역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자녀양육자인 부모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다시 간접적으로 자녀의 양육방식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고수하여 초기 사회구조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에서는 부모의 경제자본과 더불어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의식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초기의 사회구조론적 관점과는 달리, 부모의 의식이 사회화조건에 따른 부모 행위의 지속성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본다(황석규, 2004). 즉, 부모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어떠한 가치지향과

3) 정교한 언어는 변화가 다양하면서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방으로 정교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부모는 자식과의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성찰적으로 적절한 실례를 들면서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게 된다. 이에 비해 하층의 한정된 언어는 단어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변화가 적은 언어구사방식으로,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항상 거의 동일한 언어구사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황석규, 2004).

의사소통방식으로 행위를 지속하는가에 따라 자녀양육방식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황석규(2004)는 사회화조건의 상위집단에 속하는 부모들이 소유한 의식을 개인주의(individualism), 중위집단의 의식을 가족주의(familism), 하위집단의 의식을 전통주의(traditionalism)로 구분한 뒤, 각 계층별 의사소통과 자녀양육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상위집단의 경우에는 토론에 기반한 성찰적 자녀양육 태도를 견지하는데 비해,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중간층은 분위기와 사랑의 철회를 위협함으로써, 그리고 하위집단은 전통주의에 기대어 의례를 통해 외부의 권위와 힘을 강조하는 양육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황석규, 2004).

2) 청소년의 학업활동과 계층의 영향

부모의 사회계층과 청소년의 학업활동의 연관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도 차이 규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비해(Bowles & Gintis, 1972), 최근의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사회계층과 자녀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연관관계를 매개해주는 추가적인 인과요인의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Teachman, 1987: 548; 장미혜, 2002 재인용). 특히 문화재생산 이론의 핵심 개념인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통해 사회계층과 청소년의 학업활동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교육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들의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한구(2007)는 교육격차와 관련 있는 요인들로 사회계층, 사교육, 교사, 학생의 수업태도, 학업성취도를 설정하여 교육격차에 대한 사회계층의 결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이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모의 사회계층이며, 해당 요인의 인과분석에 있어서도 사회계층이 사교육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영향보다 사회계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문화자본(cultural capital)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획득하기 용이하며, 이것이 다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교육격차를 초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라는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층계급의 가정에서 획득된 문화자본은 학교에서 지식을 다루는 방식과 학교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행위양식에 빨리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층계급의 학생들은 하층계급의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게 된다. 부모의 인적 자원을 통해 획득되는 사회자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와 인적 자원의 제공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루어진 학업성취는 서열화 된 대학구조와 연계되면서 고등교육기회 사이에 질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교육기회의 계층간 차이는 이미 방하남·김기현(2002)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부모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을 밝히고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서열구조를 분석을 통해서 고등교육기회에 있어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다. 대학진학에 관한 계층별 차이에는 재학한 고등학교의 계열구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계열구분 역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즉,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 모두에서 사회계층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교육이 계급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학 서열은 사회계층간의 경쟁적 투자의 장(contested terrain)을 형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사회의 중위 및 상위계층은 교육에 대한 방어적 투자(defensive expenditure)를 통해 그들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장미혜(2002)는 사회계층에 따른 학업성취의 격차를 문화재생산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 문화자본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문화자본의 세대 간 전수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부모의 문화자본 속에 자녀와 함께 이것을 공유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드그라프가

문화자본을 고급문화에 친숙할 수 있는 문화적 성향과 인지적 능력(De Graaf, 2000: 96; 장미혜, 2002 재인용)으로 구분한 것에 착안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분석에 적용하였다. 한국은 고급문화에 관한 서구적 기준의 문화성향을 갖출 수 있는 역사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화자본에 있어 문화적 성향보다는 인지적 능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장미혜, 2002).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상층이나 하층계급보다는 중간계급이 가장 많은 문화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모의 문화자본 위계와 대학의 서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자본을 가장 많이 가진 자본가 계급보다는 중간계급이 문화자본을 매개로 교육을 통해 계급재생산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크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가 많은 문화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높은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문화자본을 통한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는 청소년의 학업활동과 사회계층의 관계를 문화자본이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계급이나 교육수준과는 별개로 문화자본이 독자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선발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화자본을 통해 계급을 재생산하려는 지배계급의 시도가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격차에 있어서 사회계급을 결정적이고 유일한 요인으로 여기는 오류를 경계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사회계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적 변수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류방란·김성식(2007)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으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데 상층계급일수록 그 감소폭이 작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정의 교육지원에 대한 계층별 격차가 더 커진다고 본다.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학습참여도도 높고 수업집중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이들의 논의에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교육지원과 학교경험 요인 모두에서 계층별 차이가 나타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성취격차는 더 커지고 있음이 지적된다.

김현주·이병훈(2006) 역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족의 배경요인이 학업성취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지만, 남녀 모두에게 부모-자녀 간 진학과 진로에 관한 대화정도가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사회자본의 유무와 같은 가족배경 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김현주·이병훈, 2006). 이는 곧 부모-자녀 간 대화를 통한 애착관계가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안우환·김경식(2005)은 학부모의 계층별 사회망(social network)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학부모의 계층별 사회망은 가족 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데,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어머니의 사회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에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최근의 현실과 부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되는 어머니의 사회자본은 자녀의 교육지원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때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사회망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사회계층과 청소년 학업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안우환·김경식, 2005).

이처럼 사회계층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의 하나인 강남·강북의 격차 역시 거주지에 따라 청소년 학업성취격차를 둘러싼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에 따라 조성된 교육환경의 차이는 부모로 하여금 좋은 학군과 좋은 교육여건을 따라 거주지를 빈번하게 이동하게 한다.

김경근·장희진(2005)의 연구는 거주지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은 소득수준이 높고 아버지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가정이다. 교육적 동기에 의해 거주지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근은 또 다른 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지역과 계층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전제 아래 지역 간 교육격차를 논의하고 있다. 즉 지역적으로는 광역시가 읍면지역보다 학업성취수준이 높으며, 계층별로는 아버지 학력, 가계소득, 보호자 직업위계가 높을수록 성취수준이 높다(김경근, 2005). 자녀교육지원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치되면서 계층격차가 심화되고, 이러한 지역격차는 다시 교육격차로 이어진다.

3)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사회계층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지적, 정서적 발달이 동시에 진행되며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면서 성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학업 및 장래 진로문제 등으로 누구나 쉽게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결집이나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보다는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한 시기인데 한국사회 청소년은 진학을 위한 학업과 학력에 대한 부담으로 청소년의 여가문화 자체가 억눌려 있다. 「가족실태조사」(2005)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가족과 적극적인 여가를 보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으로 소일하는⁴⁾ 수동적인 여가형태를 보인다(장혜경·김혜영 외, (2005); 김혜영,

4) 가족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한국가족의 여가행태는 무엇보다, 조사대상 가구원 5,348명 중 평일에 가족과 함께(최소 2명 이상)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인 사람이 57.8%로 가장 높았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평일 저녁시간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5,348명 가운데 49.9%가 주로 TV를 시청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TV 시청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응답이 52.8%에 달하고 있다(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2006).

2006).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인데, 사회경제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해 분석한 서우석(2007)의 연구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우석은 부르디외의 사회계급론적 문화이론을 견지하면서 여가활동에도 지배계급이 선호하는 여가활동과 선호하지 않는 여가 활동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 활동의 위계 체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004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인쇄매체, 음악·비디오 감상, 문화예술관람, 야외취미, 수면·휴식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방송매체, 게임과 같이 시간소비가 많고 오락성이 강한 여가 유형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여가 유형은 주로 지배계층의 문화자본 축적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이 자녀의 여가활동에 대해 전략적 훈육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선호여가척도’,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비선호여가척도’라고 이름 붙이고 이 두 척도를 토대로 여가위계 척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가위계 척도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학교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평균 부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의 위계에 따라 여가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여가 활동의 위계에 따라 여가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민정(2003)은 청소년 여가활동은 문화 복지⁵⁾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문화 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내용이 청소년 여가활동에 나타난 여가 유형과 유사하다⁶⁾. 김민정에 따르면, 여가활동 영역, 영화관람 영

5) 문화복지란 좁은 의미로는 문화적 결핍을 가진 문화적 약자나 문화적 낙오자를 예방·치료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상의 요구 내지는 문화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개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라고 하겠다(김민정, 2003).

역, 순수예술활동관람 영역, 정보통신·미디어 영역, 인쇄매체 영역 등의 청소년참여 실태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중층인 학생들은 시간 부족을, 하층 학생들은 용돈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영화관람 영역에서는 용돈 부족으로 인해 상층학생들보다 하층학생들이 관람의 횟수가 적으며 순수예술활동관람 영역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향유 기회와 관련 지출비용은 높게 나타났다. 정보통신·미디어 영역에서는 상층으로 갈수록 PC 소유비율과 사용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쇄매체 역시 상층으로 갈수록 독서시간도 길고 도서에 대한 지출 비용도 높게 나타났다. 즉,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은 다르지만 많은 영역에서 계층별 제약요인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김민정, 2003).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사회계층의 관련성에 있어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하층계급 학생들의 여가활동 제약요인이다. 상층의 학생들은 학업 부담에 따른 시간 부족 때문에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지만 하층 계급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하층계급의 학생들은 여가 활동을 원해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때문에 여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의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하층계급의 학생들이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대전시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 여가실태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변보기, 2005).

-
- 6) 김민정(2003)은 청소년 문화복지 실태와 관련해서 여가 및 사회참여 부문(여가활동 영역, 스포츠활동 영역, 자원봉사활동영역), 공연관람 및 예술활동 부문(영화관람 영역, 연극관람, 음악회감상, 미술전시회관람, 무용발표회관람 영역), 정보통신·미디어 부문, 방송·인쇄매체 부문(TV 영역, 라디오 영역, 인쇄매체 영역), 유해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청소년 여가 유형과 관련해서는 강길현(2003) 등 비교적 최근의 연구와 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오락·사교활동, 봉사·종교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에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복지와 여가활동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 영역이 서로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한국의 핵가족은 서구와 달리 부부중심이기보다는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 가족의 주요과업으로 부각될 만큼 자녀중심적인 생활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핵가족문화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주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통한 문화자본의 획득과정이라는 도구적 과정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사실상 자녀와의 깊은 유대 및 관계 증진을 통한 정서적 관계에는 소홀하다(김혜영 외, 2006).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이들에 대한 뒷바라지의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가족 밖에서의 성공이나 생계부양자라는 역할의식은 강하지만 친밀한 부모와 자녀관계를 위한 소통기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다.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는 청소년의 생활세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활 기회를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청소년의 삶을 구조화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태도와 사회인식은 물론 학업성과 여가생활에서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재생산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논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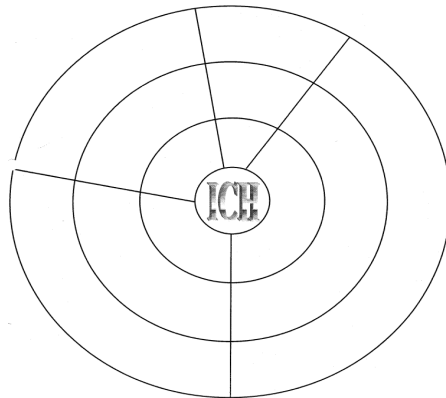
사회 성취를 강조하고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이상시하는 우리사회에서 부모세대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과도한 조직몰입을 마다하지 않으며, 청소년 또한 자신들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자유로운 고민보다는 과도한 입시와 취업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청소년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계층적 속성으로 인해 이들이 어떻게 사회화되며, 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제약되는 삶의 기회는 무엇인지를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삶의 기회격차로 인해 청소년 일부집단의 박탈과 배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1) 네트워크 차트

본 연구에서는 빈곤 가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이다(Quenzel, 2007). 이 방법론은 네트워크의 구조 및 기능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한 개인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사회관계에 대한 구조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주위의 위치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지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아래의 차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데, 차트의 중심에 ‘나’가 위치하고 나를 중심으로 원은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나를 중심으로 외부에 위치한 원과 영역의 구분이 만남으로 분할되는 공간 각 영역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 나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나와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1] 네트워크 차트

- 네트워크 차트 중심에 ‘나’를 위치시킴 (이름 기재)
- 나를 중심으로 하여 네 개의 영역이 구분되는데 주관적 평가에 따라 크기가 다름

각 차트는 조사대상자 면접을 통해서 수집되는데 소요시간은 30-60분 정도였다.

면접조사를 통해서 네트워크 차트를 완성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를 포함한 학교 내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기타 영역이 있다고 설명함
-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원에 가족, 친구, 학교, 기타를 기재하도록 함.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큰 영역에 가족을 위치시킴

<2단계>

- 각각의 영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게 함
-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가운데 ‘나’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람일수록 바깥쪽에 위치시킴

<3단계>

- 감정 및 가치를 적은 13개의 스티커를 나눠 줌 : 책임, 압력, 즐거운, 연대, 돈, 자유, 불안, 도전 등
- 13개 스티커를 4개의 영역 가운데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모두 붙이도록 함
- 남은 스티커는 없어야 하고, 중복해서 스티커가 더 필요한 경우 자신이 직접 써 넣을 수 있음을 설명함

2) 조사대상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조사대상자 분포는 다음과 같다. 빈곤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 각각 16명씩 총 32명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집단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를 각각 8명씩, 각 학교수준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4명씩 표집하였다.

빈곤 가정 청소년(16명)				일반 가정 청소년(16명)			
중학생(8명)		고등학생(8명)		중학생(8명)		고등학생(8명)	
남(4명)	여(4명)	남(4명)	여(4명)	남(4명)	여(4명)	남(4명)	여(4명)

학교 선정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남녀공학으로 하였다.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학교는 전체의 일부인데, 사회복지사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가능하면 동일 학교에서 성별과 집단별로 청소년을 선정하여 학교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변인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청소년 특히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접근하기가 어렵기에 학교 사회복지사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 의뢰하였다.

일반가정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의 학생이며, 빈곤가정 청소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담임교사 및 사회복지사의 추천에 따라 학생을 선정하였는데, 담임교사와 사회복지사에 의해 가정상황이 사정(assessment)된 학생 중 본인이 조사에 동의한 학생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면접은 개별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면접조사 형식으로 30분~60분 정도 진행되었다. 조사는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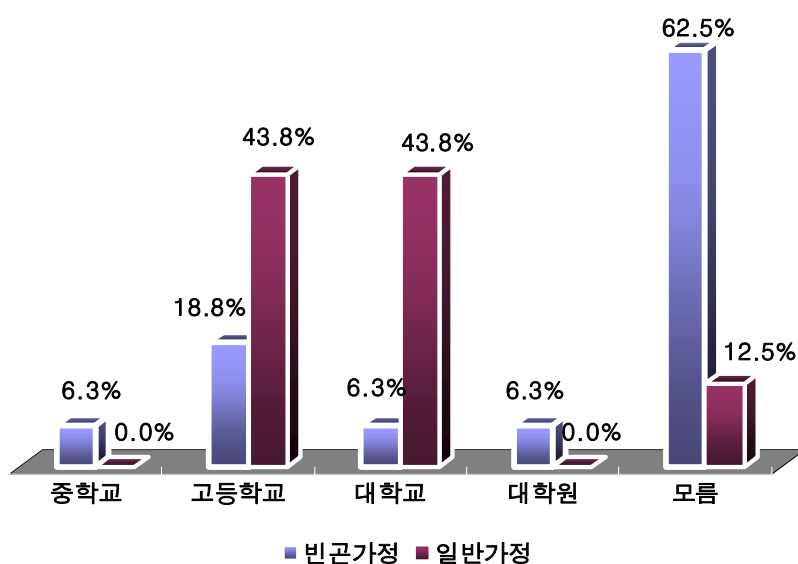
4. 연구결과

1) 청소년의 가족배경과 가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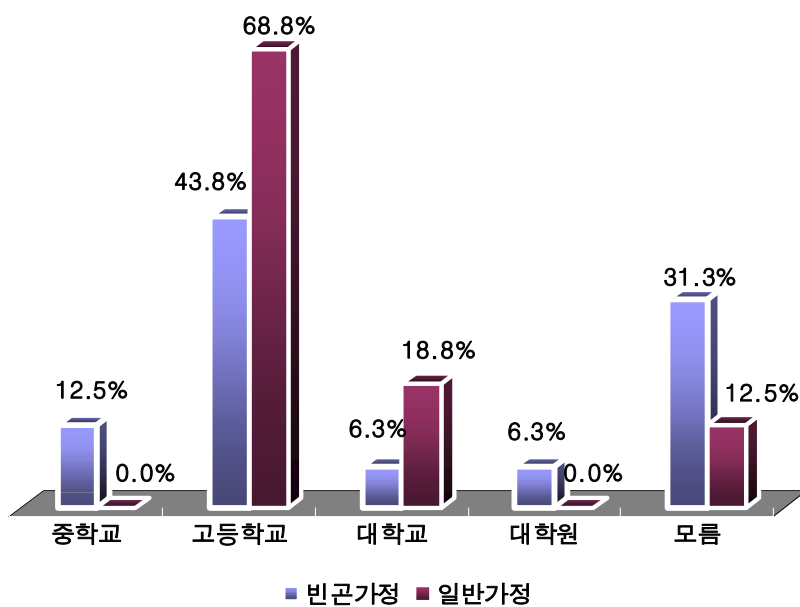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의 계층별 차이와 그것으로 인한 학업과 직업성취의 차이에 대한 규명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부모의 학력과 관련된 응답을 보면 빈곤가정에서 부모의 학력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빈곤가정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6명 중 10명이 아버지의 학력을, 5명이 어머니의 학력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높은 것이다. 부모를 통해 자녀가 부모의 학력을 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빈곤가정에서 부모의 성장기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된 대화가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가정의 경우 아버지 학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일반가정에서 3분의 2 이상이 고등학교로 아버지의 경우처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분포되어 있다. 빈곤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고등학교 이하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일반가정은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이다. 두 집단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1>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 학력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아버지	중학교	1	6.3%	0	0.0%
	고등학교	3	18.8%	7	43.8%
	대학교	1	6.3%	7	43.8%
	대학원	1	6.3%	0	0.0%
	모름	10	62.5%	2	12.5%
어머니	중학교	2	12.5%	0	0.0%
	고등학교	7	43.8%	11	68.8%
	대학교	1	6.3%	3	18.8%
	대학원	1	6.3%	0	0.0%
	모름	5	31.3%	2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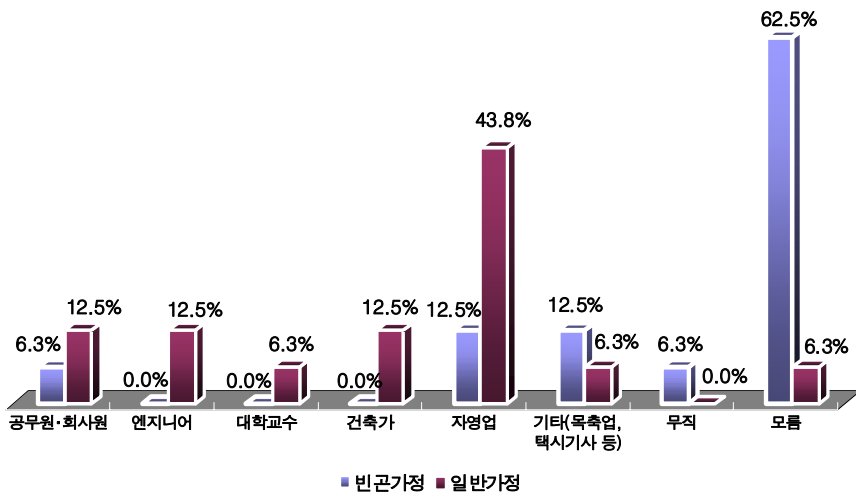
[그림 II-2] 아버지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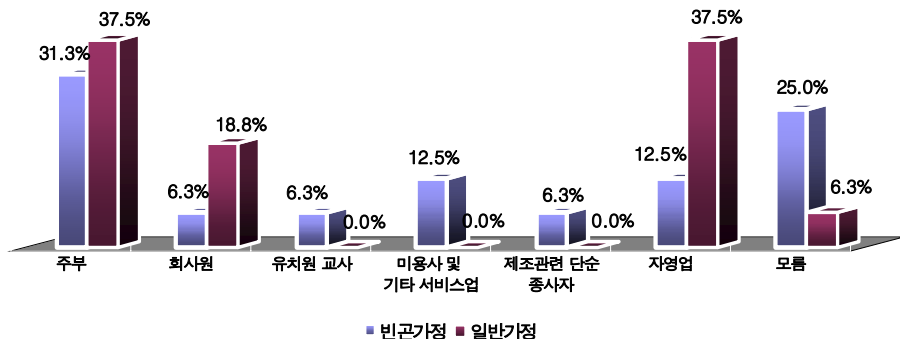
[그림 II-3] 어머니 학력

<표 II-2>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 직업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아버지	공무원·회사원	1	6.3%	2	12.5%
	엔지니어	0	0.0%	2	12.5%
	대학교수	0	0.0%	1	6.3%
	건축가	0	0.0%	2	12.5%
	자영업	2	12.5%	7	43.8%
	기타(목축업, 택시기사 등)	2	12.5%	1	6.3%
	무직	1	6.3%	0	0.0%
	모름	10	62.5%	1	6.3%
어머니	주부	5	31.3%	6	37.5%
	회사원	1	6.3%	3	18.8%
	유치원 교사	1	6.3%	0	0.0%
	미용사 및 기타 서비스업	2	12.5%	0	0.0%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1	6.3%	0	0.0%
	자영업	2	12.5%	6	37.5%
	모름	4	25.0%	1	6.3%



[그림 II-4] 아버지 직업



[그림 II-5] 어머니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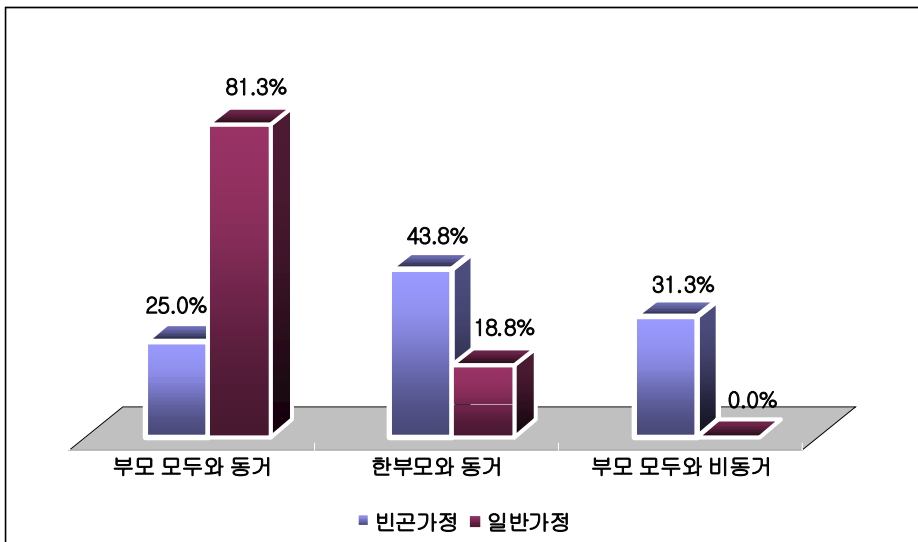
학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직업을 모르는 비율이 빈곤가정의 경우 조사대상의 3분의 2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의 취업 및 직업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가정 아버지의 직업 중 자영업 종사자가 다수로 나타났고, 그 밖에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들이 있다. 빈곤가정에서 어머니의 직업을 모르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양 집단 모두에서 주부의 비중이 큰데, 일반가정에서 더 높다. 일반가정에서 어머니 직업 분포는 주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업, 회사원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에서는 주부, 자영업 및 미용 등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부모와 동거여부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양부모 동거	4	25.0%	13	81.3%
한부모 동거	7	43.8%	3	18.8%
어느 쪽 부모와도 동거하지 않음	5	31.3%	0	0.0%
합계	16	100.0%	16	100.0%

부모와의 동거 여부 역시 청소년 사회화와 관련된 가정현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동거여부는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여 일반가정의 양부모

모두와 동거 하는 비율은 81.3%인데 반하여 빈곤가정의 경우는 25%에 불과하였다.⁷⁾ 부모 중 한 사람과 동거하는 비율이 일반가정은 18.8%, 빈곤가정은 43.8%로 나타났고, 부모 어느 쪽과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가정에는 없고 빈곤가정에는 31.3%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와의 동거 자료를 통해서도 이들의 가족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림 II-6] 부모와 동거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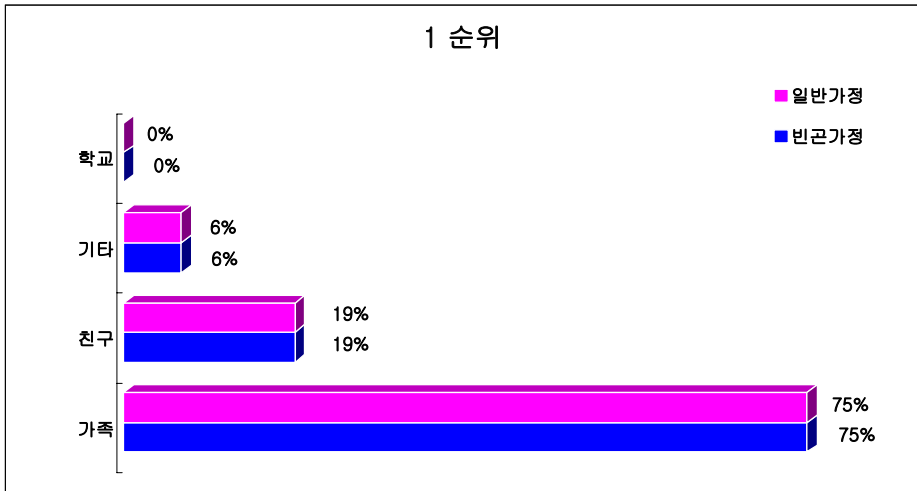
7)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임의로 추출한 32개 표본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와 관련된 일반화에는 조심성이 요구된다.

2) 청소년의 계층별 사회화 과정

<표 II-4> 가장 중요한 영역

		빈곤가정			일반가정		
		합계	여자	남자	합계	여자	남자
		명수(%)	명수(%)	명수(%)	명수(%)	명수(%)	명수(%)
1순위	가족	12(75.0)	6(75.0)	6(75.0)	12(75.0)	6(75.0)	6(75.0)
	학교	0(0)	0(0)	0(0)	0(0)	0(0)	0(0)
	친구	3(18.7)	2(25.0)	1(12.5)	3(18.7)	1(12.5)	2(25.0)
	기타	1(6.3)	0(0)	1(12.5)	1(6.3)	1(12.5)	0(0)
합계		16(100)	8(100)	8(100)	16(100)	8(100)	8(100)

청소년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접하는 영역인 가족, 친구, 학교, 기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물었다. 전체 32명 중 24명인 75%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이 소속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거여부별 집단 간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에서 공히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화 영역 중 가족이 1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통념적으로 일반인들은 양친 부모가 있는 가족을 “정상 가정” 혹은 “정상 가족”으로 인식한다. 본 조사 대상자 중 빈곤가정 청소년의 대다수가 이러한 통념적으로 인식되는 양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는다. 한부모, 조모,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은 빈곤집단 청소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II-7] 가장 중요한 영역 1순위

(1) 가족영역

① 가족의 의미

<표 II-5> 가족의 의미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편안함을 제공해준다	2	12.5%	—	0.0%
소중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	4	25.0%	2	12.5%
평생 함께하는 존재이다	4	25.0%	3	18.8%
믿을 수 있고 이끌어주는 존재다	—	0.0%	3	18.8%
가장 필요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2	12.5%	7	43.8%
혈연관계로 이어져있다	3	18.8%	—	0.0%
무응답	1	6.3%	1	6.3%
합계	16	100.0%	16	100.0%

청소년들은 집단에 차이 없이 가족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의미부여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반가정에

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10명), 빈곤가정의 경우는 2명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가정에 비해서 빈곤가정 청소년들을 가정의 원론적인 측면-혈연, 소중함, 평생 함께 함에 상대적으로 더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②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중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양 집단 모두에서 어머니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일반가정에서 더 높아 68.8%이고 빈곤가정에서는 56.3%이다. 빈곤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어머니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머니가 부재하여 할머니나 아버지가 주요 양육자 역할을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선정한 청소년은 소수였다.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돌봄과 이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청소년들이 느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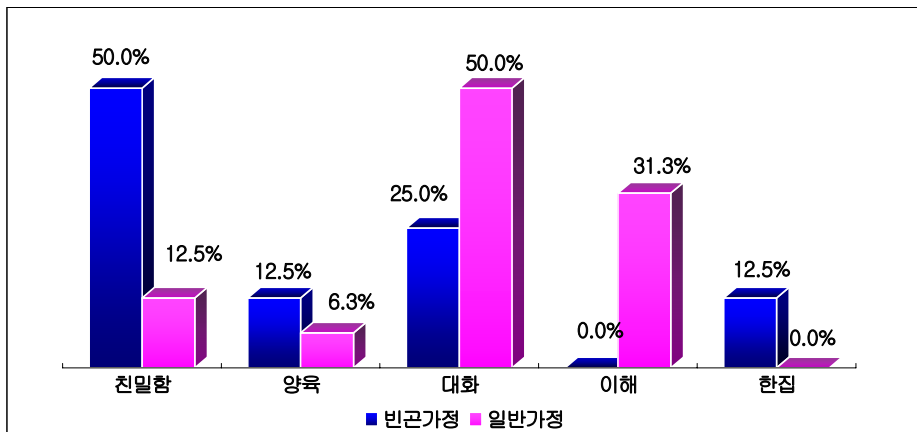
<표 II-6>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어머니	9	56.3%	11	68.8%
아버지	1	6.3%	2	12.5%
형 제	3	18.8%	3	18.8%
할머니	3	18.8%	—	0.0%
합 계	16	100.0%	16	6.3%

<표 II-7>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선택한 이유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친밀하며 잘 챙겨주셔서	8	50.0%	2	12.5%
키워주셔서	2	12.5%	1	6.3%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대화를 많이 해서	4	25.0%	8	50.0%
나를 더 잘 이해해 주셔서	—	0.0%	5	31.3%
같은 집에 살아서	2	12.5%	—	0.0%
합계	16	100.0%	16	100.0%

가족구성원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특정인을 선정한 이유를 보면 일반 가정 청소년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대화를 많이 해서” 혹은 “나를 더 잘 이해해주셔서”와 같이 의사소통에 이유를 두는 비율이 높았지만 빈곤가정의 경우는 “친밀하게 잘 챙겨주셔서” 혹은 “같은 집에 살아서”와 같이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II-8]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선택한 이유

어머니가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되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친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감싸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아버지의 경우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에 상관없이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시간은 아버지에 비해 길고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두 집단 모두에서 아버지들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짧고 대화의 방식도 투박하다. 어머니와는 말이 잘 통하지만 아버지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경우가 많다.

아빠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어,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빠가 집에 일찍 안 들어와서 못 볼 때도 있어요...주말에도 일 나가실 때 있어서...[주말에도 일 나가실 때가 많고? 그럼 아빠랑은 거의 대화를 하는 경우가]...거의 없어요(빈곤가정 남학생 중3).

[엄마랑 대화한다고 했는데 엄마랑 대화, 의사소통하는 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 돼?] 많지는 않고요. 그냥 주고받고, 뭐 돌아다니면서. 딱 앉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하루에 30분? 1시간?... [그러면 아버님이랑은?] 아버지랑은 1분도 안될걸요?... 몇 초도 안 될 걸요? (일반가정 남학생 고1).

[그럼 (아버지랑) 대화 한번 얘기하면 몇 분정도...?] 5초정도... [아 5초정도.. 대개 짧네요... 기분 좋을 때는요?] 10초정도(빈곤가정 남학생 고2).

[아버님하고 하루에 대화 어느 정도 하니? 만약에 시간으로 따진다면?] 1분도 안 해요. 1분도 안 해? [음. 아버님이 많이 바쁘신가 보다] 네(일반가정 남학생 고2).

아빠랑은 잘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친하긴 한데요 어쩔 땐 친하고 어쩔 땐 안 친하고 그런거라서요.. 아빠랑은 대화하는 내용이 대부분 대학이라던가 학원 뭐 어쩌냐 학교 얘기하고요 엄마랑은 많이 해요 밤마다 하는 거 같아요. 그냥 밤마다 아빠가 늦게 들어 온 날은 엄마

랑 같이 잘 때도 많이 하니까 엄마랑 말을 많이 해요 고민 같은 거고(일반가정 여학생 고1).

[그럼 주로 주말 같은 땐 집에 같이 있을 것 아냐? 가족들이]. 네. [그때도 그냥 엄마랑 만 얘기하고 아빠랑은 잘 얘기를 안해?] 네. [그렇구나. 그럼 아빠하고는 이런 여러 가지 너한테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거를 잘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네?] 어. 저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아빠는 많이 안 들으시고(일반가정 여학생 고1).

엄마는 무조건 다 감싸주려고만 하시고 아빠는 자꾸, 아빠가 되게 무뎡뎡하셔서 표현을 잘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운함을 느낄 때도 많고 그래요(일반가정 여학생 고1).

[아빠가] 어.. 만날 저만 보면요. 막. 무시하고. 음. 제가 못하는 그런 것만 집어갔고. 그렇게 말해갔고... [음. 그러면 아빠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한 적 있어?]...네. 저는 그냥 한 말인데. 아빠는 쪼끄만 게 어디서 대드냐고(일반가정 여학생 중3).

집단에 관계없이 아버지와의 대화는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비교해 대화시간도 짧고 같이 있을 때도 대화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는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길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듯하다. 단순히 장시간 근로가 대화의 장벽은 아닌 듯하다. 한 어머니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주말에만 자녀를 만나는 사례를 보면 물리적으로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자녀와의 친밀한 의사소통은 지속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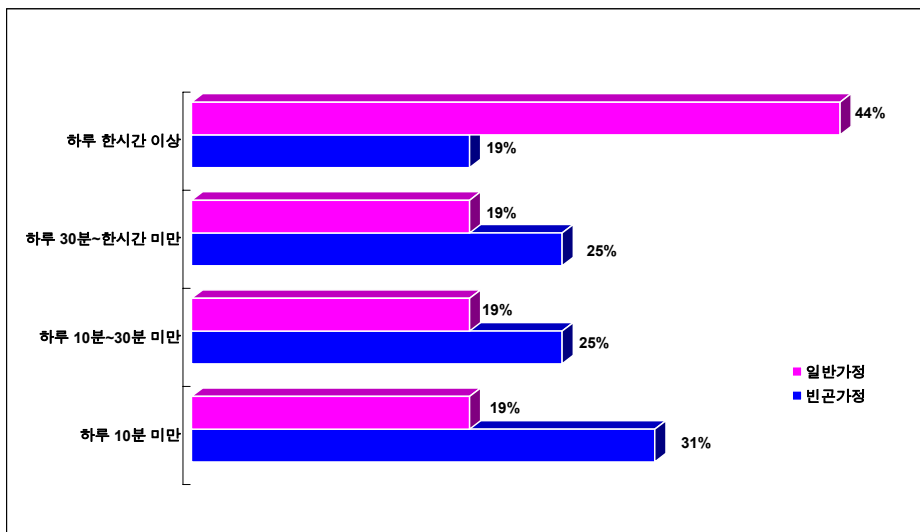
엄마는 그래도 [일 때문에] 같이 살지는 않지만 우리를 돌봐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맙게 생각되고 가깝게 느껴져요]... 하루에 2-3번 통화해요... 학교 이런 거 소식 같은 것도 알리고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학교에서 급식 뭐 먹었는지, 밥 먹었는지 항

상 저를 걱정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자주해요(빈곤가정 남학생 고1).

아버지들이 자녀와 친밀성을 유지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친구는 [가족영역] 가장 가까운 곳에 아버지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많이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그냥 엄마보다 아빠가 더 가까웠습니다. 책도 많이 사주시고 그랬으니까요 (일반가정 남학생 중2).

아빠가 많이 이해해주시고, 다정다감하게 말씀도 해 주시고. 절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예요(일반가정 남학생 고1).



[그림 II-9] 부모님과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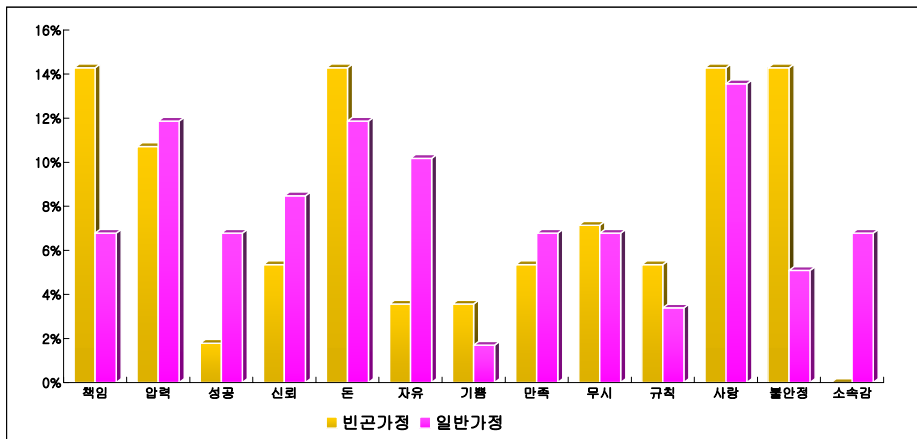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루 한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일반가정의 경우 44%이지만 빈곤가정의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반면, 하루 10분 미만 대화하는 경우는 일반가정은 19%이지만 빈곤가정에서는 31%에 달한다. 일반가정에 비해서 빈곤가정에서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③ 가족영역과 관련하여 선택한 의미 및 가치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14개의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나눠 주면서 네트워크 차트에 표시된 각각의 영역에서 접촉하는 특정인과 연결하여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해당영역의 특정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려고 하였다. 아래 표는 가족영역과 관련된 특정인들에게 부착된 청소년들의 의미부여를 보여주는 스티커를 모두 합산한 표이다. 주요 차이를 보면 빈곤계층 청소년들 중 가족구성원에게 가족영역에 책임과 불안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비율이 높았다. 한부모 가족에서 생활하는 빈곤청소년은, 어머니 혹은 할머니에 대해서 ‘책임’과 동시에 ‘돈’이라는 의미부여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가정에서는 주된 생계부양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책임’보다는 ‘사랑’, ‘자유’, ‘돈’을 떠올리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주요한 차이는 빈곤가정에서 가족구성원과 관련하여 ‘불안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아버지, 형제자매,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부여를 하였다. 일반가정의 3명에 비해 빈곤가정의 8명이 자신의 가족구성원을 지칭할 때 ‘불안정’하다고 한 점은 이들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정서적 불안정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8> 가족영역에 선택한 가치

	빈곤가정		일반가정	
	빈도	%	빈도	%
책임	8	14%	4	6.78%
압력	6	11%	7	11.86%
성공	1	2%	4	6.78%
신뢰	3	5%	5	8.47%
돈	8	14%	7	11.86%
자유	2	4%	6	10.17%
기쁨	2	4%	1	1.69%
만족	3	5%	4	6.78%
무시	4	7%	4	6.78%
규칙	3	5%	2	3.39%
사랑	8	14%	8	13.56%
불안정	8	14%	3	5.08%
소속감	0	0%	4	6.78%
합계	56	100%	59	100%



[그림 II-10] 가족영역에 선택한 가치

구체적으로 빈곤가정의 ‘불안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할머니가 아프면 불안해 보이고’, ‘아버지하고 말도 잘 안통하고 예민하셔서’, ‘아

빠가 같이 살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내가 불안해서’,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엄마와 자주 다투고 아빠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문에 불안정 단어가 떠올라서’, ‘엄마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데 돈 없는데 보일러 틀어놔다고 집 팔아야 한다고 해서’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다고 청소년들은 말한다. 일반가정의 경우는 ‘불안정’이라는 단어를 ‘아빠 직업이 불안정적이어서’, ‘동생이라 자주 싸워서’ 등의 이유로 선택되었다.

엄마께서는 경제적인 부분 책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깐. 아무래도 아빠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무책임 하시다고 할까... [엄마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쁜 얘기가 아니라 이번 달까지 아파트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오늘 학교 뭐 급식비 얼마 나가고... 하는데 “통장에 얼마 밖에 없고. 들어올 게 얼마 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소리 하시고. 너네들은 제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시고. 또. 보일러 어떤 때 막 틀고. 샤워하다 보면 “왜 이렇게 보일러를 많이 쓰냐”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엄마. 저 한 달 학원가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자도 못 감당하고 집을 당장 팔아야 할 판이다. 니가 조금만 더 참을 순 없겠냐?” 그러면은 그럴 때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면서도 ‘엄마 되게 불안정하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빈곤가정 여학생 고1).

④ 부모님의 양육방식

‘미래 자녀를 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래 <표 I-9>과 같이 ‘네’라고 대답한 비율이 빈곤가정과 일반가정 각각 31%, 38%로 나타나 다수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만으로 생각하는 점은 두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미래 진로에 대해 청소년의 의사 존중이 미약함, 자유의 제한 등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며 단절된 경우도 발견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다루는 경우도 나타났다.

<표 II-9> 미래의 자녀를 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키울 것인가?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네	5	31%	6	38%
아니요	11	69%	10	63%
합계	16	100%	16	100%

엄마 이해 안하시고 무조건 화부터 내는 성격[이예요]. 저는 만일 자식이 잘못을 했다면, “네가 잘못된 건 뭘데”, “니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할꺼다 그러니 니가 어떻게 해주길 바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선 “니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자식이 뭘 했는지 자식위주로 물어볼 거 같아요(빈곤가정 여학생 중 2)

아버지처럼 연락이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항상 자식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항상 부인한테 봉사적이고 항상 배려할 줄 아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빈곤가정 남학생 고1).

용돈을 많이, 용돈을 줘야 돼요... 뭐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는] 안돼지만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막 “엄마 저 닌텐도가 필요해요”[하면] 닌텐도 막 사주고... “영어? 해~” 막 이렇게 하고. “문제집? 사~” 이렇게 막하고 [싶어요] (빈곤가정 남학생 고1).

그냥 자유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뒤 볼 꺼예요, 일단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정 진로를 선택을 못하고 방향을 한다면 잡아[줘]야죠.[그러면 왜 부모님이 했던 방식으로 키우고 싶지가 않아?] 뭔가 강압적? 무대포? 이런 건 거 같아요. 이런 걸 하다보면 진짜 슬럼프가 길어요. 한 1,2년 가요. 정말로. 그러니까 되게 못 하겠더라구요(빈곤가정 남학생 고2).

저는 그렇게는 안키우고요. 일단 처음에는 공부를 하게 해보고 좀 공

부를하다가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잖아요. 중학교나 돼야 중학교 때
까진 공부를 하게해보고 공부가 애한테 안 맞는 거 같으면 자기하고
싶은 거 찾아오라 해서 하고 싶은 거 밀어 줘야죠. 하기 싫은 거 억
지로 시키면 저처럼 될 거 같아서……(일반가정 남학생 고3).

아빠 압력은요 아빠가 일단 교육자시기 때문에 그니까 사촌들이 공
부 잘한다고 하면 저한테 와서 너는 왜 못하냐고 공부하라고 압력을
주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애들이랑 놀 기회가 없었
어요. 그 정도로 막 뽕새게 돌려요 학원을. 그래서요 쯤 압력이에요
압력. 컴퓨터 하면 뒤에서 압력 붙어 넣고요(일반가정 여학생 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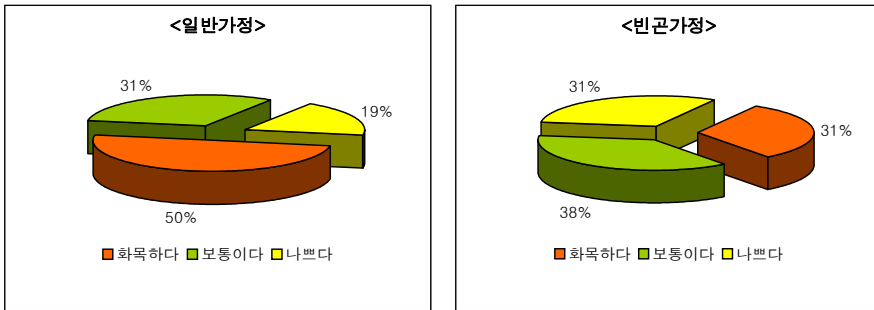
아니요 저는 싫어요. 그니까 저희 집은요 거의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
그런 식이에요 거의 공부쪽으로 가란 식인데요 제가 만약 자녀를 낳
으면요 딱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싫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돈벌게
너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일반가정 여학생 고1).

⑤ 가족의 분위기 및 만족도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의 분위기에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화목
하다’는 비율은 빈곤가정에서 31%, 일반가정에서 50%인 반면 ‘나쁘다’는
빈곤가정 31%, 일반가정 19%로 상대적으로 일반가족의 가족관계가 원만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가족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0> 가족의 전반적 분위기 비교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화목하다	5	31%	8	50%
보통이다	6	38%	5	31%
나쁘다	5	31%	3	19%
합계	16	100%	16	100%



[그림 II-11] 가족의 전반적 분위기 비교

가족분위기에 대한 평가는 가족만족도와 연결되는데, 가족 만족도는 예상한대로 빈곤가정에서 낮게 나타났다. 흥미 있는 점은 빈곤가정에서의 가족만족도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7점 이상의 만족도는 나타난 경우가 62.6%로 일반가정의 68.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4점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낸 청소년의 비율은 빈곤가정의 경우 25%로 일반가정의 6.3%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대부분의 경우 가족에 대한 만족도 5점 이상에 분포하고 있지만 빈곤가정의 경우 양극화되어 있다.

<표 II-11> 가족에 대한 만족도 비교

	빈곤가정		일반가정	
0점	2	12.5	0	
1~2점	0	0.0	0	
3~4점	2	12.5	1	6.3
5~6점	2	12.5	4	25.0
7~8점	5	31.3	5	31.3
9~10점	5	31.3	6	37.5
합계	16		16	

[가족분위기가] 좋아보이진 않아요. ... 가족이랑 다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없고요... [음] 다 따로 따로 먹고 [음] 자기 졸릴 때 되면 그냥

가서 자고 [음] 그러다 보니깐 가족끼리 막 외식하고 그러는 날 있잖아요 [음] 저희 집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음] 그냥 따로 따로. (빈곤가정 여학생 중3)

[가족이 모였을 때 분위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아빠가 술을 드셨느냐 아니냐에 따라!

[술 드셨을 땐 어때?] 술 드시면 침묵해야 되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열 마디가 돌아와요. 아빠가 술 드셨으면 엄마가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조용히 들어가야 되요! [술을 안 드셨을 때는?] 나오시지 않죠. 제가 들어가면요 “어서 오라”고 하구요 들어가세요(일반가정 남학생 중3).

가족내에서 폭력적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들 가정에서는 부모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엄마가 너무 많이 때리세요.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아요.... 음... 근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컸잖아요. 언니하고 오빠는 못 때리는데 그래도 제가 어리니까 저를 많이 때리죠(빈곤가정 여학생 중 2).

[지금도 그럼 가끔 때리시는 거야?] 네. 한 달 전인가? 아니 몇 주 전인가? 맞았어요. 막. 계속 때리셔서 “왜 때리냐고... 근데 옛날에 어떤 아시는 분이 이랬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계속 때리면 계속 맞다가 한번 딱 막아보라’고 그러면 그 다음 부터는 안 때린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빠가 계속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막 빌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웬지 그 때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맞았어요. 그냥 계속 맞다가 아빠가 안돼겠나봐요 얼굴을 발로 까는 거 예요 막. 그래서 가만히 맞았어요. 맞다가. 안 질려고 [제가] ‘싫다’고 그러면

서 하다가 아빠가 때릴라 하는데 제가 손을 잡고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딱 했는데 안 때리고 앉으면서 ”말로 하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가 이런 말 했는데 너 왜 대드냐”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는데, 아빠가 내말은 듣지도 않고 아빠 멋대로 생각하셨잖아요’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아빠가 ‘들어가라’고, 그냥, 말도 안 되니까 진짜. ‘들어가라’고. 내가 ‘아휴!’ 그러면서 들어왔죠. 근데 다음날 문 열고 들어왔는데, 저는 좀 냉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 어 우리 공주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아~ 네 왔어요~ 아빠’ 하고. [너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네?] 한두 번이 아니니깐요(빈곤가정 여학생 고2).

[아버지가] 다혈질이어서요. [아버님이?] 네. 손도 자주 올라가고, 욕도 하고 그래 가지고(일반가정 남학생 고2).

(2) 친구영역

친구는 가족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친구를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빈곤가정의 경우 56%, 일반가정은 69%였다.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친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 대부분의 경우 친구는 가족과 학교에서 받는 성취에 대한 압력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하여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였다. 또 다른 주요영역인 학교에 있어서도 친구와 관련된 의미부여가 크다. 학교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인식한다. 학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람으로 교사를 선택하지 않고 친구들로 학교 영역의 가까운 사람을 채운 청소년들도 있다.

① 친구의 의미

친구를 ‘친밀하고 즐겁게 지내는 존재’ 혹은 ‘힘들 때 도와주고 의지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는 빈곤가정에서는 56.3%, 일반가정에서는 50.1%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 혹은 ‘고민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조사대상 일반가정 청소년 43.8%가 인식하고 있지만 빈곤가정에서는 0%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대상 빈곤가정 청소년의 25%는 ‘평생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 혹은 ‘편안한 안식처를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표 II-12> 친구의 의미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친밀하고, 즐겁게 지내는 존재	5	31.3%	3	18.8%
힘들 때 도와주고 의지가 되는 존재	4	25.0%	5	31.3%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	0	0.0%	4	25.0%
고민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	0	0.0%	3	18.8%
평생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	2	12.5%	0	0.0%
편안한 안식처를 주는 존재	2	12.5%	0	0.0%
무응답	3	18.8%	1	6.3%
합계	16	100.0%	16	100.0%

[친구] 어~ 제일 편해요(빈곤가정 여학생 중 2).

우정이요?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충고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있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거 같아요?] 믿음이나 신뢰감 같은 거(일반가정 남학생 중3).

[친구는] 친하게 매일 같이 논다. 공부에 방해되는데. 시험기간에 방해되죠(빈곤가정 남학생 중3).

[친구]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빈곤가정 여학생 고1).

[우정은?] 비밀 같은 게 없는 것. 비밀이 없고 배려. 공부에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같이 풀어주는 것. 초등학교 때 이야기하기, 숙제 같은 것 시험문제 돕는 것(빈곤가정 남학생 남 중3).

친구들에게 얻을 수 있는 거 일단 털어 놓을 수 있고 제 사생활 문제[도](일반가정 남학생 중3)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얻을 수 없지만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얻는 건?] 편안하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요.선생님 같은 경우엔 부모님한테 약간 안 통하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대차이 이런 거라고 하죠?] 예. 맞아요(일반가정 남학생 중2).

[부모나 교사로부터는 얻을 수 없지만 친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그 또래 간에 공유되는 생각 솔직히 부모님이나 교사한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 그런 거 막 풀어놓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거?(일반가정 여학생 고3).

②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친구영역에서 네트워크 차트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시킨 친구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일반가정 청소년의 50.0%는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 때문이라고 하였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는 18.8%였다. 이러한 응답은 빈곤가정 청소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경우 주요 이유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라서’ 31.3%, ‘오래된 친구라서’ 31.3%,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 25.0%로 신뢰와 함께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표 II-13>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선택한 이유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라서	4	25.0%	1	6.3%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라서	5	31.3%	0	0.0%
오래된 친구라서	5	31.3%	2	12.5%
공부나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친구라서	0	0.0%	2	12.5%
나를 이해해 주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서	0	0.0%	8	50.0%
나를 즐겁게 해 주는 친구라서	1	6.3%	3	18.8%
무응답	1	6.3%	0	0.0%
합계	16	100.0%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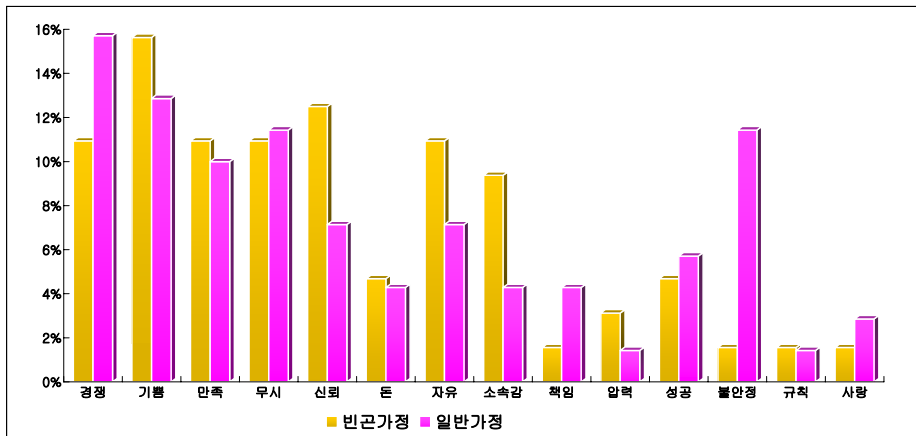
③ 친구영역에 선택한 가치

조사대상 청소년이 네트워크 차트에 위치시킨 친구들 각각에게 부여한 가치 및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쟁’은 일반가정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16%로 빈곤가정 11%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쁨’, ‘신뢰’, ‘자유’, ‘소속감’은 빈곤가정에서 더 높게 나타나 각각 16%, 11%, 11%, 9%로 나타났는데, 일반가정의 경우는 13%, 7%, 7%, 4%이다. 반면, ‘경쟁’과 ‘불안정’은 일반가정에서 높게 나타나 각각 16%, 11%로 빈곤가정의 11%, 2%로 낮게 나타났다.

빈곤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쁨”은 나를 재미있게 해줘서, 옆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일반가정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기쁨은 ‘착한 친구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쁘고 배려하고 양보해 줘서’, ‘힘들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해줘서’ 등의 이유로 선택되었다.

<표 II-14> 친구영역에 선택한 가치

	빈곤가정		일반가정	
	빈도	%	빈도	%
경쟁	7	11%	11	16%
기쁨	10	16%	9	13%
만족	7	11%	7	10%
무시	7	11%	8	11%
신뢰	8	13%	5	7%
돈	3	5%	3	4%
자유	7	11%	5	7%
소속감	6	9%	3	4%
책임	1	2%	3	4%
압력	2	3%	1	1%
성공	3	5%	4	6%
불안정	1	2%	8	11%
규칙	1	2%	1	1%
사랑	1	2%	2	3%
합계	64	100%	70	100%



[그림 II-12] 친구영역에 선택한 가치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경쟁”은 ‘친구들과 공부를 경쟁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서’, ‘성적이 비슷한 친구와 선의의 경쟁을 하니까’, ‘부러운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등의 이유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빈곤가정에서 세 번째로 많이 선택된 경쟁은 ‘그 친구가 나한테 경쟁을 느껴서’, ‘친구라고 해도 대학진학에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선택되었다.

④ 친구와 주로 하는 것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은 대화, 운동, PC방이나 노래방 가기, 공부인 것을 나타냈다. 학업이 부담이 커서 여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대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가정의 경우는 63%, 일반가정에서는 31%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청소년들이 빈곤가정에 비해서 농구 등 운동이나 PC방 가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이랑 한강에서 농구나 야구하거나 독서실에 가요(빈곤가정 남학생 중3).

[(학교에서는) 주로 어디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 반 에어컨 앞에.... 아니면 밖에서는... 밖에서 일단 만나가지고 게임하러 PC방 갔다가 또 심심하면 노래방 갔다가 그러다가 그냥 놀러 돌아다니다가...[아.. 주변?] 네.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주로 어디 많이 가니 너희?] 그냥 막 돌아다니네요(빈곤가정 남학생 고2).

노래방가거나, PC방 가거나, 당구장 가거나(빈곤가정 여학생 고1).

[그러면 친구들하고 주로 같이하는 게 뭐야?] 아직 학교랑 학원에서 밖에 만나지 못해서요. 거의 같이 하는 거는요 수업 듣고 공부 하는 거 밖에 없구요. 그나마 00하곤요 같이 주변에 있는 00백화점 같은 데 가서 영화도 보고 밥도 사먹어 보구 그랬어요(일반가정 여학생 중2).

노래방 가고.. PC방도 가고 영화보고 밥 먹고.. 근데 거의 밥 먹어요.. [같이 거의 밥 먹어요?] 네(일반가정 여학생 고1).

[친구들하고는 보통 같이 하는 활동이 뭐가 있어?] 책도 보고 공부해서 모르는 문제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그래요 (빈곤가정 남학생 고1).

막 그냥 막 수다 떨고요. 그리고 막 게임하고 같이 그냥 같이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요. 농구도 하고 그냥 그렇게 놀아요(빈곤가정 여학생 중2).

⑤ 친구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

친구관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일반가정 청소년 경우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가 69%로 가장 많고 빈곤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즐거움을 준다’, ‘공부에 대한 정보를 준다’,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 등의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표 II-15> 친구관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즐거움을 준다	3	19%	2	13%
믿음, 신뢰를 준다	1	6%	0	0%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	0	0%	11	69%
공부에 대한 정보를 준다	3	19%	0	0%
배려, 협동심, 사교성 등을 배우게 해준다	2	13%	2	13%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	3	19%	0	0%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2	13%	1	6%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2	13%	0	0%
합계	16	100%	16	100%

친구들이 저한테 가족 욕도 하고 그리고 맨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릴 때도 있고, 그걸 00가 본거예요.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말로 좀 하라’고, 저도 ‘말로 좀 하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계속 괴롭히고 하나까... 왜냐하면 00도 저한테 자신감을 얻게 해주고 항상 저한테 위로 같은 것도 잘해주고 항상 친구들이 저를 괴롭힐 때 00가 막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그랬어요...(빈곤가정 남학생 고1).

친구관계를 어렵게 하는 점에 대해서 다수가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친구와의 다툼과 이후의 화해’, ‘친구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솔직히 좋은 영향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은 나까지 계속 경쟁하다 보니까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애는 진짜 괜찮다. 해낼 것 같다’ 이런 친구는 따라하게 되고.. 근데 안 좋은 거는... 계속 그 남자친구 경우는 계속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학교 막 야자도 빠지고 만나고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고.. 그니까 조금 힘든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일반가정 여학생 고1).

<표 II-16> 친구관계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친구와 다툼이 잦은 것이 힘들다	4	25%	3	19%
친구관계 유지 자체가 힘들다	2	13%	5	31%
공부에 방해가 될 때 힘들다	0	0%	2	13%
나를 따돌릴 때 힘들다	0	0%	1	6%
기타(헤어진 남자친구 문제, 용돈부족)	2	13%	0	0%
별로 없다	7	44%	5	31%
합계	16	100%	16	100%

아... 여자친구가요.. 00[여자친구]한테 돈을 조금씩 써 가지구요.. 안 그래도 용돈이 부족한데...

[아.. 재정적인 부분에?] 네... 옷 사거나 신발살 돈도 없어요... 여자 친구 만나서 쓰는 돈 때문에? 네..(빈곤가정 남학생 고2).

여자친구 있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빈곤가정 남학생 중3).

[친구에서 가장 지금 가까이 적은 친구가 여자친구잖아. 왜 가장 가까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적었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오. 그래?] 네 그런데 많이 좋아서. [응 일단은 좋아하는 마음이 큰데 신경이 쓰이지 좋은 신경이]. 신경이 디게 많이 쓰여요. 심하게 쓰여요(일반가정 남학생 고1).

[친구가]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어딜 가든지 가장 믿을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그렇게 심심하지 않고 믿고 그런 거고, 힘든 건 싸우고 나서요. 화해하려고 해도 쉽게 만나지 못하고 좀 있다가 만나고 그러면요 가끔씩 그게 오해가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힘들어요(일반가정 여학생 중2).

음.... 힘들게 하는 건 이케. 제가 옛날에 친구관계가...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애들은 어. ([음]) “제랑 놀지마” 친한 애들한테 가서 “제랑 놀지 말라”고. ([음]) 그럴 때가 좀 힘들 구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그냥. 꾀꾀이 어.. [00가] 저랑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 거 (일반가정 여학생 중3).

⑥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한 친구 만들기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온라인 친구가 없는 경우가 일반가정 56%, 빈곤가정 50%였다. 친구가 있다고 한 경우는 일반가정 청소년이 친구가 많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친구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기도 하고 게임에서 만난 친구를 핸드폰 등으로 연락하여 만나기도 한다. 컴퓨터상에서 네이트온이나 버디버디 메신저로 연락을 한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친구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듯하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이 제공하는 익명성의 편안함을 즐기는 듯하다.

<표 II-17> 온라인 친구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온라인 친구가 많다	1	6%	6	38%
온라인 친구가 있으나 많지는 않다	7	44%	1	6%
온라인 친구가 없다	8	50%	9	56%

오프라인은 그냥 애들한테 그냥 쉽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도... 미안해 하면 되고. 간단하게... 뭐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얘기만 해도... 의존할 수 있고... 서로 남남이니까...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묻히는 얘기니까...(빈곤가정 남학생 중3).

근데 거기서는 얼굴을 안보고 컴퓨터라는 기계로 말하는 거니까 눈치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는[오프라인에서는] 애가 상처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빈곤가정 여학생 중2).

인터넷으로 사귀어도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싸이월드 미니홈피로 일촌 맺고 그러니까...(빈곤가정 여학생 중2).

게임친구 현실친구 밖에서도 만난다(빈곤가정 남학생 중3).

친구라고 할 것 까진 없고요.. 그냥 그 게임에 클랜이라고 있어요... [클랜이요?] 네.. 그 팀인데요... 모르는 사람하고도 같이 게임하고 그래요...[그분이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이?] 별로 영향을 안줘요...(빈곤가정 남학생 고2)

[온라인에서는]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요 막 거짓말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는요 온라인 친구가 더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쁘게 생겼다고 하던가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친구한테 화가 나면요 못 풀잖아요.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속에다 두는 성격인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친구들은 다 모르니까 얘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좋아요 [웃음] 좋아요 (일반가정 여학생 고1).

(3) 학교 영역

① 학교에서 가까운 사람들

네트워크 차트의 학교 영역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청소년 대다수는 교사를 위치시켰다. 소수의 학생은 친구를 학교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일반가정에서 더 높아 31.3%이고 빈곤가정에서는 6.3%이다.

가깝게 생각하는 선생님은 청소년들을 위해 관심을 보여주고 상담을 해주는 분들인데, 일반가정에서 50.0%, 빈곤가정에서 31.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해해주고 믿음을 주는 선생님과 진학 관련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는데 집단별로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일반가정에서는 6.3%인데 빈곤가정에서는 25.0%이고 후자는 일반가정에서는 12.5%인데 빈곤가정에서는 18.8%이다.

<표 II-18> 나와 가장 가까운 학교 내 사람과 선택한 이유 비교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진학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담임선생님	3	18.8%	2	12.5%
수업을 쉽게 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2	12.5%	0	0.0%
관심 가져주시고 상담을 자주해 주시는 선생님	5	31.3%	8	50.0%
이해해주고 믿음을 주시는 선생님	4	25.0%	1	6.3%
자주 때려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	1	6.3%	0	0.0%
도움을 주고 취미생활이 같은 친구	1	6.3%	5	31.3%
합계	16	100.0%	16	100.0%

② 학교영역에 선택한 가치

학교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가치와 의미는 규칙이고 그 다음이 성공, 소속감이다. 학교에서 규칙이 강조되고 학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부여는 일반가정에서 더 높아 23%이고 빈곤가정에서는 19%이다. 학업성취와 상급학교 진학, 그리고 향후 직업성취에 이르는 과정을 학교를 통해서 이룬다고 생각하여 성공이 많이 선택되었다.

<표 II-19> 학교영역에 선택한 가치

	빈곤가정		일반가정	
	빈도	%	빈도	%
규칙	9	19%	10	23%
성공	7	15%	7	16%
소속감	7	15%	5	12%
압력	4	8%	3	7%
신뢰	4	8%	2	5%
자유	4	8%	2	5%
경쟁	1	2%	3	7%
기쁨	2	4%	1	2%
만족	2	4%	2	5%
무시	1	2%	2	5%
책임	2	4%	3	7%
불안정	2	4%	3	7%
사랑	3	6%	0	0%
합계	48	100%	43	100%

③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라고 응답했는데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였는데, 빈곤가정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규칙과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빈곤가정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응답이 나오지 않았다.

<표 II-20>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공부	5	31%	5	31%
규칙	2	13%	3	19%
친구	5	31%	4	25%
미래에 대한 준비	1	6%	1	6%
선생님	0	0%	3	19%
없다	1	6%	0	0%
무응답	2	13%	0	0%
합계	16	100%	16	100%

④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학교생활 만족도는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더 높아서 44%로 나타났지만 빈곤가정의 경우는 13%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학생들이 더 바라는 것은 ‘더 폭넓은 교우관계’이다. ‘야간자율학습 폐지’, ‘좋은 수업분위기’, ‘선생님의 더 많은 관심’은 빈곤가정 청소년의 요구가 많고, ‘교칙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21>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좋은 수업분위기	2	13%	1	6%
야간자율학습 폐지 및 빠른 하교	3	19%	1	6%
차별없는 선생님	1	6%	0	0%
교칙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	0	0%	2	13%
선생님의 더많은 관심	2	13%	1	6%
규칙과 체벌 자체	1	6%	0	0%
더 폭넓은 교우 관계	2	13%	3	19%
학교 시설물 개선 및 복지 프로그램	2	13%	0	0%
나의 성적 향상	1	6%	1	6%
만족해서 더 필요없다	2	13%	7	44%
합계	16	100%	16	100%

학교에서 야자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게 끝나고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제가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가야 되는데 야자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거의 11시거든요. 뭐 할 시간도 없고 가방 챙기자마자 바로 자야하는 상황인데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빈곤가정 남학생 고1).

[학교 선생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니?] 두발 자유. 점점 엄격해져요. 중3 정도 됐으면 잡지 말지.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일반가정 남학생 중3).

⑤ 선생님께서로부터 받는 영향

선생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배움을 주고 책임감과 존경심을 심어준다’고 응답하였다. 선생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해당 과목 학업성취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표 II-22>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영향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선생님 선호에 따라 성적이 오르거나 떨어진다	1	6%	3	19%
배움도 주고 책임감, 존경심을 심어준다	5	31%	4	25%
좋아하는 선생님의 행동을 닮아간다	1	6%	0	0%
원만한 친구관계에 도움을 주었다	0	0%	1	6%
좋아하는 선생님 조언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	1	6%	0	0%
강압적인 선생님 때문에 공부가 싫어졌다	2	13%	0	0%
싫은 선생님 때문에 학교가 다니기 싫다	1	6%	3	19%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6%	4	25%
무응답	4	25%	1	6%
합계	16	100%	16	100%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을 많이 따르게 되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특별히 성적이 잘 오르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일반가정 여학생 중2).

⑥ 학교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쉽고 재미있는 수업방식’과 ‘체벌 자체 및 자율적 분위기’인데, 두 항목 모두 일반가정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해와 칭찬’과 ‘공부·진로에 대한 정보’에 대한 바람도 높는데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와 ‘인간적 대우’에 대한 바람이 빈곤가정 청소년들 사이에는 있지만 일반가정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3> 학교 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공부 및 진로에 대한 정보	3	19%	2	13%
쉽고 재미있는 수업방식	2	13%	4	25%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	2	13%	0	0%
이해와 칭찬	3	19%	3	19%
체벌 자제 및 자율적 분위기	2	13%	4	25%
인간적 대우	2	13%	0	0%
없다	2	13%	3	19%
합계	16	100%	16	100%

수학 가르치는 방식이 좋아요 주위 선생님들 공부를 많이 권하고 이끌어요(빈곤가정 남학생 중3).

아이들이 떠들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선생님 수업방식이 아이들 제압을 못해요. 좋은 수업분위기 원해요(빈곤가정 남학생 중3).

학교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선생님에게서 정보를 원한다. 수업 정보(빈곤가정 남학생 중3).

선생님 너무 막... 규칙 같은 거를 너무 막... 어.... 강요해요....그러니까... 수업시간 5분전에 와서 앉아 있고,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않고..욕하지 않고(빈곤가정 남학생 중3).

[선생님에게 중요한 것]... 좀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근데 그 선생님한테...그것 때문에 그냥 공정한 게 필요한 것 같아서...(빈곤가정 남학생 중3).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은] 안 때리는 것....웬지 좀 뭐 안 외웠다고 안 때리고...그런 게 싫어요.[체벌 외에는 없어?] 저희 한 00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애들한테 나쁜 말씀[욕]을 많이 하세요.... [수업시간에?] 그러면서 욕을 하시는데 그런 게 싫었어요(빈곤가정 여학생 고1).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막 미래에 대해 대화하면은 조언을 주시고 선생님들은 저희한테 많은 걸 해주시니까... 인제 특히 미래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고 저희한테 말해주시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이 들게 만드시는 거 같아요...(일반가정 남학생 중2).

인사 잘 받아주는 선생님은 기분이 좋아져요. 잘 안받아주면 무시된 듯한 느낌이에요(일반가정 남학생 중3).

일방적으로요 선생님들 보면요 일방적으로 저희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분 좋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어요(일반가정 여학생고1).

⑦ 과외나 학원선생님에게 기대하는 것

현재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빈곤가정 청소년은 25%인 반면 일반가정 청소년은 6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빈곤가정 청소년들의 경우는 모두 무료로 배우고 있다.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조사대상 빈곤가정에서는 단 한사람도 과외나 학원을 다닐 수 없다.

학원 다니는 건 있는데요. 그게 돈내고 그런 게 아니라... 00공사에서 거기 주민자녀들 가르쳐 주거나 그러는데요 너무 거기 선생님들이 애들을 막 다루는 듯이 해서 잘 안 가는데...(빈곤가정 여학생 중2).

과외선생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과외선생님이 알려주셔요.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꾸 풀게 해주고 알게끔 해줘요(빈곤가

정 남학생 중3).

제가 학교 수업시간에 못 들었던 거를 보충해주기를 바래요 제가 가끔가다가 제가 막 줄거든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도 다녀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그러면 수업이 생각할 때 학교선생님이랑 학원선생님이나 과외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좀 다른 거 같애?] 음. 학교선생님은요. 어 그냥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거 같아요. 가르치는 건 똑같으니까(일반가정 여학생 고1).

[학원 선생님에게 어떤 기대를 해?] 안 때렸으면 좋겠다. 때리는 선생님이 한명 있어요. 너무 많이 맞으면 욕이 나와요.[공부는 잘 가르쳐 주셔?] 네...안 때려도 할 수 있는데...(일반가정 남학생 중3).

<표 II-24>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지 여부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네	4	25%	11	69%
아니오	12	75%	5	31%

(4) 기타 영역

① 나와 가장 가까운 기타영역 내 사람들

청소년들이 기타영역에 배치한 사람들은 동네친구, 교회선생님, 선배, 친척, 과외선생님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청소년들은 ‘제일 친한 동네친구’를 선택한 사람이 37.5%인 반면 빈곤가정 청소년은 ‘동네 친구’ 25.0%, ‘교회선생님’ 25%로 나타났다. 기타영역에 선배를 선택한 청소년의 비율은 두 집단에서 동일하지만 친척의 경우는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25> 나와 가장 가까운 기타 내 사람과 선택한 이유 비교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제일 친한 동네 친구	4	25.0%	6	37.5%
관심 가져주고 조언해 주는 교회 선생님	4	25.0%	0	0.0%
공부를 가르쳐주는 과외선생님	1	6.3%	3	18.8%
나를 이해해주는 선배	3	18.8%	3	18.8%
친근한 친척	1	6.3%	4	25.0%
무응답	3	18.8%	0	0.0%
합계	16	100.0%	16	100.0%

② 기타영역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

청소년들은 기타영역에서 사랑, 책임, 압력과 관련된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다.

빈곤가정 청소년들은 경쟁과 불안정이라는 의미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한 반면 일반가정 청소년들은 기타영역과 관련하여 기쁨과 돈의 의미 부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다.

<표 II-26> 기타영역에 선택한 가치

	빈곤가정		일반가정	
	빈도	%	빈도	%
사랑	5	12.2%	6	13%
책임	5	12.2%	5	11%
압력	4	9.8%	5	11%
경쟁	4	9.8%	2	4%
불안정	4	9.8%	2	4%
기쁨	2	4.9%	5	11%
돈	3	7.3%	5	11%
만족	2	4.9%	3	6%
무시	3	7.3%	2	4%
규칙	1	2.4%	3	6%
자유	2	4.9%	3	6%
성공	3	7.3%	1	2%
소속감	2	4.9%	3	6%
신뢰	1	2.4%	2	4%
합계	41	100.0%	47	100%

[교회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가장 넓어.(웃음) 이 영역이 이 세 개에 비해서 중요한 이유는?] 내 : 음.. 나머지 영역보다도 음.. 교회에서... 얻은 거 많은 거 같아요. [교회서 얻는 게 많은 거 같아?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거 같애?] 어. (침묵). 나머지 영역에선 그렇게. 음... 교회 보다는요. 제 마음을 털어놔도. 막. 이렇게. 교회에서는 털어놔도 편한데. 나머지 영역에선 조금 아. 내가 고민거리를 얘기 하면 다른 영역에선 혹시라도 남한테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보다는 나머지 영역들이 교회보다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요(일반가정 여학생 중3).

③ 기타영역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

기타영역에 위치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는 즐거움, 인성교육, 격

려하고 지탱해주는 힘을 많이 꼽았다. 집단별로는 일반가정 청소년이 인성교육을 높게 평가하고 빈곤가정에서는 ‘격려하고 지탱해주는 힘’을 언급했다.

<표 II-27> 기타영역 내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

	빈곤가정		일반가정	
	명수	%	명수	%
즐거움	5	31.3%	6	37.5%
인성교육	2	12.5%	5	31.3%
격려하고 지탱해 주는 힘	4	25.0%	2	12.5%
대학 및 진로에 도움	1	6.3%	2	12.5%
종교	0	0.0%	1	6.3%
무응답	4	25.0%	0	0.0%
합계	16	100.0%	16	100.0%

5.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회화 과정에 계층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가정과 빈곤가정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차트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빈곤가정 청소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고, 일반가정 청소년은 자녀교육과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중산층에 속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은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가정 청소년의 경우 양쪽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보다 한부모 가족이나,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나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데는 집단별 차이가 없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어머니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기에 이들을 책임과 연결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와의 대화는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부분 어머니가 주요 대화의 상대자였다. 계층을 넘어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와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점을 보였다. 청소년 자녀가 외출하였을 때 부모에게 소재를 알리거나 부모가 소재를 아는 것과 관련하여 두 집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가정에 비해서 빈곤가정에서 자녀의 외출소재 파악이나 자녀가 소재를 알리는 것이 적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가정내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체로 아버지였다. 이러한 폭력의 경향은 일반가정과 빈곤가정 양쪽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는데, 빈곤가정 청소년 일부는 심각한 사례를 밝히고 있다. 폭력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의 규율준수를 위해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제된 체벌도 있지만 감정에 치우친 비교육적 폭력과 욕설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언급하고 있었다. 부모의 지도가 취약한 빈곤가정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은 선생님의 요주의 대상이 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이해해주고, 격려

해주고, 꿈을 키워주는 교사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편파적이고, 비인격적인 교사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 조사대상 학생 중 한 명은 친구들과로부터 구타를 당하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다수가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내성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교실이나 학교에서 급우가 폭력을 당하거나 당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과 학교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해, 학원을 ‘제2의학교’로 표현하기도 했다. 공교육이 약화된 한국의 현실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비율은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빈곤가정에서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은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학원을 다니고 문제집을 사고 싶어도 가정형편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곤가정 청소년을 통해 언급되었다. 방과후 보충교육을 위한 자원이 제한된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은 친구나 교사로부터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보충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 혹은 조부모의 학습지원이 부실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일부 빈곤가정 청소년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보호자들이 공부를 더 시키기를 바랐다.

청소년 대부분이 인터넷을 검색, 학습, 게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고 했다. 인터넷 상에서 만난 친구를 핸드폰이나 메신저로 연락하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친구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일상생활에서 친구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핸드폰을 갖지 않은 청소년은 일반가정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빈곤가정에는 4-5명이 있었다.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인지 청소년들의 여가 형태는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화, PC방, 노래방, 운동하러, 함께 식사하러가 청소년들이 여가를 보내는 주요방식이었다. 이성친구를 사귀는 청소년은 중학생 중에는 거의 없고 고등학생 중에 더 많았다. 빈곤가정 청소년, 특히

남학생은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주요 원인은 데이
트 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기타 영역의 경우를 보면 일반가정의 경우는 친
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빈곤가정의 경우 교회의 비중이
더 크다. 가족의 부족한 지지와 자원을 교회를 통해서 보완하는 듯하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일반가정과 빈곤과정 청소년 사회화 과정 비교 분
석결과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친구사이에서 폭력 경험이 언급되고 있다. 둘째,
빈곤가정 청소년의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학교의 방과후 교실이나 개인지
도를 통해서 경제적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여 계층
별 학업성취의 차이를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빈곤계층 청소년의 경우 부
모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미약하다.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의 생활과 학습을 지도할 지역사회 멘토가 요구된다. 마지막
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나누는데 있어서 아버지들은 많은 문
제점을 갖고 있다. 자녀와 원활하게 대화하는 방식을 아버지에게 교육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길현(2003). 청소년 여가활동 참여정도와 여가제약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0권 1호. 한국사회체육학회,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연구, 제15권 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경근·장희진(2005). 자녀교육을 위해 거주지 이동을 선택한 가족의 특성, 한국교육학연구, 제11권 2호. 안암교육학회.
- 김민정(2003). 청소년 문화복지 실태 및 만족도와 요구분석 연구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 청소년학연구, 제10권 1호. 한국청소년학회,
- 김혜영(1996). 한국가족문화의 계급별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06). 한국가족문화의 재고, 보건복지 포럼 통권 1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주·이병훈(2006).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 - 성차이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66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의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김은정·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II: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방란·김성식(2007). 계층간 교육격차의 양상. 교육비평, 제22권. 교육비평사,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권 4호. 한국사회학회,
- 변보기(2005). 청소년 여가실태 및 여가장애수준에 관한 연구 - 대전시 고교생을 중심으로 -,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0권 1호. 한독교육학회,
- 서우석(2007).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 사회경제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승영(2007). “한국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사회화”,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우환·김경식(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제53권 1호.
- 유한구(2007).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0권

2호.

- 장미혜(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 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제36집 4호.
- 장혜경, 김혜영 외(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함인희(2007). “사회화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사 과정 :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석규(2004). “사회화조건과 사회화동질집단 - 사회구조적 관점의 사회화연구에 대한 새로운 고찰 - ”, 『교육사회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제14권 3호.
- Bowles, Samuel and Herbert Gintis(1972). "I.Q. in the U.S. Class Structure", Social Policy 3.
- De Graaf, Nan Dirk, Paul M. De Graaf, and Gerbert Kraaykamp(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
- Haveman, Robert, G. Sandefur, B. Wolfe, and A. Voyer(2004). “Trends in children's attainments and their Determinants as Family Income Inequality Has Increased”, 149-188, Social Inequality, edited by K. M. Neckerma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Lee, Mijeong(1998).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Teachman, Jay D(1987). "Family Background, Educational Resource, and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Ⅲ. 청소년의 교우관계와 사회화 : 청소년 생활 관련 퍼스널 인터뷰-일본

1. 연구 목적
2. 조사 방법과 대상
3. 아이의 '이야기'
4. 요약

III. 청소년의 교우관계와 사회화 : 청소년 생활 관련 퍼스널 인터뷰-일본⁸⁾

1. 연구 목적

본 조사는 일본청소년의 사회화에 대하여 저소득계층 가족의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의 시점에서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화 환경을 사회화 에이전트와 청소년의 네트워크로서 다룬다. 이 사회화 네트워크가 청소년이 속한 가족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갖는가를 청소년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인터뷰조사는 계량조사로는 알 수 없는 보다 상세한 청소년 사회화 환경을 가설로서 제시할 수 있다. 또 본 조사는 저소득계층에 주목함으로써 현대 일본의 격차문제와 관련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일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서의 계층적 차이의 비교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친구관계의 형성은 청소년의 사회화나 진로형성, 직업관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왔다. 1990년대 이후부터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의 퍼스널 미디어의 보급에 따라 친구관계의 양상이 변용되며, 주요 사회조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직접적인 교제를 피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희박화’ 보다는 ‘전반적인 친구관계가 희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장면이나 친밀성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눌 수 있다(福重2006:144)’고 하는 선택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지 아사노(2008)에 의하면 젊은 층의 친구관계는 세상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농밀화(濃密化)되고 있는 한편, 친밀성의 농밀화 자체는 전통적인 공공성의 세태와 세트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사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친구나 동료에의 충실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8) 본 연구는 오자와 마사유키(게이오대학교 대학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근거로 하여 젊은이의 커뮤니케이션에의 의욕이 높아지고, 관계를 만드는 스킬이 세련되어 가는 농밀화가 깊어지면서도 농밀화가 깊어지는 만큼 관계에 대한 섬세함이나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자연히 생겨나, 젊은이들은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나친 「분위기 파악」⁷³

압력이나 성격을 구분하는 등의 전략을 씌음으로서 보기좋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본 조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행한다. 조사에서는 친구나 가족, 학교 등의 사회화의 에이전트 뿐 아니라 다른 친구와의 관계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등에도 주목하여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에 있어서의 친구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경향으로부터 계층적인 격차가 생기는 문화적 배경을 검토한다.

2. 조사 방법과 대상

본 조사에서는 수도권(동격·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에 거주하는 중학생·고교생 10명(중학교1학년부터 고교3학년까지)을 조사대상으로 청취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중학생 5명(남자2명, 여자3명), 고교생 5명(남자3명, 여자2명)의 합계 10명이었다.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①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다. 돈 때문에 고생을 하며 아이를 기르고 있다」고 본 사람(혹은 주위가 그렇게 보고 있다) ② 연봉이 적다(가능하면 300만엔 이하) ③ 다음 중 두 가지에 해당한다(「자녀가 많다」 「공영주택에 거주. 또는 저층 아파트에 거주」 「한쪽부모 가정(가능하면 모자가정으로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 「빚으로 고생하고 있다」) 등의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조사전문기관에 대상자의 리쿠르트를 의뢰한 뒤 인터뷰를 행하였다. 인터뷰의 실시에는 연구회의 멤버의 누군가가 동행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파견)와 대상자, 그리고 연구회 멤버 세 사람에게 의해 행해졌다.

청취조사는 9월~10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친구

(친한 친구를 포함)관계도(콘보이)를 쓰게 하고, 「친구」「가족」「학교」「그 외」의 각 파트로 나누어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다. 관계도의 작성과 동시에 대상자에게는 13장의 표시를 붙여(「사랑」「자유」「책임」「위험」등) 나타내고, 각 파트에 맞는 표시를 붙이게 하여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동안 표시를 붙인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 구체적으로 질의 응답한 내용으로는 「(단계별로 본)친구와의 관계」「친구와 알게 된 경위」「친구와 지내는 방법」「그룹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친구로부터 받는 영향」「부모나 교사에 의한 친구관계에의 간섭」「경우에 따른 친구의 정의에 대한 차이」「친구의 학력」「휴대폰이나 메일의 의의(사용용도, 하루 당 횟수, 구체적인 상대의 정보)」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에는 저소득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력이나 취업·직업관, 학교·생활에의 충실함 등 계층격차에 관련된 항목을 설정하였다.

조사 시에는 청취한 「이야기」의 비교검토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인터뷰 가이드를 이용한 반구조화 인터뷰 수법을 채용하였다. 또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의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였다. 조사시간은 대략 75분 정도였다.

<표 III-1> 조사대상자

A 군	고교1학년 · 사이타마	F 군	중학1학년 · 도쿄
B 군	고교2학년 · 도쿄	G 군	중학3학년 · 도쿄
C 군	고교2학년 · 가나가와	H 양	중학3학년 · 가나가와
D 양	고교3학년 · 도쿄	I 양	중학3학년 · 치바
E 양	고교2학년 · 도쿄	J 양	중학3학년 · 도쿄

3. 청소년의 ‘이야기’

1) 친구관계

친구관계에 있어서 특징의 하나는 친한 친구와 친구의 차이에 대해서, 친구에게 얼마나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였다. 「직장 사람이라는 느낌」(A군) 「친한 친구는 뭐든지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친구는 보통의 대화만 할 수 있다」(D상) 「본심을 말할 수 있으며,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H상), 라고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취미나 성격 등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도 없으며,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등 친밀성의 정도가 친한 친구로서의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야기의 경향을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 등의 친구보다도 초등학교 시절이나 현재의 같은 반 동급생, 고교생의 경우는 같은 반의 친구나 동아리나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보다도 초·중학교 시절의 어릴 적 친구나 동급생을 친한 친구라고 고르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지난번과 다른 점은, 이번 대상자는 취미나 지향보다도 성격이나 이야기 나누기 쉬운 점 등의 인품이 친한 친구로서 결정되는 포인트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점이다. 또, 반수 이상의 대상자에게서 볼 수 있었던 특징으로서 진학이나 학군에 의해 떨어지게 되어도 친밀감을 유지한 채 친한 친구로서의 교제가 계속되는 경향은 新谷(2002)에 의한 치바 현내의 스트리트 댄서인 젊은이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서 볼 수 있으며, 「고장에서 맺어진 관계에 대한 지향」이 저소득층 청소년에 있어서 특징의 하나로서 공유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을 서로 가르쳐 주거나, 그런 때죠. . . . 학원 친구는 쓰지 않았어요」(G군)

「여기(반 친구)와 여기(미술부 친구)는 꽤 차이가 나요. 여기(반 친구)는 본심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지만, 이 쪽(미술부 친구)은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진심은 말할 수 없어요. 역시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H상)

「역시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는 점이지요. 오래 함께 있어서 즐거우면 그건 그것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실패하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기 쉬운 것하고,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느낌이랄까요」(A군)

「아무 거리낌 없이 뭐든지 말할 수 있다던가... 역시 이 그룹(반 친구)이 되면 조금은 조심하지만, 여기(중학시절의 동급생 6명)에 들어가면 아무 거리낌 없이...」(C군)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할까, 역시 사귀다보면 거리를 두거나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줄곧 사귄 수 있는 것」(D상)

「친한 친구는 뭐든지 말할 수 있고, 친구는 보통의 대화만 한다고 하는」(E상)

다음으로 본인의 친구관계에서 역할에 대하여 중·고교 공통된 특징으로서 친구관계가 특정의 그룹에만 의존하는 內閉型 그룹이라면 「명청·수동·당하는 쪽」「공격·추궁」을 가리지 않고 주위의 분위기나 장면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며, 친구와의 교류가 많고 넓은 교제를 하고 있는 擴大型이라면 리더가 되는 것을 피하고 주위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띄어 올리는 「공격·추궁」형의 역할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단지 淺野(2008)가 지적하는 것 같은 장소나 만나는 친구에 따라서 인격이나 성격을 구분하는 「상황지향」에 대해서는 별로 볼 수 없었다. 어느 대상자도 친구관계와 교제 시에는 친밀성의 정도를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격이나 인격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접하는 것 같았다.

「일단 뒤로 빼고 있어요. 너무 나서는 건 싫어요. 옆에서 끼어드는 것도 싫어서 그냥 거기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때때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정도」(A군)

「나도 적당히 합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제 입으로 말하는 건 뭐하지만 운동신경은 M과 같은 정도입니다.」(B군)

「리더는 아니에요. 정말 서포트 역할 같은 느낌입니다. 자주 친구가 못 다한 일 등을 하지요.」(F군)

「저는 공격·추궁형이라 생각하지만, 주위에서 당하는 쪽이라고 해요. 좀 납득이 안가요.」(H상)

「리더 역도 아니고 분위기를 살리는 편도 아니지만 내가 되고 싶은 존재는, 없어졌을 때 얼마나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었고,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되어질 존재가 되고 싶어요. 공기 같은 느낌. 없어졌을 때 소중함을 알게 되는.」(I상)

친구로부터의 영향에 대해서는 중고생 대상자에게서 공통으로 패션이나 유행 등의 외견상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격이나 성적 등의 실천면에 관해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패턴을 볼 수 있었다. 이 사례에 있어서는 그 배경에는 대다수의 저소득계층의 부모에게는 마이페이스인 사람이 많으며, 아이도 똑같이 주위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영향은 그다지 받지 않아요. 특히 M과 I(친한 친구의 이름)는 자주 권해 오기는 해요.‘이거 재미있어’라든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귀찮으니까 싫어요」(C군)

「음, 거의 없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점이 닮은 건 기쁘다고 생각한 적은 있으며, 공부에서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같으면 기뻐요」(F군)

「그렇게 영향을 받는 친구는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H상)

「역시 이 둘이 뭔가 있으면 기뻐지거나 가라앉거나 좌우 되죠」(I상)

친구관계의 콘보이도에 관해서 검토하면 기본적으로는 「친구」(일부에서 「그 외의 사람」이 이전의 학생시절의 친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친구」에 포함)가 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지 D상이나 F군 등과 같이 「가족」쪽이 콘보이도의 비중이 크거나 「친구」와 「가족」의 비중이 팽팽한

경우가 많으며, 「상담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일 수 있다」 등의 친밀성이 높은 관계를 「친구」 「가족」 중 어느 쪽으로 쌓을 수 있을지가 비중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 「친구」의 키워드에 관해서는 「만족」 「자유」 「놀이」 「신뢰」 등 심리적 안정을 나타내는 라벨을 붙이는 아이도 많았으며, 「가족」의 키워드도 이와 같은 라벨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사회화의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친구」 「가족」은 쌍방향 모두 만나는 시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불가결하고 동시에 심리적 서포트를 해 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친구 네트워크의 관계에 관해서는 모든 대상자가 10명 전후의 「친구」의 이름을 기입했고, 모두 중심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기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참여자는 모두 폭넓게 교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배경에는 「이 아이들이 없으면 즐겁지 않다고 할까, 필요한 사람이에요」(B군), 「모두 함께 있어서 즐겁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에요」(D상), 「시시한 소리를 하지만, 꽤 사이가 좋아서 함께 그룹을 만들고 있다」(H상) 등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교내·외의 그룹과 관계없이 친구 그룹에 소속해 있는 것이 당연하며, 친구그룹에 속해 있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친밀성을 얻을 수 있음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로 거론한 수에 관해서는 작년 인터뷰 조사의 사례와 그다지 다르지 않지만, 작년의 경우는 같은 성적·동아리 활동·학원에 속해 있었기 때문인지 서로를 격려하는 경쟁관계와 사이좋게 사귀는 친밀감이 공존해 있었던 것에 비해, 올해의 경우는 성적이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도 각기 다른데다가 친구 간에 경쟁관계는 거의 없고 친구 그룹에 속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듯했다. 따라서 친구 그룹의 특성은 특정한 그룹으로 굳어진 內閉型과, 학교 안팎과는 상관없이 폭넓게 사귀는 것을 중시하는 擴大型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친구의 수는 타입의 차이나 작년 조사 시에 있어서의 대상자의 친구 수와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친구그룹에 속하는 가치가 친구 네트워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공부 · 학력

학생들의 이야기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 테스트 기간 중이나 수험생 기간의 아이라도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볼 수 없는 아이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작년의 이 경우는 비교적, 일상생활에 있어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테스트나 성적으로 경쟁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상자가 저소득 계층인 까닭인지 학교에서도 거의 수업을 듣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도 성적이 좋은 아이가 거의 없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징은 채곡(2001)등의 학력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부모의 가정환경이 아이의 취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의욕 격차가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확인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친구의 성적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조사 참여자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성적이 좋은 아이와도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친구의 성적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신경 쓰는 것이 싫다고 느끼고 있는 면이 있었다. 청소년의 이야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거나, 학원이나 과외에 의지하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하는 아이가 많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

세 번째, 저소득층의 가정인 탓인지 대부분 자신의 공부방이 없는 아이들이 많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그다지 몸에 배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특징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회자로부터 공부의 방법이나 공부시간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척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학교나 식당 등에서 약간의 시간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로서 자신이 공부하는 스페이스가 없다거나 형제나 부모가 공부를 방해해서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 아이가 많았다.

「응, 저절로 귀로 들려오니까. 낮은 레벨의 2배정도인 점수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는 2배정도 낮은 점수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분위기로, 바보 아냐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A군)

「글쎄요. 신경 쓰입니다. 나와 비슷하다는 경쟁심이 있다고 할까」(D상)

「그건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나 이외의 친구 모두 머리가 좋아 공부이야기에 킬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어요.」(F상)

「좋은지 어떻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상대도 신경 쓰지 않고, 이쪽도 신경 쓰지 않으므로 물어오면 대답하지만 그 이외에는 내가 간섭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성적관계는」(I상)

「그건 좀 신경 쓰이지만 지금은 내 스스로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제 성적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 친구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J상)

3) 가정

아이들 대부분이 한 쪽 부모 혹은 빈곤 가게에서 자라고 부모가 일하러 나가 있으므로 부모는 진학이나 성적 등에는 간섭하지만, 비교적 생활면에서 간섭하는 경향은 볼 수 없었다. 이야기에서도 부모는 매일 노동으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고, 부모가 「제 멋대로」 「화가 나 폭발」 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많은 것도 특징이지만, 그 한편 부모가 일로 인해 피곤해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향도 보였다. 가족관계를 비판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고, 많은 부모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담 상대 혹은 「친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수입이 적은 중에서도 「자신을 생각하며 키워주고 있다」 「학교에 다니게 해 준다」는 감사의 마음이 그 근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근거로 대상자는 콘보이도의 작성에 있어서 부모를 중앙과 가까운 위치

에 놓거나, 그룹 나누기에서도 가정 쪽이 친구보다 많은가 친구에 가까운 비중을 두는 아이들이 많은 점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방치. 학력이 아무리 낮아도 상식만 지니고 있다면 된다. 나머지는 모두 방치라고 할 정도. 어머니는 정체불명의 것은 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아버지처럼 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 학력을 키우고 상식은 물론 있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A군)

「어머니는 나의 센스를 알고 있고 요리도 잘하는 좋은 어머니인데, 가끔 존재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고교생은 어머니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우리 집은 밖에서 보면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싫은 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기도 하지만.」(B상)

「기본적으로는 방목이지만 참견할 때도 있어요. 갑자기 끼어든다고 할까.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고 있을 때는 특별히 말이 없지만, 내가 그걸 하려고 결심하면 ‘그래도 되겠냐’는 식으로 끼어들어요」(D상)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상냥해요. 화를 내면 좀 무섭지만, 강해보이면 서도 약한 사람이라 건방지게 말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의논 상대가 되어 줄 때도 있고, 집 안 일을 의논해 오기도 해요」(H상)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뉘두리 하거나, 어머니에게도 친구에 관한 일은 말하는 편인데, 싫어하는 애가 나를 힐끔힐끔 보았다는 이야기라든가, 싫은 일이 있었을 때도 어머니에게 뉘두리해요」(R군)

형제나 조부모에게는 강한 애정이나 유대를 느끼고 있다. 형제와는 사이가 좋은 경우가 많으며, 고교생 이상이 되면 거의 이야기하지 않게 되지만, 「신경 써준다」 「의논 상대가 되어준다」고 하는 신뢰관계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또 조부모는 부모 대신으로 마음의 의지가 되어 주거나 가까운 여행지에 데려가 주거나 한다. 또 이번 조사의 독자적인 특징으로서 가까운 이

웃의 연장자, 부모의 친구, 숙부나 숙모 등 동거하고 있는 친족 이외의 사람들도 콘보이도에 올려져 있다. 부모가 바빠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에도 도와주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가족이나 친구와는 다른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동거 친족 이외의 사람들(콘보이에서 말하자면 「그 밖」이 아닌 「가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과 부모와는 옛날부터 교제가 있었고, 그 흐름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이나 돌보기를 위탁해서 중년이후가 된 지금에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는) 아버지 밖에 없어요. 애의 아버지는 모두에 관해서 이해해주므로 놀고 싶은데도 없니 라고 할 정도로 가족끼리 사이가 좋다고 할까, 중학교 때부터 사이가 좋아요. 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 M집이라고 하면 어머니도 안심하시고」(B군)

「(형과는)사이가 좋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 미묘한 관계예요.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유로워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살아갈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C군)

「집에 없는 일이 많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놀아 주는 친절한 형이예요. 고민하고 있을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고, 친구에게 이지메를 당했다거나 따돌림을 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가르쳐 줘요.」(F군)

「자신이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빼먹고 놀기만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하라고 하는 등, 테이블 받침에 다리를 얹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다리 올리지 말라고 말을 들었었지만, 다리 올리지 말라는 등, 어머니도 하지 않는 말을 해요. 욕실 전기를 켜 놓으면 ‘너 잘 끄라고 했지’라고 말하기도 하고」(H상)

마지막으로 교육방침에 관해서는 다른 표에 있는 이야기에 있듯이 부모는 조사 참여자에 대해서 진학이나 진로에 관해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단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사회인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 등 어른이 되었을 때 일상생활에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기술은 지녀야 한다는 것과, 일반적인 진학 루트(중학교-고교-대학·전문학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곤한 생활로 접하는 시간이 적은 중에서도 「보통」의 어른으로서 성장하기를 고려해서 양육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부모의 교육기대가 적은 점이 청소년의 진로나 장래전망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집안일을 돕거나 형제를 돌보는 등 가정의 잡일에 관여하고 있는 아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면서 장래의 진로를 그리는 한편, 가정생활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는 가족의 청소년과 부모와 대화하는 기회가 적은 청소년은 장래를 생각지 않고, 「고교에 진학해서 부터」와 같이 구체적인 진로를 생각할 기회를 나중에 돌리는 경향이 있다. 즉, 부모의 교육방침은 청소년의 진로나 직업관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진로나 장래 갖고 싶은 직업을 생각하는지 어떤지는 가정생활에 관여하거나 가족이나 형제 등과 대화를 하는 등, 가족의 서포트나 학교의 선생으로부터의 어드바이스 하에서 충분히 고려할 기회가 있는지 어떤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A군: 대강 학력은 있고 물론 상식은 가져야 한다.

B군: 지금은 놀아 두어라. 셀러리맨이 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C군: 간다면 취직이나 전문학교, 자유롭게 하기를.

D상: 학력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할까, 내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

E상: 「공부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하지만, 그다지 질리게는 말하지 않는다.

F군: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점수가 나쁘면 공부시킨다.

G군: 부모입장에서는 도립고교에 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없다.

H상: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어른이 되고 싶다.

I상: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해라.

J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지만 보통보다는 좋은 고교에 가거라.

4) 학교 · 교사와의 관계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선생님과 관계는 희박하고 선생님의 이름(특히 현재의 담임선생님)이 콘보이도에는 거의 올라 있지 않다. 교과담임을 비롯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말을 걸어오는 경우는 많은 것 같은데, 좋아하지

도 싫어하지도 않는 느낌이었다. 작년의 「선생님과 친구처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겁다」고 하는 아이가 많았던 점과 다른 특징이다. 교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수업 진행 과정이나 교사로부터의 간접, 학교에서의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에 있어서 충실감을 나누는 지표가 되어 있으며, 반에서의 친구관계나 학교와의 공합관계(교육방침이나 반 배정, 수업의 진도 등)가 성실함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청소년이 지각이나 결석이 많은 태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도, 여기서는 학교를 싫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反學校」라고 하기보다도 학교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의미의 「脫學校」지향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싫은 것은 아닌데 가는 것이 귀찮아요. (교사와는)친근한 느낌이에요.」(D상)

「학교는 좋아해요. 친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점이. (담임선생님은)너무 싫어요. 상냥할 때는 꼭 상냥하지만, 관계없는 상황에서 무척 화를 내서 싫어요」(E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업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하고 있을 때도 멍하게 흘러 듣거나 이해가 안가서 묻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F군)

「좋아해요. 수업은 귀찮고 때때로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친구를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수업이 지루하고 귀찮다고 하는 그런 이유니까. 그래도 잘 가는 건 그런 이유이고,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것은 싫으니까 그래서 가요.」(I상)

이번 조사 결과의 특징으로서 보건실 선생님, 카운슬러의 이름, 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시절의 은사를 「학교」의 콘보이도에 올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 특이하다. 실제로 수업에 나오지 않고 보건실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시절의 담임에게 신세를 지고, 지금도 동경의 대상으로서 파악하고 있었다(그 중에는 예전의 모교에 가기도 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 배경에는 「脫학교」지향의 연장선이라고 파

악하기보다도 현재는 보건실 등교라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교사나 학습의 싸움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있을 곳」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단 수업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수업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담임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건실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서 ‘이제 싫다’ ‘학교가 싫다’고 하면, ‘왜?’냐고 물으면서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라면서 ‘그럼 한 시간 쉬었다 가렴’ 이라고 말해요. 보건실은 피난처예요」(A군)

「나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놀러가는 것을 좋아하니까, 놀러가서 이 선생님과 이야기 하고, 맘대로 직원실에 가서 차나 과자를 먹으면서 이 선생님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어요. ‘선생님 이제 갈래요’ 하면, ‘또 와라’ 하는 식으로 말해요. 선생님이면서 웬지 친구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줘요」(B군)

학생 지도나 교칙에 관해서는 학습지도요령의 변경에 따라 「지도에서 지원으로」의 교육방침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탓인지, 학교의 교사는 단지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도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탄력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단, 청소년의 이야기에서는 스웨터의 색상이나 지정된 스웨터의 착용 등, 이상한 부분에서 교칙이 엄한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교칙의 엄격함과 학교생활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을 빼고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피어스하고 있으면 빼앗겨요.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하기도 하고. 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연하지요」(A군)

「이 차림이 이미 교복을 불량하게 입은 모습이에요. 보통 모두 가디건 입고, 자켓을 입지 않고 등교해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학교의 3분의 2 정도 자켓을 입지 않아요. ‘자켓이라니’ 라고 생각하는 건 여학생 쪽이 많아요. 지금 스커트 안에 긴 바지를 입고 있어요. 추워서 이겠지만. 특별히 (스커트 길이가) 짧은 애는 없어요」(C군)

「학교에서도 물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내지만, 선생님에게 말할 때의 경어나 태도에 대한 물은 지키면서 접하고 있어요」(F군)

「엄해요. 스웨터 복장으로 복도를 걸으면 안 된다거나. 스커트 길이를 신경 써야 한다든가. 위머가 금지. 여학생이 무릎이 춥다고 하면 ‘스커트를 길게 입으면 되잖아’라고 선생님이 말해요」(H상)

5) 인터넷 · 휴대전화

본 조사에서는 작년의 조사와 같이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단지, 전반적으로는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보다는 휴대전화에의 의존도는 낮은 것 같았다. 메일로 하루 100통 이상 답장을 보낸다는 예는 거의 없고, 전화나 직접 이야기 하는 편이 좋다고 느끼고 있다는 발언이 많았다. 과거에 메일이나 「프로필(프로프)」로 상처입은 경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아이는 적었고, 거의가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인도 사용하게 되었다는 케이스가 많았다.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의 보급으로 친구관계가 희박해 진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인 중고교생들은 작년과 같이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의 메일은 친구관계의 유지에 활용하고, 용건이나 약속은 전화나 직접 만나서 끝내는 경향이다.

「아마 많은 때는 300통 정도 해요. 그쪽이 빠르고 편하거든요」(B군)

「메일이라고 해도 심플한 대화 같아요. ‘오늘 학교 몇 시에 끝나?’ 라든가. 할 때는 연속 해서 10번 정도 하지만, 하지 않을 때는 2~3번으로 끝나요」(E상)

「메일은 이 주변(학교 사람들)하고는 하지 않아요. 내용은 꽤 달라

요. 이쪽(친한 친구)에는 본심으로 접하고 있다는 느낌. 이쪽(미술부 애들)은 약간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루에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아요. 한 애에 10통 정도 주고받고. 그 보다는 짧을 때도 있어요. 개인용 컴퓨터는 없어요」(N상)

6) 금전감각

이번 대상자인 중고생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용돈은 가게가 빈곤한 영향으로 본인이 많이 받는 것을 피하든가, 혹은 부모의 방침에 따라 일반적인 중고생보다도 낮게 잡혀있다. 특히 고교생이 되면 자신의 용돈이나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장래의 교육비에 충당키 위하여 일 주일에 몇 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는 「(친척 숙모·이모·고모 등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니 수요일만 오거라’ 라는 식으로 일을 시켜 주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C군)와 같은 경우처럼 고용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친구관계나 학교, 동아리 등과 같이 아르바이트 이외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횟수를 늘려 많이 벌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용돈을 넉넉히 받지 못했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버는 경향은 일반적인 중고생의 라이프스타일 보다는 가게가 어려울 경우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모가 친구와의 교제를 고려해서 필요하면 돈을 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게가 어렵다는 상황이 청소년의 친구 교제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용돈의 보조 등에 의해 일반적인 중고생과 같이 생활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친구와 노는 것에 관해서도 「극장에 가거나, 게임센터에서 사진을 함께 찍거나, 가라오케에 가기도 하며,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거나」(H상)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것은) 디즈니랜드에 가거나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 내일도 셋이서 디즈니랜드에 가요」(E상) 등의 이야기에 있듯이 다른 중고생과 같이 돈을 쓰거나 놀기도 하는 한편, 「라라포

(대형상업시설)까지 가서 사지 않고 돌면서 보기만 하는 일도 많지만, 결국 그런 것도 좋아해요」(I상) 「다케시타도오리 등에서 술래잡기 하거나, 돈을 쓰지 않는 놀이로」(B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다지 돈이 들지 않는 놀이를 즐기는 아이도 있다. 그래도 돈을 쓰지 않는 것=빈곤하다는 라벨을 붙이는 것이 아닌 친구끼리 머리를 써서 게임을 만들어 냈으로써 게임을 창작해내는 것이 친구관계의 연대감을 쌓는 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친구관계에 있어서 돈을 쓰는 놀이/쓰지 않는 놀이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된다.

7) 장래의 진로

작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중간정도나 부유층의 아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기대나 자신의 학업성적, 진학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대학 진학 이후의 구체적인 라이프코스를 전망하고 있는 중고생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갖고 싶은 직업은 있어도 그 직업을 갖는 것을 중요시하는 자세는 부족하고, 거의 모든 청소년은 상급학교의 진학 이후에 생각하거나, 실제로 진로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어서 결정한다고 회답한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또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장래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을 단념하는 한편, 장학금이나 교육용자를 받아서라도 대학에 진학한다고 응답한 아이도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이나 장래의 진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전회와 공통하는 응답으로서 프리터나 파견사원 등과 같은 비정규 고용자에 대한 이미지에 관해서는 「자신은 되고 싶지 않다」고 부정하는 응답이 많았다. 그 중에는 프리터에의 이행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뒤에 정사원으로 뽑지 않는 사회나 기업 측에 원인을 추궁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그래도 비정규고용자의 존재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프

리터가 될지도 모른다고 응답하는 아이도 있었으므로 비정규고용자 자체에는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만, 진로 미결정에 대한 지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다지 위화감이 없고, 청소년 자신이 비정규고용자가 되는 상황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뭔가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리터로는 좀 그렇고, 뭔가 직업을 찾을 거예요.... 대학도 나오고 싶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직 학생이고 싶기도 해서 대학이 좋겠다 싶은 거죠. 전문학교라면 돈이 더 들잖아요. 게다가 그 전문학교에 들어가면 계속 그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대학이 좋겠다 싶어요」(I상)

「그걸 전혀 모르겠어요. 선생님에게도 질문 받고 ‘그런 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너는 무얼 하고 싶니?’라며 심하게 화를 냈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장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E상)

「(진학이나 취직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 그건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자립하기 위해서는 필요. 하지만 할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남의 일처럼, 중요한 거겠지 하면서. 그래도 계속 프리터로 살고 있는 자신이 떠오르기도. 한 달에 15만엔 벌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C군)

4. 결론

친구관계에 관해서는 작년도 조사의 경우는 「가치관의 공유」나 「관계의 깊이」가 친구와 친한 친구를 구별 짓는 분수령이 되었으며, 취미나 성적, 장래의 목표 등의 성향이 가까운 친구를 친한 친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금년도의 조사는 작년도와 달리 취미나 성격 등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일을 이야기 하거나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눈치를 보지 않는 등의 친밀성의 정도가 친한 친구로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친구 관계도 동아리나 아르바이트 하는 곳, 학원 등에 확산되지 않고, 학교의 친구가 큰 무게를 차지하고 있다. 또 많은 아이들이 진학이나 학군에 의해 서로 떨어져도 친밀감을 유지한 채로 친한 친구로서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新谷(2002)가 지적하는 「고장에서 맺어진 관계에 대한 지향」에 가까운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다수의 친구 그룹(클래스, 동아리, 과거의 재적학교, 학원, 아르바이트 등)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핵이 되는 친한 친구 그룹(주로 학교 친구이지만 다른 친구 그룹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을 「있을 곳」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이외의 친구 그룹과 접할 때에는 다소 신경을 쓰거나 자제를 하거나 하는 경향은 있었다. 단 대화내용에 관해서는 그룹마다 구별하는 경향은 볼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친구 그룹이나 다른 장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접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이 점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장면에 따라 성격이나 태도를 바꾸는 「자신의 다원화」는 반드시 현대의 청소년에게도 특이한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의 조사나 비교분석에서 재차 검토할 과제이며,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친구관계에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친구관계가 그룹만으로 존재하는 內閉型 그룹은 주위의 분위기나 태도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일이 많았다. 작년의 조사와 비슷하게 청소년의 대부분은 「리더 역」이나 「눈에 띄는 일」에 대해서 기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작년에 볼 수 있었

던 교사로부터 찍혀 ‘눈에 띄면 못 박듯 눌러버리다’라는 의미에서의 기피 감과는 다른 것이었다. 가게의 빈곤이나 생활에 힘든 부모의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자신이 서야할 위치를 인식하고, 그러한 바탕에서 「공격, 추궁」의 역할이나 중립적인 역할에도 철저히 임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학력에 관해서는 「집에서의 공부시간이 없다. 테스트 기간 중 이나 수험생일 때의 아이라도 그다지 집중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볼 수 없는 아이가 매우 많다」 「친구의 공부 성적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아이가 많다」 「자신의 공부방이 없는 아이가 대부분이며, 자신의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거의 몸에 배어 있지 않다」고 하는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가게가 빈곤한 탓으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도 많은데다가 청소년 본인도 학원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과 관련하여 장래의 진로나 고등교육진학에 관한 질문에서도 대학에의 진학에 관해서는 의의를 갖고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는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고졸 보다 대졸이 취직하기 좋으니까」라고 하는 소극적인 이유가 많았다. 학원에 가지 않는 경향은 구체적으로 장래를 전망해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의식이 낮은 아이가 많았던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부모는 진학이나 성적 등에는 간섭하지만, 생활면에서 그다지 간섭하는 경향은 볼 수 없었다. 이야기에서도 부모는 매일의 노동에서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고, 부모가 「제 멋대로」 「화가 폭발」하는 것을 싫어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도 특징이지만, 그 한편으로 부모가 일에서의 피곤함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작년의 경우는 부모의 과대한 간섭에 불만을 털어놓는 청소년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올해의 경우는 부모는 좋은 상담 상대인 동시에 「학교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품고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금전감각에 관해서도 그렇게 돈을 들이는 놀이를 하지 않고, 고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도 관련되어 있다. 또 이번의 독자적인 특징으로 형제나 조부모, 나아가 예부터 교제하고 있는 이웃이나 친구의 가족과는 강한 애정

이나 유대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마음 써주다」 「상담상대가 되어 주다」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학교에 관해서는 선생님(특히 담임선생님)과의 관계는 희박하고, 학교의 선생님을 콘보이도에 넣지 않는, 또는 넣는 것이 적은 경향이 있어, 「선생님과 친구처럼 이야기 할 수 있어 재미있다」고 하는 아이가 많았던 것과 비교해서 다른 특징이다. 그렇지만 학교생활에 관해서는 수업의 진행상황이나 교사로부터의 간섭, 학교에서의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에서의 성실함을 좌우하는 지표가 되고 있으며, 학급에서의 친구관계나 학교와 얼마나 맞는지(교육방침이나 반 편성, 수업의 진도 등)가 성실함을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와 잘 맞거나 학교에서의 친구관계가 양호하면 「 즐겁다」고 대답하는 한편, 학교와 맞지도 친구관계도 그다지 양호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싫다」 「시시하다」라고 답하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서 지각이나 결석을 반복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느꼈다. 그리고 이번 특징으로서 보건실의 선생님, 카운슬러의 이름, 혹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시절의 은사를 「학교」의 콘보이도에 올린 사람이 많았던 것도 흥미 깊다. 그 배경으로는 「脫학교」지향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기보다도 교사나 클래스의 선동이나 간섭에서 피하기 위한 「있을 곳」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퍼스널 미디어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메일을 어디까지나 「연락·약속 정하기 용」으로서 생각하고 있어 대량의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는 적었다. 부모도 기본적으로 메일을 주고받는 것에 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에 맡기는 것 같았다. 그래도 퍼스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아이는 적고, 컴퓨터 메일을 사용하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부모가 쓰고 있으니까 본인도 사용하게 된 케이스가 많고, 퍼스널 컴퓨터의 편리함을 중요시하는 응답은 적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의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하여 눈에 띄는 점에 관해서는 첫째, 친구와의 관계(화제, 놀러 가는 곳,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둘째, 친구와의 정, 반항에 관한 에피소드. 셋째, 부자와는 그룹이 다르다
라고 하는 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또 실시 조건이 다른 탓인지 작년의 경
우는 자신의 방이 있으며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은 한편, 이번 경우는
공영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방이 없어서 공부나 일
상생활에 불만을 안고 있는 케이스가 많았다. 단, 「자신의 방을 갖고 싶다」
라고 주장하는 청소년이 많았다고 해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은 볼 수 없
고, 현 상태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래
설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식이 희박한 것을 기술했지만, 부모
가 어릴 때부터 돌보며 지원하고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으며, 그 점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고등교육진학에 거의 의의를 갖지 않는다 해도 그 후의 직업이나 취직자리
가 큰 관심사이며 장학금이나 용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업료를 벌어서라
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가 많았다.

참 고 문 헌

- 新谷周平 아라타니 슈헤이(2002) 「ストリートダンスからフリーターへ ストリート
댄서에서 프리터로」『教育社会学研究』71:151-169.
- 浅野智彦 아사노 도모히코(2008) 「若者の友人関係とアイデンティティ 젊은이의
교우관계와 정체성」
- 浅野智彦 編『検証・若者の変貌 검증・젊은이의 변모』pp.115-146.
- 広田照幸 히로타 테루유키 編『若者文化をどう見るか 젊은이 문화를 어떻게 볼 것
인가』アドバンテージサーバー pp.34-59.
- 福重清 후쿠시게 기요시(2006) 「若者の友人関係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 젊은이의
교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 苅谷剛彦 가리야 다케히코(2001) 『階層化日本と教育危機 계층화 일본과 교육위
기』有信堂高文社.

IV. 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미국

1. 서론
2. '청소년'의 개념정의 및 네트워크
분석의 이해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종합적 논의: 다층구조의 지원체제
유무와 사회성 발달
6. 결론

IV. 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연구-미국⁹⁾

1. 서론

오늘날 가정, 학교, 교우관계 및 과외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가족 형태의 변화(다문화, 조손, 편부 또는 편모, 대체 및 이혼가정 등)나 학교 형태의 다양화(공립학교, 사립학교, 대안학교, 특수목적학교, 기숙학교, 홈스쿨링 등)에 따라 사회화과정에 작용하는 경험적 맥락이 청소년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차세대 사회구성원의 모습을 예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통적 가정기능의 약화와 다양한 학교의 형태를 경험한 미국의 사례는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3개 주(Michigan, Indiana, Wisconsin)에서 11개교에 수학 중인 청소년 31명을 ‘일반가정 남·여 청소년’과 ‘저소득층 가정 남·여 청소년’의 총 네 개 집단으로 나누어 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하여, 연구대상자들이 구성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의미와 사회성 발달의 연관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대상을 4개 집단으로 나누는 것과 동시에 연구영역 역시 4개 영역으로, 즉 가족, 친구, 학교 및 제4영역(연구대상자 지정 영역)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영역의 설정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전반적으로 포함시키는 시도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이 연구는 질적 네트워크 분석(Qualitative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9) 본 연구는 박순용(연세대학교)에 의해 수행되었음.

네트워크 주체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여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2. ‘청소년’의 개념정의 및 네트워크 분석의 이해

1) ‘청소년’과 ‘청소년기’의 용어정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연구에서 adolescent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teenager, juvenile, youth, young adult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로 학계의 연구대상으로는 adolescent라는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대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teenager가 사용된다. 그리고 법적 용어로는 juvenile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youth 또는 young adult라는 용어도 종종 함께 사용된다(Sebal, 1984). UN에서는 15세-24세의 연령대를 청소년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나 청소년에 대한 연령상의 범주는 국가 및 사회마다 다르다. 특히 조혼풍습을 유지하고 있거나 성인으로의 통과의례가 상대적으로 빠른 문화권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독립된 개념이 약하고 비성년/성년의 이분법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양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춘기(puberty)로 명명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춘기의 시작과 끝이 개인차를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회문화적으로 통용되는 차이에 따라 그 시점이 각기 달리 종료되는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겠다.

역사적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세기 이전에는 청소년의 개념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개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Suransky, 1982). 평균수명이 짧았던 중세에는 인간 생애 단계를 ‘유아기와 성인기’로만 나누었다(Muuss, 1995). 이때에

는 아동이나 어린 청소년들은 신체가 작고, 덜 성숙되었으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의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된 성인’으로 보았고 필요에 따라 노동에 투입될 수 있는 가용인력으로 간주되었다. 유아 또는 성인이라는 생애단계의 이분법적 구분이 중세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미술가들은 통상적으로 어린이들을 축소된 성인의 모습으로 묘사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중세가 끝나갈 무렵, 인간의 생애발달단계에 대한 사회적 개념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4세기 이후부터 어린이들은 더 이상 성인의 축소형으로 묘사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성인과 구별되는 어린이 특유의 아동의복 형태들이 나타났으며 어린이들은 예술적인 묘사에서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상징되었고 흔히 어른들을 위한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원천으로도 묘사되기 시작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보다 확고하게 대두하게 된 계기는 대중교육제도의 팽창과 학교교육의 정돈에 의해서다(김민, 2007). 근대 이전의 유럽에서는 오늘날의 학교와 같이 성장세대를 대상으로 학습과 사회화를 담당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준 받지 못한 비공식적인 ‘교육적 공공시설(educational institutions)’들이 존재했다. 이런 교육기관들에서는 여러 연령층이 같은 공간에 혼재되어 함께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8세기부터 19세기 초기에 즈음하여 학년제 교육제도가 자리 잡게 되고 특히 산업혁명 이후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기와 다른 내용과 형식의 교육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Koller와 Ritchie(1973)에 의하면 인간의 지적수준이 향상·복잡해지고 산업화와 도시화 등의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정교한 분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령집단 사이에서의 뚜렷한 구분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아동기와 성인사이에 사회적 거리가 커졌으며 이에 따라 성인기로의 유입도 지연되어졌다. 이 때 학교제도는 청소년기(adolescence)라는 새로운 발달단계를 도입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의 주요 성장과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즉 근대이후의 학교제도가 유아와 성인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Koller & Ritchie, 1973).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그 성격을 명료하게 갖게 되었고, 어느 한 지역의 독특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생애단계로 개념이 확장되고 받아들여졌다.

2) 청소년의 사회성

사회성(sociability)의 개념은 생리적 동기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후천적으로 학습이나 주위 환경을 통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습관이나 사회적 행동의 근본적 기능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세련, 2006). 청소년의 사회성과 관련해서 볼 때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다양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더 이상 어린이로 취급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아직 어른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화나 동료집단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한다. 이는 ‘동일시’의 대상이 부모로부터 친구나 다른 인물로 옮겨가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이복희, 2006: 52).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으로부터 유용한 학습기회를 얻게 되며 서로의 실수로부터도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다. 같은 나이대의 또래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인하여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택하게 되고, 또한 집단 정체감을 갖게 된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89: 9). 또래 집단은 그들 생활의 중심이 되고, 이 집단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 소속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동의할 수 있고, 또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가치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가치관에는 주로 옷이나 언어, 음악, 여가활동, 취미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들은 친구 간의 의리를 매우 중요시 하고, 집단의 규율과 규칙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과 친구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은 상황과 문제에 따라 다소 상이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래의 진로계획이나 직업 등에 관한 문제, 혹은 동료 이외의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는 친구보다 부모의 의견에 주로 귀를 기울이는 한편, 옷이나 교우관계, 여가 활동 등은 주로 친구들의 의견에 주목한다. 이렇듯 청소년 초기에 이들은 동성집단과 함께 계속 어울리지만, 성숙 정도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동료집단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친한 친구관계의 결속이 밀착되게 된다. 이와 같은 밀착 현상은 점점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대상으로 옮겨진다(장일순, 2007). 교사·야영지도자·친구의 형·누나 등과의 밀착 현상은 종종 나이가 상대자를 당황케 하기도 한다. 청소년들보다 연령대가 높은 상대자는 특별한 주의와 애정, 호의 때문에 친절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할 경우 청소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다.

청소년 초기에는 동료집단의 영향이 제일 강하지만 청소년 후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이나 동료들의 영향 둘 다 감소하게 된다. 이는 바로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결정에 있어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생겼다는 표시라 하겠다(이춘재 외, 1988). 청소년들이 독립성을 성취하는 데 몰두하게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거는 타인들의 기대에 의해서도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이르면 그들의 신체는 거의 어른의 크기와 같아지며 지적능력 또한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자기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서, 또한 어른으로 취급되는 데에서 긍지를 느끼며,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거나 어른의 역할을 해 보는 데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다. 청소년 후기가 되면 이들은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한다. 그들은 아동기의 무조건적인 교육관계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교육관계를 형성하고, 동년배와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배타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교육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폭과 깊이가 점차 증대되고, 기성세대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이나 반항에서 합리적 비판과 논리적 대항의 자세가 형성된다(한상철, 2004: 41).

이는 경직된 사회구조 속에서 ‘반사회성’이라는 청소년의 특징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기성세대의 문화를 주류문화라 가정하면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26). 사실,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비판을 가하는 경우는 그들이 미숙하거나 반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경험 속에서 다른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성인 세대에 종속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존재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들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그 성격이 ‘반사회성’으로 규정된 측면도 있다.

3)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과 질적 네트워크분석(Qualitative Network Analysis)의 실제와 유용성

(1) SNA의 발전사와 방법론적 특징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후 SNA로 표기함)방법의 사용은 지난 10-15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Durland & Fredericks, 2005). 이는 SNA의 방법론적 유용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NA의 기원은 세 분야의 학문적 근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째는 J. L. Moreno라는 정신분석학자로서 1934년에 사회측정학(sociometry)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관계의 도식화를 시도했다. 또 맨체스터 인류학자로 분류되는 영국의 John Barnes (1954), Elizabeth Bott(1957), J. Clyde Mitchell(1969) 등은 주로 연구 단위를 마을로 삼고 지역사회내의 인간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그 밖에도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관계 분석을 시도한 Kurt Lewin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초창기 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SNA가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정치학, 경영학, 범죄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SNA의 기틀이 확

고해져서 관련 학회와 학술지가 탄생되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SNA는 많은 분야에서 응용하게 되었고 그 방법도 더욱 세련되고 다양해졌다.

SNA는 사회적 상황이라는 맥락 속의 인간관계를 명료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연구이다. 따라서 관계지향적(relational)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회집단 구성원 간의 연결망, 거리와 상호 영향력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그 집단의 구성적 특성과 역동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SNA의 특징은 집단 구성원개개인의 고유한 특징 보다 개인들 간의 관계의 패턴(patterns of relationship)에 포커스를 둔다는 점이다. 즉 분석의 주요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다(Kilduff & Tsai, 2003).

질적 네트워크분석(Qualitative Network Analysis; 이후 QNA로 표기함)은 SNA를 기초로 발전시킨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질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정형화된 형태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실험적인 기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해보는 시작단계에 와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QNA와 SNA의 차이점은 전자에서는 네트워크 주체(network ego; 아래 절의 용어 정리 참조)인 개인의 정서적, 상황적인 특성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QNA의 특징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2) 질적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핵심용어의 정리(연구자 정의)

SNA에서의 용어사용이 학문영역 간의 용도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잘 이루어져있는 것과는 달리 질적 네트워크분석(QNA)에서는 아직 통일된 관련용어들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고 자료를 정리한 후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사회과학 용어만으로는 충분한 상황설명이나 의사전달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다. 또 SNA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질적 네트워크 용어를 필요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기존의 SNA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를 질적 네트

워크 연구수행에 적합하게 변형시킨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 새로 조합해 만든 용어도 있다.

① 짝패(dyad):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두 명으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한다.

② 짝패집단(clique): 네트워크 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그 집단 내의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서로와 빈번하고 가까운 관계맺음이 이루어진다.

③ 네트워크 주체(network ego):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있는 개인을 가리킨다. 즉 네트워크 주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여기서 ego라는 용어는 인류학에서 혈연관계를 도식화하는 kinship diagram에서의 중심점이 되는 개인이라는 의미를 차용한 것이다.

④ 접근가능거리(reachable distance): 네트워크 주체와 구성원 간의 친근함을 가늠하는 심리적인 거리로 평상시 상대방에 대한 지원(support)요청의 용이함과 요청에 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차트에서 가장 안쪽 동심원에 포함된 사람들은 접근가능거리가 가깝다.

⑤ 연결선(connectivity line): 네트워크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쌍방향 또는 일방향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⑥ 대칭관계/비대칭관계(symmetrical/asymmetrical relationship): 네트워크 주체와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양방적(호혜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대칭관계라 하고, 둘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용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비대칭관계라고 한다.

⑦ 집중성(centrality):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네트워크 주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인식되는 개인의 중요도와 관련 있으며 접근가능거리가 가까운 연결선이 많을수록 집중성이 높다.

⑧ 동류유대감(resemblance ties): 비슷한 성향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끼리 관계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가리킨다.

⑨ 고립인(isolate): 네트워크 주체가 대칭관계인 상대방이 없거나 접근 가능거리가 먼 사람들로만 네트워크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⑩ 사회성 동기(sociability motivation): 사교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네트워크 주체가 타인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맺음을 하려는 의욕과 적극성을 말한다.

(3) 질적 네트워크 분석의 이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peer relations)연구는 주로 개인중심, 짝패중심, 집단중심의 세 가지 연구수준(research level)으로 대별된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지금까지의 청소년 연구는 개인중심과 짝패중심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으며 상대적으로 집단중심의 연구는 많지 않았다(Cillessen, 2007).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수준에서의 연구가 모두 중요한데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접근은 개인과 짝패 뿐 아니라 집단수준에서의 연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긍정적·부정적 사회화 과정 모두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학업이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행위 등 개인의 사회성 발달 전반에 골고루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Espelage, Holt, & Henkel, 2003).

질적 네트워크 분석(QNA)을 기초로 하는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 연구는 기존의 SNA의 장점인 사회적 집단 내의 개인의 위치를 가시화하는 한편, 질적 연구의 특징인 상황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개인이 부여하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QNA는 따라서 단순히 연구자 입장에서 네트워크 주체와 타인과의 연결선을 그려보고 집중성을 밝혀내는데 그치지 않고 집단 내에서의 역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관계의 성격과 맥락을 짚어보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QNA를 통해서 네트워크 주체가 일상에서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대상들과의 접근가능거리와 대칭·비대칭 관계를 정서적 요인들과 결부시

켜 알아보고 면담에 기초한 언어적인 자료를 통해 사회성 발달과 관련 있는 네트워크 주체의 개인적인 경험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용어가 적힌 스티커의 사용을 통해 네트워크 주체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유도했으며 이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여 연구대상자들이 구성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의미와 사회성 발달의 연관성을 탐구할 수 있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장소 및 기간

(1) 연구대상의 분류

일반가정 남·여 청소년과 저소득층 가정 남·여 청소년으로 각각 이루어진 네 개의 집단을 연구대상 집단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저소득층의 분류는 연구대상 청소년 소속 가정의 월 소득(\$1,000 이하), 연구대상의 학교무료급식(free lunch program) 수혜여부, 거주하는 동네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 등을 기초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결과 일반 가정 청소년 15명과 저소득층 청소년 16명, 총 31명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그 밖의 분류기준으로 性比(남 16명, 여 15명으로 구성), 인종(백인 또는 소수민족), 부모동거여부, 연령을 참고했다(<표 IV-1>과 <표 IV-2> 참조).

<표 IV-1> 참여자 구성 분포 (백인 및 소수민족 구분에 의한 분류)*

	LF	LM	AF	AM	Total
White	3	3	7	6	19
Non-White	3	7	2	0	12
Total	6	10	9	6	31

*남성(16명), 여성(15명) / 저소득층(16명), 일반(15명)

*LF: 저소득층 여자 청소년; LM: 저소득층 남자 청소년; AF: 일반가정 여자 청소년; AM: 일반가정 남자 청소년

<표 IV-2> 참여자 구성 분포 (부모 동거여부에 의한 분류)

	LF	LM	AF	AM	Total
양친	1	1	6	5	13
편부	0	0	0	0	0
편모	5	5	3	0	13
기타	0	4(조부모와 동거, 위탁가정, 또는 독립)	0	1(부모 이혼으로 외조부모와 동거)	5
Total	6	10	9	5	31

(2) 자료 수집 장소, 기간 및 방법

연구 자료의 수집은 미국 중서부지역의 3개 州(Michigan, Indiana, Wisconsin)에서 11개교에 수학중인 31명의 남·여 청소년들(그 중 두 명은 봄에 졸업, 또 한 명은 바로 전 학기에 중퇴함)을 대상으로 2008년 8월 1일에서 8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을 발견하고 선정하는 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방학 중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하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추적하여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교사 및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때는 주로 연구 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쇼핑몰, 영화관, 서점에서 청소년 연령대의 대상을 물색하여 접근했다. 이 경우에는 추후에 인터뷰 약속을 하기도 하였지만 즉흥적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전화통화로 구하고 승낙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단, 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두 명에 한해서는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연구기간의 중반부에 접어들면서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 가정이 많이 분포한 동네(low-income neighborhood)를 직접 찾아가 연구대상을 물색했으나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았으며 때로는 신변상의 위험을 느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직접 동네를 찾아가는 대신에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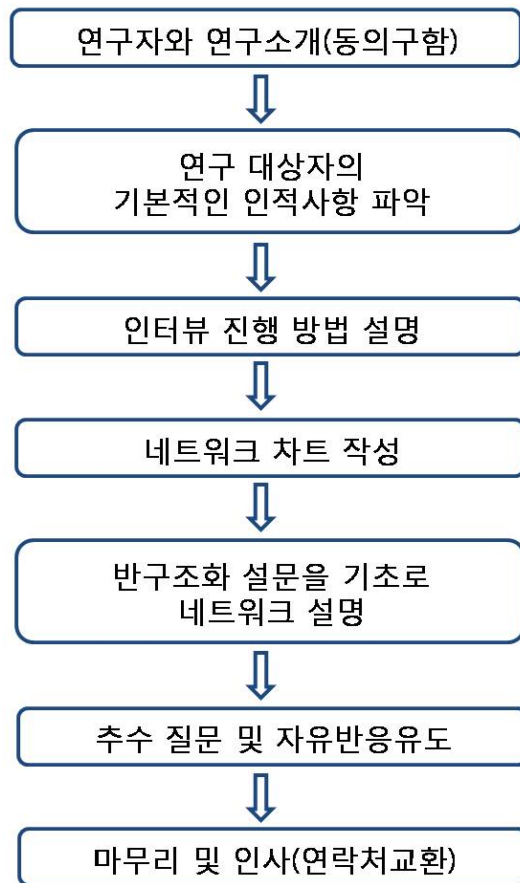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여 필요한 연구대상자를 구했다. 연구대상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기간의 후반부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는 일인당 \$20 상당의 상품권을 참여수고비로 제공했다.

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연구대상자와의 인터뷰는 연구대상과 장소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그림 IV-1> 참조). 네트워크 차트 작성은 빈칸을 모두 채우기 보다는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름, 관계(조부모, 동생 등) 또는 직책(목사님, 선생님, 운동코치 등)을 적도록 하였다. 또 색으로 구분되는(color-coded) 연상단어 스티커를 네트워크 주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바깥쪽에 붙이도록 했다. 붉은색 스티커에는 부정적인 연상단어가 적혀있어서 나중에 연상단어 분포분석을 할 때 특정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주체의 집중성과 타인들과의 접근가능거리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네트워크 차트를 함께 보면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제한된 시간(약 1시간-1시간 반)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시간을 연장하거나 추후에 전화통화로 부차적 질문에 대한 대답과 코멘트를 요청했다. 또 반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시점부터는 녹음기를 사용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숙소로 귀가한 다음에 녹음된 내용은 전사되었지만 그 밖에도 녹음기가 꺼져있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나 연구대상자의 특이한 점 등은 주로 현장에서 메모해 두었다. 특히 특정 대상과의 관계를 이야기 할 때 연구대상자가 보인 표정이나 몸짓(body gesture)을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확실한 감정 표현을 드러내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반응 자체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그 밖에도 연

구 대상자의 특별한 경험 이야기(예컨대 부모의 이혼, 가출, 집단 폭행당한 경험 등)에 대해서는 기억의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서술을 요청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하는 내용이 많았다.

인터뷰 진행 흐름도(Flow-chart)



[그림 IV-1] 인터뷰 진행 흐름도

4. 연구결과의 분석

1) 가족

연구 대상자들 중 네 명을 제외한 모두가 가족을 제 1 선호 영역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단어들 중 love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표 3 참조). 이는 실제로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인터뷰 결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족이라는 용어의 감성적인 면을 이상화하여 연상되는 단어로 love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3> 제1 선호그룹 및 선호그룹과 관련된 단어군

	LF		LM		AF		AM	
	13-15세	16세 이상	13-15세	16세 이상	13-15세	16세 이상	13-15세	16세 이상
제 1 선호영역	Family 2/2	Family 2/4	Family 5/5	Family 5/5	Family 4/5	Family 3/4	Family 6/6	해당자 없음
주요단어	Love Responsibility	Love	Love Joy Money Pressure	Love	Love Money	Love Trust	Love Freedom Rule	-

(1) 긍정적 인식

인터뷰 결과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어적인 답변을 제시하기도 했다. LM인 한 학생의 경우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준 가정을 가족으로 여기는 한 편 자신의 생부·생모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자식을 부양할 수 없게 했다고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밝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 또는 조부모와의 관계를 내세워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진 연구대상자들의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한 LM의 답변("I can think of myself, who I am, only as an extension of my family.")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즉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일부분인 혈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를 원했다.

(2) 부정적 인식

예상외로 AM과 AF군에서 가족에 대해 neglect, insecurity, guilt, pressure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몇 명에 의해 연상되었다. 분석결과 이들 모두 부모님들의 가정불화를 옆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들에게 neglect와 insecurity가 부정적인 단어 중 가장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부모간의 갈등 또는 이혼으로 인해 연구대상자가 가족이라는 보금자리가 깨지는 과정을 지켜본데서 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심지어 이혼한 부모의 새로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이의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가족을 자신이 속한 한 단위의 구성체로서 의미 부여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더욱 민감했다.

2) 친구

교우관계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행동의 기준이나 제재의 역할을 한다. 특히 깊은 교우관계(friendship)의 대상 유무는 청소년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정서적 맥락을 제공한다. 청소년기에는 개인의 사회성 발달에 우정과 관련된 세 가지 영역

이 영향을 미친다(Hartup, 1993). 첫 번째는 친구의 유무(having friends), 두 번째는 친구가 누구인가(who one's friends are)와 관련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우관계의 질(quality of friendship)이 있다. 연구 결과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양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지만 한 편으로는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일탈행위의 공범이 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1) 긍정적 인식

많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친구는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가장 많은 연상단어로 joy와 freedom이 있었고 그 외에도 trust가 자주 거론되었다. 그 밖에 스스로 생각해낸 용어로 fun, happiness, dependable, supporting 등이 있으며 친구들과 동류유대감이 강한 경우 특히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다. 주로 친구들과는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스포츠, 비디오게임, 쇼핑 등)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했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친구에 대해 긍정적인 평판을 가질 때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패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여러 친구들을 가진 사람에 비해 집중성은 낮지만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2) 부정적 인식

친구와 관련된 부정적인 단어로는 insecurity, betray, competition을 들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친구로부터 버림받거나 실망스러운 행위로 인해 소원해진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들에 의해서 연상된 단어들이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자들은 부정적인 선행경험으로 인해 친구선택과 교우관계유지에 보다 신중해졌음을 피력했다. 그 밖에도 교우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연구대상자는 네트워크 차트에 친구의 수가 눈에 띄게 적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인터뷰 중 친구와 관련된 리스크 요인인 학교 일탈 행위, 권위에 대한 무시, 습관성 물질에 대한 공유, 폭력 등의 직접·간접

경험에 대해 언급도 LM과 LF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3) 학교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양면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청소년기의 통과과정으로서의 학교생활은 기회와 보람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통제와 규율을 통해 길들여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재단되는 폭력적인 장소로 인식될 수도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의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학교 내외에 적용되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교육체제를 은연중에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았다.

(1) 긍정적 인식

학교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상단어로 success, rule, responsibility가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교과 외 교육 혹은 청소년 여가활동의 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던 학교 외 교육 장면을 중시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학교를 닫힌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 학교 내외의 장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할 때 연구대상자들은 학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두드러진 점은 학교 선생님과의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경우 학교생활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가까운 선생님의 유무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배가시켰다.

(2) 부정적 인식

조용환(1993)에 따르면,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학생의 정체를 강요하는 곳이며, 그들은 현실과 분리된 제도적 교육기관, 즉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학생이라는 신분의 굴레 속에 갇혀 청소년 고유의 정체성이

되화되거나 부정적 이미지로 변화된다. 그에 따르면 학생과 청소년은 사회가 받아들이는 용어 그 자체에 있어서 차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학생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하는 삶의 존재이며 그 삶의 정체성은 미래에 담보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대상자들은 학교와 관련해서 pressure, competition, hard work, challenging, tough, stressful, long, anger 등의 다양한 연상단어들을 제시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이 다니는 저소득지역의 공립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학교 내의 폭력, 도난, 갈취문제 등을 언급하며 환경이 좋은 학교로 전학하기를 희망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은 학교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은 학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네 그룹의 청소년들 모두다 교사의 무능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부족도 부정적 인식에 기여한다고 했다.

4) 기타 영역

자유롭게 연구대상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은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표 IV-4> 참조). 주로 방과 후 활동 중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집단을 선택했는데, 스포츠, 종교 활동, 음악 또는 미술활동이 주로 언급되었고 한 LF는 남자친구를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했다. 그 사람의 경우는 고립인(isolate)에 가까운 지극히 제한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례로 보아야겠다. 특별활동 그룹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모두 자신이 특별활동을 통해 얻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고 했다. 단체정신(스포츠, 음악활동), 마음의 평화와 사랑받는 느낌(종교), 창조성 발산과 성취감(미술활동) 등이 언급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룹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통해 또래 외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인식했다.

<표 IV-4> 네트워크 주체 지정 영역

	LF		LM		AF		AM	
	13-15 세	16세 이상	13-15 세	16세 이상	13-15 세	16세 이상	13-15 세	16세 이상
네트 워크 주체 지정 영역	-	Sports Church My Boyfriend	Sports Clubs	Church Sports Workplace Basketball Team	Sports Church Band Mosque	Soccer Art Club Church	Sports Church Music Band	-

5. 종합적 논의: 다층구조의 지원체제 유무와 사회성 발달

Havigurst(1972)에 따르면 성인이 되기까지 청소년들이 완수해야 할 여덟 가지 임무(task)가 있다: ①또래들과 보다 새롭고 성숙한 관계 맺기 ②성적(性的) 역할의 수용 ③자신의 외모 수용 ④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 ⑤결혼과 가정꾸리기에 대한 준비 ⑥경제적 독립 준비 ⑦이데올로기 또는 가치체계를 갖추기 ⑧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내면화하고 실행하기. Havigurst의 발달과업은 미국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연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미국의 청소년 사회성 발달을 문화-발달론적 과업(cultural-developmental task)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 가정 청소년, 저소득 가정 청소년, 연령별 및 성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의외로 인종적인 차이는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모와의 동거유무, 학교생활, 교우관계가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집중성이 높고 접근가능거리가 가까운 이들이 다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관계, 학교, 교우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밝고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또 각 영역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수록(예컨대 부모의 이혼, 학교 폭력, 친구와의 절

교 등)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는 각 영역별 부정적인 연상단어에서도 반영되고 있다(<표 IV-5> 참조).

<표 IV-5> 부정적인 연상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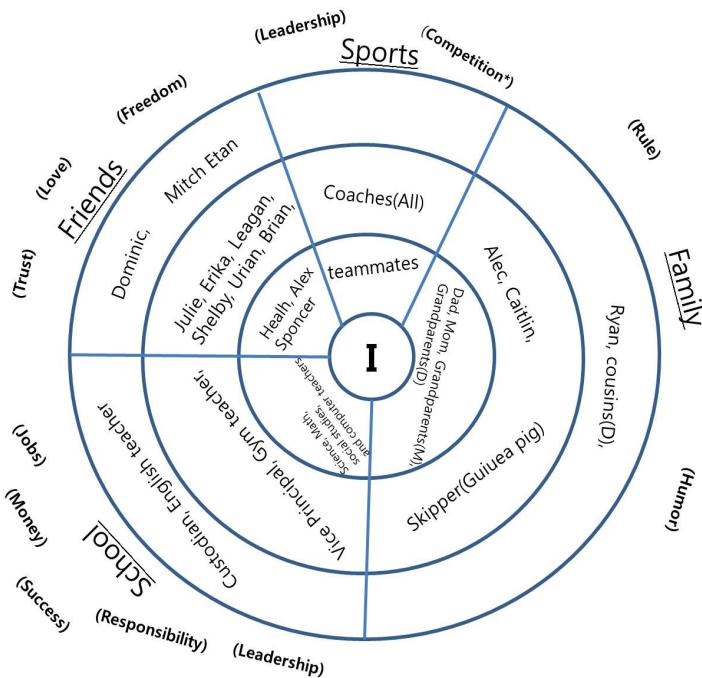
	LF		LM		AF		AM	
	13-15세	16세 이상	13-15세	16세 이상	13-15세	16세 이상	13-15세	16세 이상
부정적인 연상 단어	Fr : 3 Sc : 2 Fa : 1	Sc : 5 Fa : 4 Sp : 2 Fr : 2	Sc : 9 Sp : 5 Fa : 5 Fr : 1	Sc : 4 Fa : 3 Sp : 1 WP : 1	Fa : 6 Sc : 5 Fr : 3 Sp : 2 Ba : 1 Ch : 1	Sc : 5 So : 3 Fa : 2 Fr : 1 Ch : 1 AC : 1	Sc : 4 Sp : 3 Fa : 2 Mu : 1	-

* Sc : School, Fa : Family, Sp : Sports, Fr : Friends, WP : Work Place, Ba : Band, Ch : Church, So : Soccer, AC : Art Club, Mu :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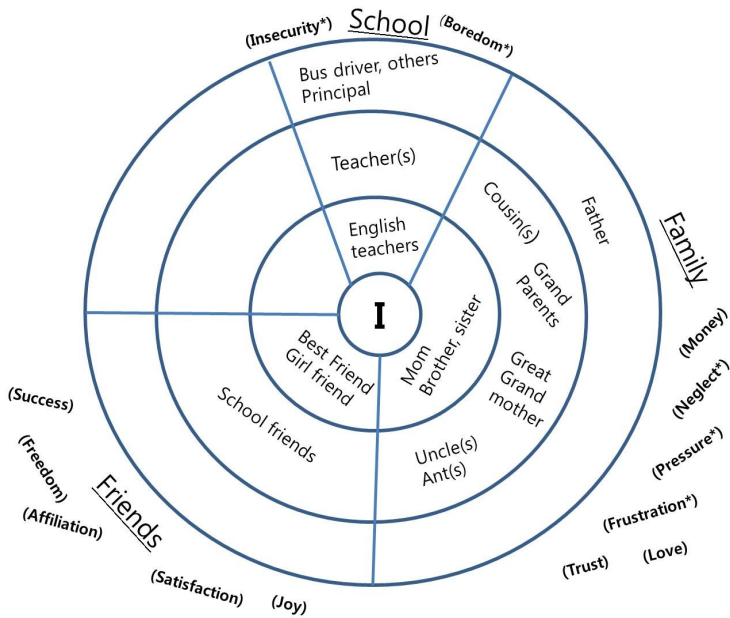
※ 《총 부정적 연상단어의 수》 Sc : 34, Fa : 23, Sp : 13, Fr : 10, So : 3, Ch : 2, WP : 1, Ba : 1, Mu : 1, AC : 1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은 가족, 친구, 학교 및 제 4 영역(연구 대상자 지정) 모두 자신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여기서의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영향 모두가 포함된다.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만족을 나타낸 AM(일반가정 남자 청소년)의 경우 네 영역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했다(<표 IV-6> 참조). 부정적인 연상단어는 AM의 경우 학교 영역 또는 제4영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면담 결과 이는 학업에 대한 성취의욕이나 또래 학생들과의 선의의 경쟁심이 반영된 긍정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에 가장 현실 도피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 LF(저소득층 여자 청소년)의 경우 6명 중 5명이 네 영역 중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들 중 두 명은 특정 영역(학교 또는 친구 영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LM의 경우에

도 부정적인 연상단어가 두 영역 이상에서 발견되었다(<표 IV-7> 참조). 이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자신을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관계를 주고받으며 접근가능거리가 가까운 대상이 있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의 경우 보다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 영역보다는 다수의 영역에서, 그리고 같은 영역 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호혜적인 대칭관계를 이루는 다층구조의 지원체제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 영역에서 네트워크 주체의 집중성이 높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의 연구대상자들은 대인관계의 폭과 질에서 제한을 받고 따라서 사회성 발달에도 네트워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AM의 질적 네트워크 차트 일례



<표 IV-7> LM의 질적 네트워크 차트 일례

6. 결론

이 연구는 미국의 중서부라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국 전체의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의 과정과 성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제외한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 분석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느낀 점은 QNA 방법이 한편으로는 짧은 case study를 여러 편 모아 편집할 때와, 다른 한편으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할 때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예상했는데, 현장연구와 개별적인 인터뷰를 직접 해보니 보다 연구주제에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31명의 연구대상자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AM, AF, LM, LF) 각각에 대해서 네트워크 차트를 완성시키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결과 청소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개인차와 환경적 요인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무엇보다 두드러진 점은 다층구조의 지원체제의 유무가 사회성 발달에 가장 큰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어느 특정 영역에만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치우치는 경우에 네트워크 주체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사회성 동기(sociability motivation) 또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이 연구의 방법론적 의의는, 인접 학문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있으나 청소년 연구에서 비교적 소외된 Network Analysis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청소년 연구 분야에 Qualitative Network Analysis를 도입한 점이다. 이 연구에서 아쉬운 것은 연구대상자들과 불과 한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만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라포르형성의 여유가 없어서 보다 의미 있는 내러티브의 수집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애초에 일반화를 염두에 둔 자료수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대상자들의 생애사를 듣고 싶었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압축된 사회성 관련 경험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또한 두 명의 연구대상자의 경우에서만 추수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진술한 내용의 확인 및 교차확인(cross-checking)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아쉬움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돌리고, QNA의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또 다른 의미를 되새겨본다. QNA를 잘 보완하여 다양한 연구 장면에 적용한다면 앞으로 질적 연구의 한 영역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청소년연구에 있어서, 문헌중심의 이론적 연구내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연구와 함께, 본 연구처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소통 가능성이 높은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QNA와 같은 유형의 연구방법, 즉 연구자의 선입관보다는 청소년의 입장과 실태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 목적과 방향은 청소년의 입장과 실태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연구자 중심의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설문조사

연구보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높다는데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연구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한 심도 있는 추수/후속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민 (2007). 한국 청소년학의 학문공동체 형성과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세련(2006), 여가활동과 중고생의 사회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국제관광학술대회발표원고.
- 이복희(2006), 청소년교육총론, 유풍출판사.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장일순(2007), 청소년사회학, 학문사.
- 조용환 (1993).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청소년의 실체와 청소년문화의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4(3). 5-17.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연구원(1989), 청소년 일상생활 공간에 관한 심리·사회적 고찰,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상철(2004), 청소년학, 학지사.
- Cillessen, A. H. N. (2007). New perspectives on social networks in the study of peer relation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7(118), 91-100.
- Durland, M. M. & Fredericks, K. A. (2005). An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analysis.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107, 5-13.
- Espelage, D. L., Holt, M. K., & Henkel, R. R. (2003). Examination of peer group contextual effects on agg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 205-220.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3(60), 3-22.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McKay.
- Kilduff, M. & Tsai, W. (2003). *Social networks and organiz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Koller, M. R. & Ritchie, O. W. (1973). *Sociology of childhood*.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uuss, R. E. (1995). *Theories of adolescence*. (6th Ed.) McGraw-Hill Publishers.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571–645). Hoboken, NJ: Wiley.
- Sebald, H. (1984). *Adolescence: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J: Prentice-Hall.
- Suransky, V. P. (1982). *The erosion of childhoo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부록: 연상 단어 분류 표

* 부정적 연상단어

< LF >

	LF 1	LF 2	LF 3	LF 4	LF 5	LF 6
Fa	①	①	①	①	③	②
	Love Freedom Responsi bility Embarra ssed*	Love Responsi bility Happy	Love Leadersh ip Trust Rule Anger*	Love Pride	Joy Happy Responsi bility	Love Money Pressure * Neglect* Insecurit y* Unsuppo rtive*
Sc	③	②	③	②	②	①
	Rule Satisfacti on Success Easy Pressure *	Joy Satisfacti on Rule Shy Competit ion*	Success Responsi bility Pressure * Neglect*	Rule Responsi bility Hard*	Success Money Frustrati on*	Success Support Satisfacti on Competit ion*

	LF 1	LF 2	LF 3	LF 4	LF 5	LF 6
	②	③	②	③	④	③
Fr	Joy Trust Funny Money Competit ion*	Trust Freedom Insecurit y* Mad*	Joy Satisfacti on Freedom Real	Joy Freedom Fun	Competit ion*	Trust Freedom Affiliatio n Responsi bility Untrustw orthy*
	④	④	④ Sports	④ Church	① My Boyfrein d	④ Sports
etc .	—	—	Money Competit ion* Insecurit y*	Satisfacti on Easy Trust	Love Satisfacti on Trust	Joy Encourg ement

< LM >

	LM 1	LM 2	LM 3	LM 4	LM 5
	①	①	①	①	①
Fa	Love Joy Freedom Money Fun	Love Trust Money Pressure* Neglect* Frustration *	Love Happy Pressure*	Love Joy Satisfactio n Motivation Competitio n*	Love Comfortabl e
	②	③	②	②	②
Sc	Rule Responsibil ity Tough*	Responsibil ity Competitio n* Insecurity* Boredom*	Success Responsibil ity Creativity	Success Rule Develop Pressure* Insecurity* Envy* Overwhelm ing*	Success Rule Responsibil ity Difficult*

	LM 6	LM 7	LM 8	LM 9	LM 10
	①	①	①	①	①
Fa	Money Responsibility Independent Insecurity*	Love Silly	Love Secure	Love	Love Dis- appointmen t*
	②	②	②	②	③
Sc	Rule Success Pressure*	Success Responsibility Long	Responsibility Anger*	Responsibility	Success Competitio n* Stressful*

	LM 1	LM 2	LM 3	LM 4	LM 5
	③	②	③	③	③
Fr	Trust Humor Pressure*	Joy Satisfaction Success Freedom Affiliation	Trust Affiliation Kind Satisfaction	Trust Freedom Humor Support	Joy Trust Interact
	④ sports	④	④ Sports	④ Clubs	④ Church
etc.	Satisfaction Success Anger* Competition*	—	Joy Leadership Money Competition*	Money Responsibility Affiliation	Fun Freedom Money Pressure* Competition*

	LM 6	LM 7	LM 8	LM 9	LM 10
	③	③	③	④	②
Fr	Love Joy Trust Freedom	Joy Trust Awesome	Trust Support	Trust	Joy Trust Dependable Supporting
etc	④ Church	④ Sports	④ Basketball team	③ Church	④ Work place
.	Love Satisfaction Leadership	Fun Competitio n*	Joy Satisfaction Leadership	Joy Job	optimism Responsibil ity Money Pressure*

< AM >

	AM 1	AM 2	AM 3	AM 4	AM 5	AM 6
	①	①	①	①	①	①
Fa	Love Joy	Love Easy-g oing Freedom	Money Insecurit y*	Love Freedom Rule Anger*	Freedom t h e r e for	Rule Humor
Sc	②	③	②	②	④	②
	Rule Satisfact ion Success Responsi bility Pressur e*	Responsi bility Pressur e* Insecurit y*	Satisfact ion Success Responsi bility	Success Challeng ing Responsi bility	Necessa ry Responsi bility Pressur e*	Success Jobs Money Responsi bility Leaders hip

	AM 1	AM 2	AM 3	AM 4	AM 5	AM 6
	③	②	③	③	②	③
Fr	Freedom Trust Humor	Joy Trust Safe	Joy Secure Freedom	Joy Trust Reliable	Joy Trust Closest to	Love Trust Freedom
	④ sports	④ sports	④ Church	④ Music	③ Band	④ Sports
etc .	Joy Leadership Competition*	Success Determined Competition*	Love Trust Emotion	Satisfaction Competition*	Satisfaction Fun	Joy Leadership Competition*

< AF >

	AF 1	AF 2	AF 3	AF 4	AF 5
	①	①	②	①	①
Fa	Love Freedom Money Safe	Love Working—together	Love Neglect*	Love Caring Affiliation Money Neglect*	Love Rule Possessions Pressure * Insecurity* Guilt*
	②	③	③	②	②
Sc	Rule Success	hard work Satisfaction Pressure*	Success Responsibility Rule Hard	success Responsibility Pressure* Competition * Frustration*	Success Competition*

	AF 6	AF 7	AF 8	AF 9
	①	①	①	②
Fa	Love Confidence Responsibility	Love Caring Trust	Love Trust Rule Money Secret Insecurity* Neglect*	Love Happy Money
	③	③	②	④
Sc	Satisfaction Role models Pressure*	Success Responsibility Hard work Competition*	Success Responsibility Stressful*	Success Responsibility Pressure* Baring*

	AF 1	AF 2	AF 3	AF 4	AF 5
	③	②	①	③	③
Fr	Joy Trust Fun	Happiness Trust	Joy Trust Freedom Fun	Joy Trust Freedom Insecurity* Betray*	Satisfacti on Trust Comfort
	④ sports	④ Band	④ Church	④ Mosque	④ Church
etc.	Teamwork Motivation Responsibili ty Leadership Pressure* Competitio n*	Joy Success Responsibili ty Competitio n*	Standard Pressure*	Satisfactio n Belonging Rule	Joy Security Responsib ility

	AF 6	AF 7	AF 8	AF 9
	②	②	③	①
Fr	Trust Freedom Fun Competition*	Freedom Fun	Joy Freedom Fun Affiliation	Trust Freedom Unique
	④ Church	④ Art Club	④ Soccer	③ Soccer
etc.	Joy Community Insecurity*	Joy Future Leadership Competition*	Satisfaction Comitment Pressure* Competition*	Joy Satisfaction Leadership Competition*

V.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네트워크 분석

1. 연구의 방법
2. 네트워크 분석결과
3. 결론

V.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네트워크 분석¹⁰⁾

이 연구는 스웨덴의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이 주위 환경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질적네트워크를 통해 스웨덴 청소년의 부모, 교사, 또래친구 그리고 제4의 환경적 요인과의 접촉관계를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웨덴의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사회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주위 환경변수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관계, 또래친구, 학교생활, 그리고 제4의 섹터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감하고, 활동하고 인식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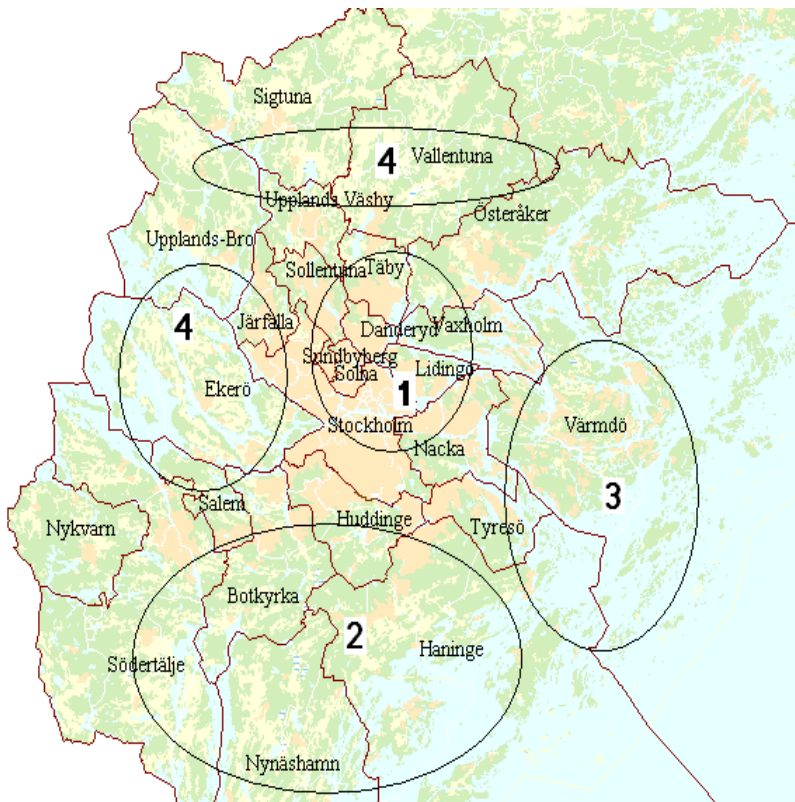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를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스톡홀름에서 면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면접인터뷰에 참가한 총 인원은 40명에 이르며, 14세에서 17세의 학생으로 입학 시기에 따라 중2와 고3까지 골고루 학생을 수집했다. 인터뷰지역은 스톡홀름 지역과 스톡홀름 외곽 등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스톡홀름은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에 속하며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10대 군(Kommun, 이하 코뮌) 중에 8개 코뮌이 스톡홀름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대조적으로 스톡홀름 지역에는 외국이민자 출신 스웨덴인이 밀집되어 전국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속하는 린케비(Rinkeby), 텐스타(Tensta), 웨르홀멘(Skärkomen), 본쉬르카(Botkyrka) 등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비교적 심한 지역이다.

지역2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이민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지역3은 개인주택지역과 고급여름별장이 밀집되어 있어 중상위지역에 속하고,

10) 본 연구는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에 의해 수행되었음.

지역4는 평균소득에 있어 서부의 상위 그룹에 속하는 개인주택지역과 북부의 중하위 그룹에 속하는 임대아파트 지역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인터뷰에 참가한 제5지역은 스톡홀름 외곽 코뮌으로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평균소득은 스톡홀름의 코뮌들보다 낮으며, 도시와 농촌의 중간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역이다.



[그림 V-1] 스톡홀름의 지역 구분

따라서 인터뷰지역으로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국8위를 기록한 지역4이고, 그 다음은 지역1로 전국 평균 순위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국순위 235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톡홀름 남부의 지역2 지역으로 외국이민자가 많이 집결되어 있어 실업율도 가장 높

은 4.7%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지역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4는 실업률에 있어서도 1.5 퍼센트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고급여름별장이 많이 모여 있는 스톡홀름 동부 지역3이 2.1%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스톡홀름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나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상위그룹과 중위 그리고 하위그룹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역 및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사회화의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스웨덴 가정의 경우 폭넓은 복지제도의 결과 각각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들 간의 차이, 가족간의 경제적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고등학교를 포함한 대학원까지 학비가 없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현격한 차이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이 연구에서 부모의 직업유무, 월수입 등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회경제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역별 분포로는 차이의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로 스웨덴의 봉급수준이 학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의 종류, 직책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해 보는 변수가 불확실하고 부모의 종사직업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봉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이나 직무, 근무 연수 등의 상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서 학생들의 경제상황을 유추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에 따른 사회화의 차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함을 밝혀 둔다.

인터뷰에 임한 학생들의 선택은 스톡홀름에 있는 학교 중에서 무작위로 25개 학교를 추출한 후 면접인터뷰를 허락한 학교 순으로 4개 학교에서 자원자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방과 후 혹은 자습시간에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교실 혹은 학교식당에서 진행되었고, 답임은 입회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1차 단계에서 무작위로 25개 학교를 추출했지만,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표집을 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었으며, 심층 인터뷰가 학술적 목적을 두고 있어 인터뷰 내용과 신원 등의 비밀이 보장됨을 충분히 숙지시켜 주었다.

<표 V-1> 면담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인터뷰 기간 및 소요시간

구분	배경변수	사례수	백분율 (유효 백분율임)	실업율	전국평균 소득 순위
지역구분	스톡홀름 시내 (지역 1)	1	2,5	3,4	11
	스톡홀름 남부 (지역 2)	26	65	4,7	235
	스톡홀름 동부 (지역 3)	7	17,5	2,1	23
	스톡홀름 북서부 (지역 4)	1	2,5	1,5	8
	기타	5	12,5	2,6	36
인터뷰 기간	40일 (2008. 9. 1 - 2008. 10. 10)				
인터뷰 소요시간	평균 40분 (최장 70분, 최단32분)				

출처: http://www.ekonomifakta.se/sv/Fakta/regional_statistik/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40명이다. 면접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남, 여의 성구분에 있어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23명 (57.5%)이 여학생이고 남학생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에 응한 학생들의 어머니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상이 13명으로 32.5퍼센트를 차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20명인 50퍼센트, 그리고 나머지는 중졸자로 17.5퍼센트인 7명이 이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즉 13명인 32.5퍼센트가 대졸, 52.5퍼센트인 21명이 고졸, 그리고 나머지 15퍼센트에 해당하는 6명이 중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터뷰 학생들의 부모학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가 제일 높고, 대학교가 그 다음으로 둘을 합친 고학력자가 8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의 학력이 높은 이유는 스톡홀름이라는 대도시의 가정이라는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농촌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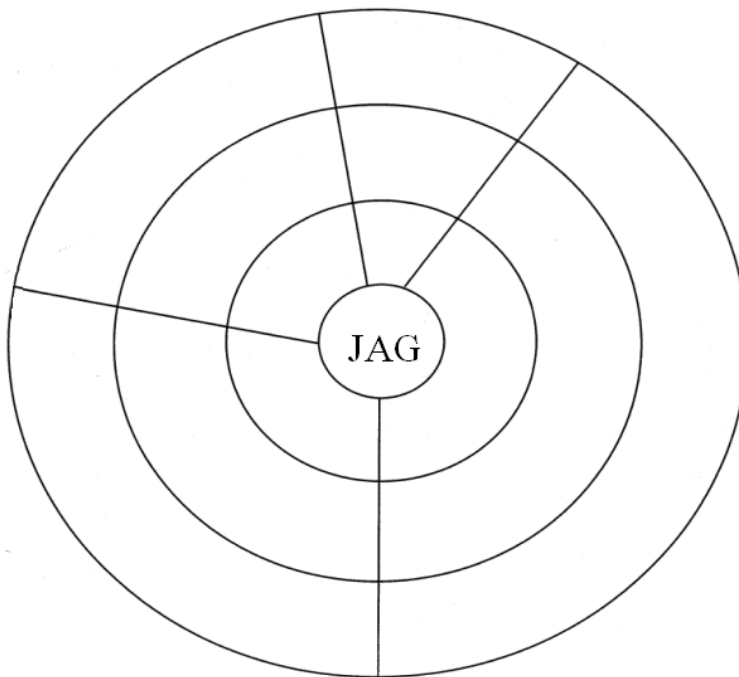
부모교육수준을 보면, 대도시와 달리 고졸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대졸자와 중졸자의 비중에 있어 중졸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세대에 있어 도농간 약간의 교육편차가 있는 셈이다. 면접대상자들의 현재 재학상황은 중학교 학생이 12명으로 30퍼센트를 차지하고 나머지 28명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다.

<표 V-2> 면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배경변수	사례수	백분율 (유효 백분율임)
성별	남	23	57.5
	여	17	42.5
어머니의 교육수준	대졸이상	13	32.5
	고졸	20	50.0
	중졸 이하	7	17.5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졸이상	13	32.5
	고졸	21	52.5
	중졸 이하	6	15.0
학교급	중학교	12	30.0
	고등학교	28	70.0

이 연구는 네트워크 차트를 중심으로 한 질적 네트워크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Kahn & Antonucci, 1980; van Tilburg & van Groenou, 2002). 인터뷰가 시작하기 전 중앙에 자기자신(Jag)이 작은 원을 중심으로 크기가 각각 다른 4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원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가족, 학교, 또래친구, 그리고 제4의 섹터를 중요도에 따라 큰 순서대로 위치시키도록 한 후, 해당 난에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중심부부터 외곽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적도록 했다. 그리고 난 후 아래의 14개의 항목(책임, 중압감, 기쁨, 연대의식, 돈, 자유, 신뢰, 규율, 무관심, 사랑, 성공, 경쟁, 만족, 불안) 중 하나를 가장 적절하게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짝짓도록 유도했다.¹¹⁾ 이와 함께 리스트에는 없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더욱 적절한 단어가

있으면 해당 사람들에게 적으라고 유도했다.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 바로 인터뷰에 들어갔으며 가장 짧게는 32분이 그리고 40개 인터뷰 평균소요시간은 40분이었다. 이해를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중간 중간 다시 설명을 해 주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경우 가장 길게는 1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그림 V-2] 네트워크 차트

- 11) 스웨덴에서 사용한 14개 단어는 다음과 같다. Ansvarstagande, Pressande, Glödje, Solidaritet, Pengar, Frihet, Tillit, Disciplin, Försumma, Kärlek, Framgång, Konkurrens, Belåtenhet, Osäkerhet.

2. 네트워크 분석결과

1) 가족, 학교, 또래친구의 비중도

먼저 인터뷰의 75퍼센트인 29명이 가족을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했고, 친구를 가장 중요하다고 한 비율은 18퍼센트(7명), 학교는 2명이 선택했다. 즉 스웨덴 청소년에 있어서도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가족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대다수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가족의 포근함과 부모의 보호,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원만한 관계와 친근함 등을 가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또한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가정의 중요성을 지적한 학생 중에는 가정이 깨지면 학교생활, 친구관계가 모두 깨지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다른 생활도 원만하다고 지적한 점은 가정이 사랑의 공간, 관심의 공간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님이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주고 후견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족구성원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웨덴 청소년에게 중요한 것은 또래친구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경우도 18퍼센트(7명)에 이르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 경우도 58퍼센트인 23명에 이른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특징은 또래친구는 가족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메꾸어 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체로 친구를 통해 미래를 함께 이야기 하고 학교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 사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부담 없이 주고받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또래친구가 스웨덴학생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방과 후 혹은 주말을 대부분 함께 보내기 때문인 듯하다. 스웨덴의 학생들은 수업이 오후 2시까지 끝나는 시간에 학교 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주로 본인, 혹은 친구의 집에서 함께 숙제를 하거나, 인터넷채팅, 컴퓨터게임 등을

하면서 부모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저녁 5-6시까지 함께 보내는 셈이다. 따라서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또래친구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학교는 또래친구 다음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경우는 40명의 학생 중 2명 밖에 되지 않았으며 28명이라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3번째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가족, 또래친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표 V-3> 가족, 또래친구, 학교의 비중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가족	29	7	2
또래	7	23	10
학교	2	10	28

2) 가족관계에서의 정서교감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서적 교감과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어머니의 경우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가장 가까운 존재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 스웨덴 청소년에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가 근소한 차이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25회 언급), 아버지도 23번으로 매우 가깝게 근접해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멀리 위치시킨 경우도 각각 2번, 4번에 그치고 있어 가정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머니의 가장 가깝게 느끼는 한 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머니 밖에 더 있느냐는 대답에서 나타나듯이,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어머니가 대신 메꿔 주는 보상심리, 혹은 당연히 어머니가 가깝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심리적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만큼 어머니라는 존재는 스웨덴에서도 가깝고 친한 관계라는 점이다.

어머니, 아버지의 선호순위에 있어 또 한 가지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분과 감정의 굴곡이 심한 경우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쉽게 화를 내거나, 분위기에 따라 기분이 쉽게 바뀌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두 사람 중 하나를 더욱 가깝게 위치시키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자매, 혹은 형제 들을 가장 가깝다고 언급한 횟수가 9회에나 이르며, 중간거리(12회) 그리고 최원거리 (16회) 총 28회가 언급되고 있어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형제, 자매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인터뷰에서는 부모의 역할보다 형제, 자매가 있어 행복하다는 지적도 종종 나온다. 그만큼 가족 내에서 나이가 적고나 많거나 관계없이 가족문제에 있어 서로 깊이 이해하고 대화하는 상대로 자매와 형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가 하나만 있는 가족의 청소년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는 부분이다.

스웨덴 청소년이 가족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 친척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가족 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 포함된 친척의 경우, 아마도 부모가 돌아가셔서 친척집에서 자라고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가족 내에서 가장 친근감이 있고 가까운 사람은 해당 친척일 것이다. 스웨덴 청소년들의 인식에 있어 친척이 중요한 이유로 별거, 이혼 등의 이유로 홀어머니, 혹은 홀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삼촌, 혹은 이모 등이 집에 함께 살거나 수시로 방문하며 돌보아 주는 관계로 인해 친척을 언급하는 경우가 전체 40명 중 35%인 14명이나 있다는 점은 스웨덴 가정이 그만큼 이혼가족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Demografiska rapporten, 2003).

<표 V-4> 가정내 가족과의 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기타 친척
최근접거리	25	23	9	1
중간거리	12	6	12	5
최원거리	2	4	16	14

가족관계에서 얼마만큼 부모의 양육방식이 좋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본인이 장차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부모와 같은 양육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에서 발견되는 점은, 인터뷰 청소년들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28명이 부모의 방식대로 기르겠다고 답을 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방식이 자녀들의 큰 저항이나 문제없이 자식들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과 관심, 보호 등은 본받을 만 하다고 폭넓게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크게 불만 없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불만이 있어 부모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대답한 25퍼센트 학생 10명의 경우, 자신이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고 한다던가, 너무 엄하게 기르지 않겠다고 하는 점에서 보듯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너무 자녀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하향식 양육방식이라든가, 엄하게만 자식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반발 심리를 유발하는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 학생의 지적에서 보듯이 부모의 잦은 이혼, 이성교체가 얼마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지, 잦은 이사 등을 통해 새로운 가족구성원에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변화무쌍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자식의 인성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짐작케 한다.

부모와의 대화의 양태를 보면 스웨덴 청소년들은 딸이나 아들 모두 어머니를 가장 대화하기 쉬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전체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고 답한 21명의 학생 중 14명이 주로 어머니와 이야기 하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아버지와 주로 대화를 나눈다고 답한 나머지 7명에 비해 배에 넘는 학생이 어머니를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는 셈이다. 대화의 주제도 학교생활, 이성교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와의 대화의 폭이 넓고 깊이도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화에 할애해 주고 깊이 있는 대화를 이해해 준다는 점에서 대화의 대상으로 애호되고 있는 셈이다. 몇

몇 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대화가 깊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에 대한 이해를 친구만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어머니와 자식 간에 어느 정도 수평적 관계에서 이해의 폭이 좁혀지고 있다고는 하나 자식이 살고 있는 세계를 통찰력 있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미있는 현상은 대화는 어머니와 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은 딸은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와 많다는 점은 여성과 남성의 관심의 차이가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딸과 어머니는 주로 쇼핑이나 음식을 함께 할 때가 많고, 아들과 아버지는 스포츠 중계TV를 함께 시청한다든지, 자동차를 함께 고치거나 하는 등의 육체적인 활동이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게 하는 요인이 된다.

청소년의 성의 차이가 보여주는 사회화의 특징으로 여학생은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부모의 이혼 상태나, 동거상태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어머니보다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남학생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버지와의 거리감이 적고 축구, 하키 등 운동활동시 체육관까지 운전을 해 주는 등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육체적 활동성, 관심등이 유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나이가 들수록 성에 관계없이 부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17세의 고3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끔 실수를 하는 어머니에게 많은 교훈을 배운다고 한다던가, 고3인 17세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 자신들의 인성형성에 가장 중요한 귀감이 되는 대상으로서 사회적 윤리, 규범, 그리고 도덕심 등을 부모의 행동에서 많이 보고 배운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의 인성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주는 요소라 하겠다.

3) 또래친구와의 관계

스웨덴 청소년들은 또래친구의 관계를 학교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래친구를 통해 동류의식을 느끼고,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으로 신뢰관계, 오랫동안 사귀를 통한 편안함, 이해심, 슬픔, 외로움 등까지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우정 등을 들고 있다. 먼저 또래 친구관계에 있어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우정의 끈이 된다. 신뢰를 통해 오랜 기간동안 유지된 우정의 관계는 매우 편안한 관계, 이해의 폭과 깊이가 있어 모든 비밀관계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한다. 또한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방과 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상대도 친구가 된다. 방과 후 자신의 집이나 친구의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음료수를 만들어 마시거나, 산책 혹은 책을 읽고 컴퓨터 게임 등을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또한 친구관계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다른 친구 집에 가서 함께 하는 학급파티라 할 수 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 중 부모가 여행을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집안일이 있어 집을 비우는 경우가 학급 친구들 중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스웨덴 청소년들의 파티문화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춤, 음악, 알코올, 마약, 성교 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과 상반되게 인터뷰에 나타난 목소리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극히 일부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 핸드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심할 때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 각자 집에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 급히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100퍼센트의 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과 통신수단으

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은 중요한 통신수단이기도 하지만 깊이있는 대화는 만나서 할 수 있으므로 전자메일은 가끔 주고 받는다. Facebook 등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이버상의 친구들과 채팅을 통해 대화를 주고 받지만 상당히 상투적인 대화만 주고 받을 뿐 깊이있는 대화는 주고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이버 친구는 사이버에서만 만나고 인터뷰 학생들의 경우 실제로 Off-Line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 그만큼 또래친구관계는 학교에서 매일 만나 친근감을 교류하면서 이루어진 경우 우정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온라인 채팅은 또래친구를 사귀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친구관계가 중요한 이유로 인터뷰참가자들은 또래만이 공유하는 감정과 이해도 등을 든다. 학교 선생님과 부모는 이해 못하는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하고 감정의 교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지적한다. 자신의 중심원에 가까운 친구일수록 공유하는 것이 많고, 더욱 오랫동안 사귀 친구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홀어머니와 살거나, 홀아버지와 사는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취미생활이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도 중심원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친구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경쟁관계일 경우가 많다. 우정을 나누는 친구관계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뒤쳐지는 과목을 가르쳐주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먼 언저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원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학교학업성취도와 관계없이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해온 친구들이고 멀어질수록 학교관계와 밀접한 경우가 있다. 제4의 섹터에서 만난 친구들도 종종 원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언저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남녀학생 간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 친구의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 취미, 즉 축구, 하키, 럭비 등의 활동성이 높은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더욱 가깝게 의미를 두고 교제하는 성향이 강하고, 여학생의 경우 친구의 의미는 깊이 있는 대화와 음악, 문학, 연극 등 정적인 활동이 주된 공동 관심과 활동공간이 된다는 점이 교우관계와 형태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4) 학교관계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일반적으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재미없는 장소로 인식된다. 교사들의 일방적 교습방식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실력 있는 선생님을 가장 선호한다.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일수록 권위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다. 학교를 고리타분한 곳으로 간주하는 학생들도 종종 존재한다. 나이든 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자신들의 잣대로 학생들을 비판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중심의 원에서 가까울수록 실력도 있으면서 겸손하고 학생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도움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깊이 있는 대화까지 나눌 수 있는 격의 없는 선생님이고, 멀어질수록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 주로 자신이 최고인 양 우쭐대는 선생님은 앞에서는 존경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조롱거리 밖에 되지 못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는 중압감이 큰 장소이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학업성취도를 통해 자기완성을 시켜 가는 곳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배움을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 선생님의 인간성이 싫어지면 그 선생님의 수업까지도 싫어지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성차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으로, 남학생의 경우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여학생에 비해 떨어지고 수업기피현상이 더욱 높다는 것은, 그만큼 훈육과 통제에 상대적으로 여학생보다 불복종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이 더욱 학교에 애착심을 보여주고, 학업에 더욱 몰두하며 학업성적을 사려 깊게 관리하고 있는 성향은 전반적으로 전반적 성적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만큼 학교 생활은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더욱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5) 제4섹터 관계

제4섹터는 청소년의 취미 및 종교활동 등 방과 후 혹은 주말 활동의 중요한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스웨덴의 경우 제4섹터는 무엇보다도 스포츠, 음악, 아르바이트, 이성친구, 노래, 연극, 청소년 여가활동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자의 경우 경주용 오토바이, 축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 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승마, 음악연주, 연극, 댄스 등의 스포츠 및 문화활동을 제4섹터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스웨덴 청소년들의 제4섹터는 여가선용과 자질계발, 그리고 취미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청소년들이 이성친구와의 교제를 또래친구의 범주로 보기보다 제4섹터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만큼 스웨덴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의 만남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혹은 주말의 중요한 활동영역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스웨덴에서 제4섹터는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취미활동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발성이 가장 주된 원동력이 된다. 제4섹터는 본인 스스로 관심이 있고 재능도 있어서 참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만족도가 가장 높고 성취도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영역이다. 방과 후 거의 매일 참가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참여하고 재미를 붙여하는 경우가 많다. 제4섹터 내에 경쟁자가 있으면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이기기 위해 진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서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제4섹터에서 만난 관계는 나이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관계이므로 깊이 있는 친구관계로 발전되지 못하며 활동을 중단함과 동시에 없어지는 관계이다.

<표 V-6> 제4섹터의 구분

스포츠	16
음악연주	5
아르바이트	3
이성친구	2
노래	2
연극	2
기타 여가활동	2
청소년 여가센터	1
댄스	1
종교	1
인터넷	1
없음	4

스웨덴 학생들의 성별 차이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으로 여학생의 경우 전체 40명 중에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4명의 학생이 축구를 제4섹터 활동 공간으로 선택할 정도로 스포츠에 있어 성별 구분이 모호해 지는 양상이 보여 진다. 남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음악, 연극, 승마 등 다수의 학생이 전통 여학생 취미 영역에 발을 넓힘으로써 스웨덴 교육이 추구해온 양성평등교육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로도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Ungdomsstyrelsen, 2006).

6) 스웨덴 청소년의 사회화 공간의 이해

그렇다면 스웨덴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화 공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가족관계속에서는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친척 들은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 또래친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제4섹터는 과연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표 V-7>에서 같이 자신들과 교감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의 행위자에 걸맞는 단어를 짚짓기 해보도록 했다. 아래의 <표 V-7>은 스웨덴 청소년 들이 각 항목에서 사용한 단어를 정량화한

표이다.

스웨덴 청소년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단어는 기쁨(52), 사랑(38), 신뢰(28), 성공(20), 자유(20)의 순이었다. 그 중에서 기쁨은 스웨덴 청소년에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표현으로 주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나 제4의 섹터 즉 취미활동 공간에서 많이 느끼는 감정이다. 즉 마음이 맞는 또래친구와의 교제 속에서 가장 기쁨을 만끽한다는 점과 취미활동을 통해 성취욕을 만끽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느낌은 역시 압도적으로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되고 있다. 부모와의 사랑, 형제자매와의 사랑이 청소년의 사회화와 성장과정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 있는 발견일 수 있다.

세 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단어는 신뢰인데 역시 또래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친구관계는 격의 없이 마음을 터놓고 이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친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덕목인 신뢰를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겠다.

네 번째 의미 있는 단어로 자유와 성공이 동일한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유와 연관된 대상은 또래친구와 제4섹터로 역시 친구관계에서 규율적인 학교생활과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며, 또한 취미생활 또한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문화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즐기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제4섹터가 건전하게 자기계발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공간인지 각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하겠다. 더불어 같은 빈도수로 언급되고 있는 성공의 경우, 학교와 제4섹터를 연관짓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학교의 학업성취를 통해 사회적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은 스웨덴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제4섹터를 성공과 연관지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스포츠의 단계적 실력향상과 엘리트 스포츠, 혹은 프로페셔널을 생각할 정도로 성공의 열쇠로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성적 뿐만이 아니고 적성에 맞는 인성 및 자기계발이 얼마나 성취도와 만족도, 그리고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지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스웨덴 청소년들의 사회화 공간인 가족, 또래친구, 학교, 그리고 제4섹터와 연관지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이를 통해 스웨덴 청소년들이 각각의 활동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떠한 교감관계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족이라는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보면, 가장 빈번하게 연관짓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으로 책임, 기쁨, 신뢰, 돈, 규율 순으로 열거되고 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역시 가족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고 가정은 사랑을 확인하고 배우는 장소가 된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자녀교육에서 중요한 책임에 대한 강조를 들 수 있다. 즉 스웨덴 가정에서 자녀의 책임을 중요한 덕목으로 사회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스웨덴 청소년의 책임의식의 습득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견이라 하겠다. 또한 가정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기쁨을 들 수 있다. 즉 가정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맛보는 작고 큰 기쁨의 순간들은 아마도 성장과정 속에서 부모의 관심, 사랑 속에서 양육되어질 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서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은 형제자매와의 가정 내 교감관계 속에서 맛보는 감정일 것으로 보인다. 생일파티, 크리스마스 가족모임과 선물교환, 가족과의 휴가, 여행 등은 아마도 청소년들이 맛보는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일 것으로 보인다.

또래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를 나열해 보면, 압도적으로 기쁨(24회)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신뢰(17회)가 잇고 있다. 즉 또래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학교와 가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맛보는 감정이 기쁨일 것이라는 점은 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또래친구와의 교제를 연결하는 끈은 신뢰를 상실할 때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불안전

하고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 배신감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믿고 모든 비밀을 이야기 하고, 이성애에 대한 감정, 학교에서의 갈등,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 깊이 있는 이해의 담을 넘어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때, 서로에게 “배신자”, “변절자”란 단어로 서로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변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관계이다. 서로의 이해를 넘어 서로의 작은 비밀을 지켜주는 관계인 친구관계를 통해 신뢰를 배우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도 또래친구와의 관계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스웨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빈번하게 언급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중압감(12회), 성공, 기쁨(9회), 그리고 규율(6회)을 들 수 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역시 학교생활은 학업성취, 학문습득의 기쁨과 성공의 중요한 열쇠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의 중요한 덕목인 규율의 통제 속에서 그들을 짓누르는 중압감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제4섹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쁨(10회), 자유, 성공(7회), 규율(6회) 등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다. 제4섹터는 취미, 혹은 방과 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스포츠나 문화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쁨을 만끽할 것이고, 학교와 가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점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작은 성취도를 통해 성공을 경험하고, 엘리트 스포츠인이나, 프로페셔널을 꿈꾸는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스웨덴 제4섹터의 중요한 활동공간이 된다. 세계팝에서 우뚝 섰었던 ABBA의 멤버들이 중고등학교시절 방과 후 음악활동을 통해 작곡과 악기연주를 배웠다는 점은 프로페셔널 음악인으로서의 성공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애니카 서렌스탐의 경우도 방과 후 하루도 빠짐없이 하知的 긴 백야 동안 스윙연습으로 성공을 위해 샷을 갈고 닦았다는 점은 개인취미활동을 통해, 성취욕과 기쁨, 성공을 모두 맛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표 V-7> 가족, 또래친구, 학교, 제4섹터의 정서적 이해관계

구분	가족	또래친구	학교	제4섹터	합계
기쁨	9	24	9	10	52
사랑	26	7		5	38
신뢰	6	17	4	1	28
자유	4	6	3	7	20
성공	2	2	9	7	20
규율	5	1	6	6	18
중양감		1	12	2	15
책임	11		3	1	15
돈	5	1	3	2	11
경쟁	3	2	1	4	10
불안	2	3	3	1	8
만족			2	2	4
연대의식		2			2
무관심		2			2

스웨덴 청소년들이 보다 성숙해지면서 제4섹터에서 보여주는 특징의 차이는 있을까? 즉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 나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스웨덴 청소년 들은 성숙할수록 취미생활, 여가생활 등의 제4섹터에서 규율, 성공, 미래 등을 더욱 중요한 덕목 혹은 학습장이라고 지적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이가 어릴수록 재미 혹은 기쁨 등의 성취욕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제4섹터는 미래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대안으로서 진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차이에 있어서는 남학생일수록 경쟁, 성공, 규율을 들고 있고, 여학생일수록 기쁨, 즐거움, 평안 등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제4섹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그만큼 남학생일수록 성공지향적이고, 여학생일수록 자기계발, 인성개발 그리고 소양교육 등에 취미활동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운동을 하는 축구, 하키, 럭비 등의 스포츠를 선

택하고 있는 학생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팀워크와 공동목표 등을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개인여가 활동, 단체 활동 등의 영향력이 성별 연관성을 희석시키는 것으로 좀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3. 결론

스웨덴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시도해 보았다. 스톡홀름 시내와 외곽 지역에 분포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먼저 가족이 스웨덴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장으로 인식되며 그 뒤를 또래친구, 학교, 그리고 제4섹터가 잇고 있다. 가족 중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딸, 아들 구분하지 않고 가장 깊이 있는 대화를 주도하는 것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였다. 가정의 양육방식에 있어서 대다수가 만족해하고 있으며 장차 가정을 꾸려나갈 때도 부모의 양육방식을 답습하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의 주된 연결고리는 사랑이었고, 그 다음으로 책임, 기쁨의 순으로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래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정과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쁨과 신뢰관계에서 구축된 친구간의 우정은 깊이 있는 이해와 동질성, 그리고 세계관의 공유를 통해 더욱 친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가족의 누구보다도 친구와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 교감수단이 되기도 하고, 평일에는 가족보다도 더 많이 시간을 공유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자신과 가까울수록 집에 데려가 숙제, 취미, 컴퓨터 게임 등으로 함께 소일하고, 온라인 사이버친구보다 오프라인 친구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는 장소로 인식하면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미래를 걱정해주는 선생님이 많을수록 학교에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고리타분하고 권위적 시각을 가진 교사가 많을수록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애정은 식어지며, 학업성취도도 낮아진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섹터는 스웨덴 청소년들에게 취미 및 자기계발을 하는 장소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성취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정책분야이자 청소년의 심성개발 및 엘리트체육인, 문화인, 예술인을 길러내는 중요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띤다.

이 연구에서 아직 청소년의 성의 차이와 사회경제적 위치가 사회화 과정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상세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유의한 해석을 위해 꼭 점검을 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스웨덴의 특징 중 상당부분이 복지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 등과도 분명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분석을 통해 계층변수가 어떻게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설의 구축과 일반적 적용성을 갖춘 이론화 작업을 통한 청소년 사회화과정의 체계적인 설명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 국제적 비교에서 스웨덴 가족의 중요한 차이는 결혼가족보다는 동거가족이 더 많고, 빈번한 배우자 교체 등으로 인한 홀아버지, 홀어머니와의 결손가정이 많아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사생활을 직접 인터뷰에서 물어보는 것이 쉽지 않고, 설사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회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스웨덴 사회의 기본적 통념이 헤어진 부모들이 1주일씩 돌아가면서 자식들을 교대로 데리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해 언급을 한다고 해도, 이혼, 동거, 별거 등의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스웨덴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전통적인 부모의 역할이 크게 침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가족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배우고 확인하는 학습장이고, 부모로부터 책임과 규율 등을 전수받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단지 잘 먹이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관심과 대화, 공동취미생활을 통한 벽허물기 등의 노력이 수반된 사랑의 학습장임을 각인해 준다고 하겠다.

둘째, 스웨덴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인성학습대상으

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방과 후 부모가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친구와 대화하고, 취미생활, 게임, 여가 등을 함께 하는 대상으로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청소년 사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또래친구의 깊이 있는 이해와 대화는 중요한 인성형성의 장이 되기 때문에 스웨덴 지방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깊이 있는 친구관계는 취미 생활과도 연장되는 통로로서 학교,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성취하고, 규율, 성공, 경쟁의 규칙을 배우는 중요한 학습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스스로 선택한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성취만족도가 높고, 자신들의 창의성과 자질을 개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음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의 사회문화적 자본의 차이에 관계없이 국가예산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혹은 학교,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제4섹터의 개발, 운영은 한국의 미래에 유능한 예술인, 문화인, 체육인, 기술자, 과학자 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사항으로 지역의 차이가 사회경제 변수의 절대적 평가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서처럼 생활경제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스웨덴 전체 사회에서 발견되는 매우 유사한 삶의 형태, 즉 임대아파트 생활이 매우 보편적이라는 점, 여름별장의 소유, 단독주택의 보유 등이 임금수준에 관계없이 삶의 기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시적 실직상태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수준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최연혁, 2006). 따라서 사회화에 있어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최 연혁 외 (2006). 스웨덴의 가족 및 가족 내 사회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Bjornberg, Ulla & Jurgen Sass (eds), (1997). Families with small children in Eastern and Western Europe. Aldershot: Ashgate.
- Demografiska rapporten, (2003). Barnochderasfamiljer 2001 (Children and their families). 2003:1:2.Del2. Texter och diagram. Stockholm:SCB.
- Demografiska rapporten, (2004). Barnochderasfamiljer 2003 (Children and their families). 2004:3. Stockholm:SCB.
- DS 2001:57, Barnafödandet i fokus. Från befolkningspolitik till barnvänligt samhälle (Giving birth to children. From a politics of population to a children-friendly society). Stockholm: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 Esping-Andersen,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to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 Hinnfors, Jonas, 1992. Familjepolitik. Samhällsförändringar och partistrategier 1960-1990. (Family Policy. Social change and party strategy in 1960-1990). Göteborg. Göteborg University.
- Kahn, R.L., & Antonucci, T.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B. Baltes, & O.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Reprinted 1989 in Joep Munnichs & Gwenyth Uildris (Eds.), Psychogerontology (pp. 81-102). Van Loghum Slaterus.
- SOU(2000). Valfördens frutsättningar. Arbetsmarknad, demografisk segregation (Welfare at the crossroads. Development during the 1900s). Stockholm: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 Strandbrink, P. & Victor P.(2006). Small-scale Welfare on a Large Scale: Social cohesion and the politics of Swedish childcare. Stockholm: Södertörns högskola.
- Ungdomsstyrelsen(2001). Ung 2001. (Youth 2001). Ungdomsstyrelsens utredningar 26. Stockholm.
- Ungdomsstyrelsen(2005), Ung och Föreningsidrotten. En studie om föreningsidrottens plats, betydelser och konsekvenser i ungas liv . (청소년과 체육. 청소년

- 체육의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위상, 의미 그리고 영향에 관한 연구).
 Ungdomsstyrelsens rapport 21. Stockholm.
- Ungdomsstyrelsen (2006), Arenor för alla - En studie om ungas kultur-
 och fritidsvanor. (모든 사람을 위한 경연장 -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관한
 연구) Ungdomsstyrelsens skrifter 2005:1. Stockholm.
- Van Tilburg, Theo and van Groenou, Marjolein Broese (2002), "Network and
 Health Changes Among Older Dutch Adults", i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8, No.4, pp.697-719.

인터넷

http://www.ekonomifakta.se/sv/Fakta/regional_statistik/

VI. 독일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 친구, 학교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

1. 개인 인격의 상호합의과정으로서의 사회화
2. 오늘의 청소년이 안고 있는 도전
3. 사회관계
4. 연구목표
5. 부가설명: 독일 교육시스템
6. 샘플
7. 질적(qualitative) 네트워크분석 방법론
8.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 친구, 학교, 여가의 중요도
9. 청소년과 가까운 사람들
10. 사회계층별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 친구, 학교와 클럽활동의 의미
11.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청소년은 큰 유사점을 보였다.

VI. 독일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 친구, 학교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¹²⁾

1. 개인 인격의 상호합의과정으로서의 사회화

사회화란 사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인격의 형성과정을 말한다.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는 우선 부모 그리고 형제와의 상호작용 통해 그리고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그의 행동의 잣대로 배우게 되며, 내면화시키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환경과 스스로 그의 결정으로 교류를 하면서 이뤄진다. 후렐만(Hurrelmann, 2006:23)은 이러한 과정을 내적 그리고 외적인 현실의 “생산적 이해(productive Verarbeitung)”라고 했다. 이때 내적 현실은 신체적 정신적 체계로부터 그리고 외적 현실은 사회적 생리학적 환경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방식과정으로 인해서 배운 행동방식을 통해 개인은 사회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에 행동하는 주체로 편입되어 환경형성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화과정은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가치, 의미부여 과정, 이 과정으로부터 형성되는 규범 그리고 명확한 문화기술과 지식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산적인 토론과 계속적인 타협을 통해 발전해나가기 때문이다.

2. 오늘의 청소년이 안고 있는 도전

산업제조사회에서 서비스와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경제적 정치적 구조의 세계 네트워크화, 소비시장과 여가시장이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가치와 규범체제에 관한 불안감, 개인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 등

12) 본 연구는 구드룬 퀴첵(비엘레펠트대학교)에 의해 수행되었음.

오늘날의 청소년은 이 모든 것을 큰 도전으로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로부터 결정되었던 삶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추세(Beck, 1983)로 접어들었는데, 이때 일반적인 삶의 형태는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개인이 선택하는 삶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그의 행동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선택권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내릴 선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인식 그리고 그가 선호하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선택의 자유 그리고 청소년 개인이 직접 그의 삶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는 모든 청소년이 소망하는 것인데, 이 기회는 오히려 청소년이 내린 선택이 좌절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커졌다고는 할 수 없다. 많은 청소년은 자체의 삶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자신으로부터 사회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삶을 설계하는데 사실적 영향력이 줄어들 때 두려움은 현저히 늘어난다. 셸(Shell)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몇 년 간 특히 하웁트슐레(Hauptschule)를 다니는 학생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는 늘어났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늘어난 선택의 자유를 기회보다는 리스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Hurrelmann/Albert/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2006: 100, 247).

3. 사회관계

1) 사회관계와 삶의 부분

청소년은 그가 속해있는 주요 사회적 삶의 범위로 형성된 사회관계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다. 청소년의 사회화를 형성하는 사회적 접촉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가족, 학교, 친구, 클럽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 이 각각의 다른 삶의 범위에서는 사회화 과정에 있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으로부터 각기 다른 요구를 한다. 이것은 모두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사회화의 1차 단계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Hurrelmann, 2006:127). 가족은 최초의 사회적 접촉의 플랫폼이며 어린 시절의 일상을 지배한다. 오늘날에는 객관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인 요인들이 가족의 결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란 개념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많이 좌우된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이는 또 다른 관계의 네트워크에 편입된다. 청소년의 일상생활은 이제 사회화의 제2차 단계에 해당되는 학교라는 기관으로부터 결정되며 구조화된다. 학교의 목표는 지식전달을 통해서 아이 또는 청소년을 성숙한 시민으로 교육시키고, 그를 사회의 다양한 위치에 체계적으로 배치시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은 가족 외 또 다른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이룬다.

또래집단(peer group)은 가족과 학교의 사회화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며 동시에 학교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준다(Hurrelmann, 2006: 240). 또래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청소년은 자신이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1차 단계와 2차 단계와는 달리 청소년은 그의 의견과 감정을 또래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은 자신을 그리고 또래집단에서의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내에서의

자주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

앞에서 언급한 네트워크는 다수의 청소년이 하는 여가활동의 경험을 통해 보완된다. 스스로 선택한 참여, 예를 들어 운동 활동은 자아와 자주권을 형성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여가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의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 이 공간에서는 또래들과의 접촉을 더욱 확대시켜나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관장하는 네트워크는 서로 다르게 구조화된 사회화 과정을 도와주고 형성해가는 관계네트워크이다. 이러한 관계네트워크는 청소년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가족 또는 이웃, 청소년들이 의식적으로 찾아가기도 한다. 즉,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를 신뢰할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등. 친척과의 접촉도 능동적으로 형성된다. 사회네트워크는 따라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그의 주변 환경을 형성하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스스로 결정해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2) 사회관계의 중요성

사회가 점차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보다 책임감 있게 설계해야 하는데, 이때 사회관계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가 의미를 주는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정, 파트너십 그리고 가족이 1위를 기록했다(Hurrelmann/Albert/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2006:175).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하게 답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가족으로부터 청소년이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할 때에는 친구들에게 더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온전한 가족, 즉 부모가 서로 간에 잘 이해하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도 친구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접촉을 할 때 적극성의 정도에 있어서 상이하다. 또한 출신사회계층에 따라서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연구목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출신사회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져, 그들에게 있어 가족, 친구, 학교, 여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들에게 누가 가장 중요한지, 다양한 분야 및 사람들과 어떤 의미와 가치를 교환하는지에 집중했다. 오늘날 청소년은 가족과 무엇을 연결시키는가? 그들에게 있어 우정은 무엇인가? 학교, 학우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네트워크가 출신계층에 따라 형성되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다. 즉 가족의 경제상황이 관계의 구조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정확히 어떠한 형태로 미치는지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가족이란 개념이 일반계층 출신 청소년과 저소득계층 출신 청소년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회적인 위치가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성(性)에 따라 부여되는 의미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남자와 여자 청소년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 어떠한 사람들과 분야들이 남자와 여자 청소년에게 다른 의미를 주는가? 어디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 성(性)에 따른 차이가 계층별 차이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청소년의 네트워크 비교를 다루고자 한다.

1) 청소년에게 어떤 분야들이 중요한가?

- 2) 청소년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 3) 청소년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몇 명 있는가?
- 4) 네트워크는 계층에 의해 결정되는가?
- 5) 네트워크는 성(性)에 의해 결정되는가?
- 6) 청소년에게 각각의 분야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5. 부가설명: 독일 교육시스템

독일에서는 취학의무나이가 만 6세에서 시작되어 만 15세 또는 연방주에 따라 만 16세까지 이어진다.

초등학교(Grundschule)는 4년(브란덴부르크주(州)와 베를린에서는 6년)을 다니게 된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4년이 지나면 중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게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순전히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할 학교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하웁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게잡트슐레(Gesamt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직업학교가 있다.

하웁트슐레는 일반적으로 5학년부터 9학년까지 다녀야 하고(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주(州)와 작센안할트주(州)는 10학년까지), 기본적인 일반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하웁트슐레를 졸업하면 전일학교등교의무가 끝나게 되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웁트슐레에서는 이원교육시스템(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받는 제도. 역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60년대부터 점차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레알슐레는 일반적으로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다녀야 하고, 학교의 등급으로는 하웁트슐레와 김나지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레알슐레를 졸업하면 전문학교 또는 김나지움에 진학할 수 있다.

김나지움은 연방주에 따라 12학년 또는 13학년까지 다녀야 하며 고등교

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학해야 하는 학교다. 김나지움에서는 일반교양을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키고 대학공부를 준비하게 된다. 김나지움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치르고 졸업하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의 모든 연방주의 학생들이 김나지움을 가장 선호한다. 그래서 이 유형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수가 가장 많다.

60년대 말 독일에는 게잠트슐레라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생겨났는데, 이 학교는 하웁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을 보완하고 이 세 유형을 하나로 묶어준 학교라고 할 수 있다. 게잠트슐레가 추구하는 이념은 학생들을 서로 다른 유형의 학교로 진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모두를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계층적인 분류메카니즘을 철폐하자는 취지였다. 게잠트슐레는 학생들에게 세 형태의 졸업장(하웁트슐레 졸업장, 레알슐레 졸업장, 김나지움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VI-1> 8학년 학생들의 각 학교유형별 분류

학교 유형	2005
하웁트슐레	22,5 %
여러 학교유형을 통합하고 있는 학교	6,3 %
레알슐레	25,8 %
김나지움	30,9 %
통합 게잠트슐레	8,5 %
발도르프 대안학교	0,7 %
특수학교	5,3 %
합계	100,0 %

출처: KMK: 교육부장관회의 통계공개자료: 1996년-2005년 학생, 학급, 선생, 졸업생, Bonn 2007

6. 샘플

질문할 청소년을 선별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학교의 유형과 출신사회계층이 다양하도록 하였다. 독일에서는 학교유형과 출신계층이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셸(Shell)의 2006 청소년 연구(Hurrelmann/Albert/TNS Infratest Sozialforschung 2006:66) 데이터에 의하면 교육분야에서 이와 같은 계층과 교육수준 간의 지속적인 사회적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래서 게잡트슐레와 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들의 아버지의 74%가 실제로 김나지움을 졸업했다(아비투어). 하웁트슐레에서는 그 반대를 볼 수 있다. 하웁트슐레를 다니는 학생들의 아버지의 24%만 아비투어 졸업장이 있다. 또한 PISA 2006과 같은 국제적인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독일에는 출신사회계층과 교육수준 간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중등교육기관 중에서 최상층의 학교유형인 김나지움과 최하층의 하웁트슐레를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그들의 가정수준을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학교(김나지움/하웁트슐레)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했다.

출신사회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상황은 청소년의 인식과 행동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실업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청소년은 하웁트슐레를 졸업하더라도 실업률이 낮은 지역의 하웁트슐레 졸업생보다 좋은 직장을 얻는 확률이 확연히 낮다. 직업교육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며 사회진출과 출세를 위한 발판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가 아닌 계층에 의한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서로 큰 격차를 보이는 두 지역의 청소년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을 한 청소년은 총 32명이었고, 나이는 14세에서 17세였다. 성비율은 남녀 각각 50%였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계층에 따른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부유한 헤쎈 주(州)의 라인-마인 지역

(프랑크푸르트, 비스바덴, 엡슈타인, 외스트리슈-빈켈)과 경제와 인프라가 빈약한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 루르지역(에센, 겔젠키르헨, 오버하우젠)을 선택했다. 이 두 지역의 구조적인 차이는 특히 실업통계수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2008년 9월 루르지역의 실업률은 10.7%(출처: 루르지역연맹 온라인: 2008년 9월 루르지역연맹(RVR) 노동시장(2008년 10월 2일))이며, 각 시(市)별 실업률은 겔젠키르헨 16.3%, 오버하우젠 13%, 에센 13.2%이다. 이것은 구서독연방주 중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현재 전독일의 실업률은 7.4%(에슈보르너 차이퉁, 타우누스 지역의 에슈보른시(市) 온라인신문: http://www.eschborner-zeitung.de/index.php?we_objectID=533(2008년 10월 2일))이며 헤센주(州)의 실업은 6.3%이다. 각 시(市)별 실업률은 프랑크푸르트 8.1%, 비스바덴 프랑크푸르트룬트샤우 6%이다(FR-online.de, http://www.fr-online.de/frankfurt_und_hessen/nachrichten/wiesbaden/1606337_Weniger-Arbeitslose.html (2008년 10월 2일)).

이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가정수준의 청소년을 추출했는데, 선택기준은 거주지역과 학교유형이었다. 예를 들어 겔젠키르헨 중심가의 청소년에게도 면담조사를 했고, 겔젠키르헨 시(市) 중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보다 인프라가 잘된 지역의 청소년에게도 면담조사를 실시했다(실업률은 13.8%).¹³⁾

보다 정확하게 청소년의 출신사회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인터뷰한 후 부모의 직업과 거주형태(주택/아파트)를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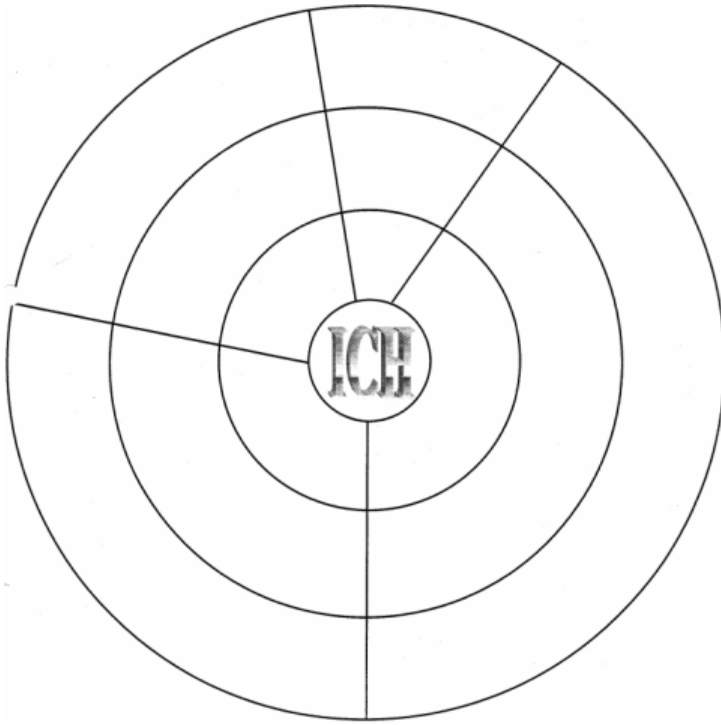
13) 독일연방노동청: 겔젠키르헨의 노동시장

http://www.arbeitsagentur.de/nm_170708/Dienststellen/RD-NRW/Gelsenkirchen/AA/A01-Allgemein-Info/Presse/2007/Der-Arbeitsmarkt-Augi-2007-Bu.html
(2008년 10월 2일).

7. 질적(qualitative) 네트워크분석 방법론

네트워크연구에서는 사회관계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이때 내적 관계구성을 고려한다. 사회관계는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의 성질 구성과 기능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질적 방법을 이 연구에 적용하면 행위자가 사회네트워크에 편입된 과정에 대한 그의 주관적인 의견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어느 행위자가 사회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 네트워크분석은 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주관적인 해석모델로 인식이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Bernardi et al.(2006); Hofer et al.(2006); Hollstein(2006); Strauss (2002) 참고).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 안의 행위자(가족, 교사, 친구)가 청소년 정체성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다룬다. 이때 관계네트워크의 개인적인 인식, 해석 그리고 구조화를 고려한다. 네트워크카드(예를 들어 Kahn/Antonucci 1980)를 이용한 연구방법은 사회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된다. 네트워크카드를 이용하여 모든 사회관계를 질적 의미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다관점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 네트워크카드는 각각의 영역(가족, 친구, 학교, 클럽 등)의 관련성을 위계적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네트워크를 관계네트워크에 따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선 각각의 항목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사회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수 있다. 책임감, 압력, 기쁨, 소속감, 돈, 자유, 불안감, 만족감, 사랑, 믿음, 무관심, 규칙, 성공, 경쟁이라는 용어로 네트워크를 분류하므로 관계의 수준과 실질적인 관계형성 그리고 청소년에 있어 이 관계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림 VI-1] Ego-네트워크카드

실질적인 인터뷰상황에서는 앞서 설명한 방법론을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1) 우선 실험대상자에게 4개의 원이 그려진 네트워크카드를 주었다. 이 원은 큰 영역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나(ich)”라고 쓰여져 있었다 (도표1). 실험은 3개의 서로 다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실험대상자에게 잘 설명해주었다. 우선은 각 영역들을 주목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각 네트워크그룹(가족, 친구) 및 상호교류차원(학교)을 청소년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의 영역에 써넣으라고 했다. 실험대상자는 자유롭게 영역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후 실험대상자에게 영역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 원 안에 서로 다른 크기의 영역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로 큰 영역이에요. 학생의 삶에도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가족, 친구, 클럽. 이러한 영역들은 각각 중요도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각 영역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원에 분류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영역에 쓰세요.../자,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주세요.”

2) 이어서 각 영역들에는 그 네트워크그룹/상호교류차원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넣으라고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나”에 가깝게 쓰도록 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쓰고 나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와 같은 위계질서를 택했는지 설명하도록 했다.

“학생이 나눈 각 영역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학생에게 모두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겠죠. 그 사람들을 “중요도”에 따라서 적어주세요. 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나(ICH)”에 가깝게 쓰면 되요. .../자,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이 사람들을 이 순서로 적었는지 말해주세요.”

3)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용어(책임감, 압력, 기쁨, 소속감, 돈, 자유, 불안감, 만족감, 사랑, 믿음, 무관심, 규칙, 성공, 경쟁)가 적혀 있는 스티커를 사용했다. 각 영역에서 연상되는 개념의 스티커를 해당 영역에 붙이도록 했다.

“여기에는 각 다른 용어들이 적혀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책임감, 압력, 기쁨, 소속감, 돈, 자유, 불안감, 만족감, 사랑, 믿음, 무관심, 규칙, 성공, 경쟁. 이제 각 영역에 또는 학생이 영역에 적은 사람의 이름에서 연상되는 용어를 붙여주면 되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 용어를 여기에 붙였는지 말해주세요.”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디자인을 이용한 실험을 좋아했다. 인터

뷰를 마친 후에 몇 명은 심지어 인터뷰가 재미있었다고 말했으며, 다음에도 또 이런 실험에 참가하고 싶다고 답했다. 다관점 디자인과 사회 상호작용네트워크 분류라는 개념은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이 어려워했던 것은 각 영역의 특정 순서배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였다. 청소년은 어떠한 영역의 어떠한 사람들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잘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지는 제대로 또는 불충분하게 밖에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청소년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 사람들의 존재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8.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 친구, 학교, 여가의 중요도

1) 가족: 기반과 피난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항은 과반수이상의 청소년에게 가족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도 가족이 인격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축을 이루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응답자의 대부분(32명 중 23명)이 가족을 가장 큰, 즉 가장 중요한 영역에 위치시켰다(<표 VI-2> 참고). 다섯 명의 실험대상자만이 가족을 두 번째 위치로 두었고, 네 명은 가족을 3위로 분류했다. 4위, 즉 네트워크카드에서는 가장 작은 영역에 가족을 적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표 VI-2>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 친구, 학교, 클럽활동의 중요도

가족		친구		학교		클럽	
가족 1위	23	친구 1위	7	학교 1위	3	클럽 1위	0
가족 2위	5	친구 2위	13	학교 2위	10	클럽 2위	2
가족 3위	4	친구 3위	10	학교 3위	9	클럽 3위	8
가족 4위	0	친구 4위	2	학교 4위	10	클럽 4위	15

가족의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이유로는 가족이 주는 근접성 그리고 도움을 들 수 있다. 전체적인 성장과정, 즉, 최초의 사회와의 상호교류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가족은 사회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존재해왔다. 따라서 가족의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응답자들의 답에서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난다. “(가족)은 항상,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또는 “가족은 세계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당신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초로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벨라니).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가족이 주는 소속감 외에도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가족이란 영역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곤란한 문제에 접하게 될 때 가족은 그의 옆에서 지원을 해주어 은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안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가족은 그냥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가족은 저를 다시 받아주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막시밀리안은 가족의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제가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가족한테서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언급된 상기 가정에서 청소년이 답한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청소년이 단지 가족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라는 질문에서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희망하는 것을 말했는지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나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청소년의 답에서는 가족의 압도적인 의미가 잘 나타난다.

2) 친구 : 균형, 재미, 문제 극복

2위에 많은 학생들은 친구를 선택했고, 이어서 근접한 차이로 학교를 선택했다. 32명의 실험대상자 중 7명은 친구를 1위로 배치시켰으며, 13명은 친구를 2번째로 큰 영역에 적어 넣었다. 청소년은 가족 다음으로 또래집단에게서 사회공동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이때도 가족과 유사하게 또래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이유로 설명했다. 가족과 달랐던 점은 친구들과 있으면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친구들은 가족을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친구들 사이에는 가족과는 다른 주제의 대화를 할 수 있고,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신처로 작용하기도 한다.

3) 학교 : 미래와 직업세계

학교는 중요도에 있어서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소년이 학교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학교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기본적인 요소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32명 중 3명은 학교를 1위로 꼽았고, 10명은 2위로 그리고 9명은 3위, 10명은 4위로 선택했다.

학교는 특히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시켜주는 장소로 중요하다고 여겨졌고, 학교는 직업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라고 청소년이 답했다. 제시카는 학교를 2위로 분류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될 수 없어요.” 이와 비슷하게 데니스도 “나중에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려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라고 답했다.

4) 여가와 클럽활동은 비교적 이차적

클럽에서의 여가활동은 4위에 올라오면서 가장 작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24명의 청소년 중 15명은 이 영역을 4위로 분류했다. 누구도 1위로 적지 않았고, 2명은 2위로, 8명은 3위로 썼다. 대부분 스포츠 활동인 여가활동은 가족과 같은 감정적인 소속감에서 뒤떨어지고, 친구들의 든든한 후원이나 즐거움 그리고 학교의 미래지향성도 대체할 수 없었다. 여가와 클럽활동은 특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청소년만 중요하다고 선택했지만, 이들도 가족, 친구, 학교보다 클럽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하지 않았다. 클럽은 다른 영역으로부터 받는 요구사항들과 자기 스스로가 서로 간에 균형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자주권의 공간이다.

9. 청소년과 가까운 사람들

청소년은 네트워크카드에 중요한 사람들을 적어야 했다. 자신과 특히 가까운 사람은 중앙에 있는 “나”와 가깝게 적어야 했다. 분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 넣었다. 이렇게 형성된 각 영역별 3개의 난에 청소년은 그들에게 중요하거나 조금 덜 중요한 사람들을 쓸 수 있었다.

우선은 가족영역에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여기에서 가족이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영역에는 세 칸 모두가 가족구성원으로 채워졌다. 평균적으로 첫 번째 칸에는 2-3명(0에서 8까지), 두 번째 칸에는 1-2명(0에서 6까지)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1명(0에서 5까지)을 적었는데, 마지막 칸은 비워두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나머지 친척들”이라고 썼다.

친구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구성원들은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분했지만, 응답자의 반 정도는 친구를 하나 또는 최대 두 그룹으로만 분류했다. 첫 번째 칸에 청소년은 0명에서 6명, 평균 2명을 적었고, 두 번째 칸에는 칸의 폭이 컸기 때문에 0명에서 25명, 평균

3명을(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수치이지만) 적었다.

학교영역에는 세 칸을 사용하지 않았고 특정한 사람들을 나열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들이 속해있는 그룹별로 분류를 했다(학우/선생).

클럽영역은 청소년의 네트워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영역이었다. 클럽은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스스로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영역이다. 여기서는 개별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 스포츠와 같은 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응답자는 0개에서 최대 7가지를 적었고, 이때 다수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10. 사회계층별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 친구, 학교와 클럽활동의 의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청소년 분석의 데이터들은 네트워크의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소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간의 비교를 통해서 계층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특히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는 가족이 큰 의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가족이 가장 높은 중요도, 친구는 중간 중요도, 학교와 클럽은 대부분 낮은 중요도를 갖는다. 하지만 가족의 중요도는 계층에 따른 수치의 분열에 의해서 변화를 보인다(<표 VI-3>, <표 VI-4>).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16명 중 14명이 가족의 중요도를 가장 높다고 답한 반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청소년 16명 중 9명 만 동일한 답변을 했다. 저소득계층 청소년보다 일반계층 청소년들이 가족보다 친구 또는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을 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답변의 이유로 가족의 당연함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서 사라는 가족을 3위에 배치시켰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

게 때문에 가족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가족이 더 이상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 것 같아요..” 가족보다 학교가 중요하다고 답한 율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저에게는 학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은 항상 있고 항상 믿을 수 있잖아요. 현재 저에게 또는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 VI-3> 사회계층별 가족, 친구, 학교, 클럽활동의 의미 - 일반계층

가족		친구		학교		클럽	
가족 1위	9	친구 1위	4	학교 1위	3	클럽 1위	0
가족 2위	4	친구 2위	4	학교 2위	5	클럽 2위	2
가족 3위	3	친구 3위	7	학교 3위	4	클럽 3위	3
가족 4위	0	친구 4위	1	학교 4위	4	클럽 4위	10
총	16	총	16	총	16	총	15

<표 VI-4> 사회계층별 가족, 친구, 학교, 클럽활동의 의미 - 저소득계층

가족		친구		학교		클럽	
가족 1위	14	친구 1위	3	학교 1위	0	클럽 1위	0
가족 2위	1	친구 2위	9	학교 2위	5	클럽 2위	0
가족 3위	1	친구 3위	3	학교 3위	5	클럽 3위	5
가족 4위	0	친구 4위	1	학교 4위	6	클럽 4위	5
총	16	총	16	총	16	총	10

계층에 따른 가족의 중요도 차이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흔히 편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타난 더 높은 결속력에 의해서 가족을 중요하게 평가했을 것이다. 경제적인 위기상황은 한편 부담감에 의한 가족 내의 긴장감

을 고조시키지만 다른 한편 서로간의 도움을 통해서 더 끈끈한 결속력을 부르기도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청소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처럼 가족이 친구, 학교, 클럽보다 중요하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의 일차적인 의미는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 친구와 학교는 중요하다.

- 그러나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당연 가족이 친구보다 중요하다. 청소년에게 친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족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반면 몇몇 일반계층 청소년의 경우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16명 중 4명이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생활여건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물은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학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어떤 청소년들은 학교를 2위, 3위에 배치시키고 약간의 과반수가 학교를 4위에 배치시켰다. 일반계층 청소년은 반면 대부분 학교를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답하고 몇몇은 학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학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일반계층 부모들이 교육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학교의 중요성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아닌 교육도 사회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층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앞으로도 일반계층에 머무르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하강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데에는 현저히 낮은 교육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같은 사회층에 머무르기 위해서 일반계층 청소년들이 저소득계층 청소년들 보다 더 오래 학교를 다녀야 하고 더 좋은 점수를 받

아야 한다.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경제적으로 부유 또는 어려운 청소년 모두 과반수가 어머니를 원의 가장 안쪽 즉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시킨다(<표 VI-5> 참조). 사회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가족 구성원 중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일반계층 청소년의 과반수가 아버지도 가장 중요한 가족구성원이라고 답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반 이하가 이와 동일하게 답한다.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아버지를 2위 또는 3위에 위치시키고 1/4 정도는 아버지를 언급하지도 않는다. 부유한 청소년 중에서 아버지를 2위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아버지를 3위에 위치시킨다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어머니들이 홀어머니가 많다는 것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특히 아버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또한 가족과의 불화를 초래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은 결과로 얻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없다.

<표 VI-5> 네트워크모델에서 나와 어머니, 아버지의 거리

일반계층		저소득계층	
어머니 1위	13	어머니 1위	11
아버지 1위	11	아버지 1위	5
어머니, 아버지 1위	11	어머니, 아버지 1위	5
어머니 2위	2	어머니 2위	2
아버지 2위	3	아버지 2위	3

어머니, 아버지 3위	2	어머니, 아버지 3위	1
어머니 3위	0	어머니 3위	1
아버지 3위	0	아버지 3위	3
어머니, 아버지 3위	0	어머니, 아버지 3위	0
아버지 언급 없음	0	아버지 언급 없음	3

4) 그 밖의 친척

과반수가 부모 외에 중요한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자매를 꼽았다. 저소득 계층 청소년들은 때로는 이모, 삼촌 혹은 조부모라고 답했지만 대부분 형제, 자매에서 끝났다. 부유한 청소년의 경우는 다르다. 대부분 조부모, 사촌들을 언급하고 3위로는 기타 친척들을 배치시켰다.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의 가족은 핵가족 중심의 가족으로 추정된다.

5) 친구와 친지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이 가족도 적게 배치시키는 현상은 친구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최소 1명에서 최대 10명의 친구들을 적는다. 친구들에게 또다시 순위를 매기지 않고 모두 1위로 표시한다. 평균적으로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이 약 3명의 친구들을 꼽는 반면 일반계층 청소년들은 약 8명의 친구들을 꼽는다. 또한 일반계층 청소년은 또래집단을 최소한 두 단계로 분류하며 분류의 기준으로 특별한 친근감을 든다. 가까운 사회적인 네트워크 즉 친구와 가족은 대체적으로 일반계층 청소년의 경우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은 소수의 가까운 친구들과 핵가족에 집중한다.

6) 학우와 선생님

학교 항목의 경우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은 첫 번째와 마지막 순위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일반계층 청소년은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을 사용한다. 두 계층 청소년 모두에게 학우들이 학교분야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행위자들인 반면 선생님들은 오히려 작은 의미를 갖는다. 저소득계층 청소년은 절반이 안 되게, 일반계층 청소년은 약 절반 정도 선생님을 네트워크 분석에서 언급한다. 부유한 청소년은 선생님을 통틀어서 언급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개별적인 선생님의 이름을 적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와 선생님과 관계가 부유한 청소년에 비해 나쁘지만 개별적인 선생님과 관계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영역에서 선생님을 적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 이유가 선생과 학생의 개인적인 관계가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각 계층의 청소년들의 답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시카(저소득계층)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해요. 선생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학생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가 없어요.” 멜라니(저소득계층)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에게 선생님들은 다 똑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 높은 위치에 서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선생님들과 엮이지 않고 학교를 마치고 싶어요.” 안나(일반계층)는 선생님을 왜 적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선생님들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별로 서로 상관이 없어요.” 자닌(일반계층)은 선생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생님들과 감정적인 연결 끈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은 저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위치와는 무관하게 학생-선생-관계를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아주 사무적인 관계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연락세계는 일차적으로 선생님이 아닌 학우들에 의해서 형성된다.

7) 여가와 클럽활동

여가생활 즉 클럽참여는 성향과 다양성에 계층의 특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저소득계층 청소년 16명 중 10명만 클럽에 소속되어있는 반면 일반계층 청소년은 16명 중 14명이 일 주일에 한 번씩 적극적으로 클럽활동을 한다. 이 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지역적인 다양성이다. 라인-마인 지역에는 저소득계층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스포츠클럽 회원이라고 답했다. 반면 루르 지역에서는 스포츠클럽 회원이 반도 안됐다. 이때 염두에 둘 점은 루르 지역이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마인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자본의 부족이 여가생활의 실현가능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각 사회계층의 여가활동 제안들이 차이를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다양성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I-6> 사회계층에 따른 청소년 클럽회원 가입

	저소득계층			일반계층		
	총	루르	라인-마인	총	루르	라인-마인
명명	10	4	6	14	8	6
명명하지 않음	6	6	0	2	1	1
활동	5x축구, 스포츠, 탁구, 육상, 헬스			카누, 2x테니스, 2x댄스, 스포츠, 2x태권도, 연극, 3x수영, 핸드볼역도, 승마, 스케이트, 버트트레일, 3x축구, 독서		

8) 여자와 남자 청소년의 각기 다른 우선순위

여자청소년도 남자청소년과 같이 가족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그럼으로 가족이 성(性)과 상관없이 청소년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청소년은 대부분 친구를 두 번째로 선택하고 학교를 세 번째로 선택한 반면, 남자청소년은 학교를 친구보다 우선시했다. 대부분의 여자청소년이 가족과 친구를 학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이유로 가족과 친구는 그들이 사는 동안 필요한 지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사생활이 저에게는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니까요. 따라서 제게는 친구와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안나).

올리버는 학교를 또래친구들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친구나 학교나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것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항상 숙제를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숙제를 먼저 하는건 차후를 위해서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새로운 친구들도 나중에 다시 사귄 수 있고요.” 막시밀리안도 친구의 일시적인 특성을 지적했다. “저에게는 이런 것들(취미, 학교)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을 때 제 친구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클럽영역은 남자 여자 청소년 모두가 4위로 선택했고, 따라서 가장 작은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때 여자청소년의 반은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인터뷰에 응한 남자청소년의 16명 중 14명은 활발한 클럽활동을 하고 있었다.

9) 남자청소년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하다.

오늘날 많이 접할 수 있는 핵가족에서도 어머니에게는 가족 내 관계 및 자녀교육에 있어 우선적인 책임이 부여된다.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어머니의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대상자의 성별을 떠나서 어머니가 가족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답한 것은 놀랍지 않은 결과다. 남자와 여자청소년 모두 어머니를 가장 많이 1위로 꼽았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다른 답을 제시하기도 했기에 이 부분에서 답변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모든 남자청소년이 어머니를 1위로 적은 반면, 여자청소년은 16명 중 11명만 그렇게 했다. 어머니는 대부분의 여자청소년에게도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결과는 남자청소년에서와 같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여자청소년의 1/4은 어머니를 2위로 그리고 한 명은 3위로 적었는데, 남자청소년은 전원 어머니를 1위로 선택했다. 어머니를 1위로 적지 않을 때는 대부분 형제를 1위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나 자매와의 특별한 관계는 일종의 어린이들의 단합(Hurrelmann, 2006: 131)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의견을 부모님에게 관철시키고자 사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여자와 남자 청소년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었는데, 남자청소년이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경우 형제는 부모님 다음으로 선택되었다.

그 밖의 사촌, 삼촌 및 조부모와 같은 다른 친척들은 여자와 남자청소년에 상관없이 부모님 다음으로 선택되었다. 친척 중에서도 선호되는 성별은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알아낼 수 없었다.

10) 남자와 여자 청소년은 친구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 영역에서는 “나”와 나열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단 예외가 두 번 발생한 것 외에는(친구 19명-여자/친구 30명-남자) 남자와 여자의 친구 수가 비슷했다. 여자 및 남자 청소년은 평균적으로 친구가 5명이었다. 특히 “나”와 가까운 친구는 대부분 동성이었고 평균 2명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는 동성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성과의 접촉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여자청소년은 남자와도 친한 관계를 유지한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극히 드물게 발생했다.

11) 학교와의 관계는 유사했으나, 여가활동은 달랐다.

학교영역에서 학우와 선생의 이름을 적을 때 남자와 여자 청소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청소년은 학교의 행위자들을 보다 세심하게 분류했는데, 대부분 3단계를 모두 활용하여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들을 나열했다. 반면 남자청소년은 첫 번째 칸에만, 그리고 드물게 두 번째 칸에도 학교 영역의 사람들을 적었다.

얼핏 봤을 때는 남자와 여자의 클럽활동 참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남자청소년의 압도적인 과반수가 클럽활동을 하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반 조금 넘는 인원이 클럽에 소속되어 있다(<표 VI-7> 참고). 실제로 남자청소년은 여가의 대부분을 클럽활동을 하는데,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그 차이가 특히 출신계층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루르지역의 사회경제적 열악한 가정의 여자청소년이 여자평균을 낮추었다.

<표 VI-7> 성별,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른 클럽활동 참여

	저소득계층			일반계층		
	합계	루르 지역	라인마인 지역	합계	루르 지역	라인마인 지역
설문대상자 총 인원	16	10	6	16	9	7
클럽	10	4	6	14	8	6
클럽없음	6	6	0	2	1	1
설문대상자여자	8	5	3	8	7	1
설문대상자남자	8	5	3	8	2	6
클럽 여자	3	0	3	6	6	0
클럽 남자	7	4	3	8	2	6
활동	5x축구, 스포츠, 탁구, 육상, 휘트니스			카누, 2x테니스, 2x댄스, 스포츠, 2x태권도, 연극, 3x수영, 핸드볼, 역도, 승마, 스케이트, 버트트레이, 3x축구, 독서		

12) 청소년이 가족, 친구, 학교와 클럽활동을 감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청소년들이 네트워크 카드에 가족, 친구, 학교, 여가 그리고 본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순위를 적은 후 각각 책임감, 압력, 즐거움, 소속감, 돈, 여가, 불안감, 만족감, 사랑, 믿음, 무관심, 규칙, 성공, 경쟁이라는 단어들이 적혀있는 스티커를 주며 스티커를 사람 또는 분야에 정렬하도록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만족감이었다. 두 번째로는 기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책임감이 많이 사용되었다(<표 VI-8> 참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들은 각 항목과 관계에 자주 연결되었다. 청소년의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와 중요한 인물에 관한 조사였기 때문에 무관심이라는 단어는 네트워크 분석에 가장 적게 사용된 단어이다. 돈, 경쟁, 불안감 또한 순위가 낮으며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주도적으로 사용되었다.

<표 VI-8> 청소년들이 사용한 단어의 빈도

총 빈도	
기쁨	43
믿음	39
소속감	39
규칙	35
사랑	37
만족감	46
책임	40
성공	32
자유	28
압력	28
불안감	24
경쟁	23
돈	26
무관심	15
총	455

(1) 청소년에게 가족은 책임과 사랑이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21번 가족분야와 연결되었다. 따라서 가족분야와 가장 많이 연결된 단어이다(<표 VI-9>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교육의 성향이 나타난다. 성장하는 청소년을 자립적인 인물 또는 더 나아가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 세대 전보다 현재 아이들을 더 일찍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Hurrelmann, 2005: 139).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가족 내에서 청소년에 대한 요구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최소한 부모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책임감 있게 학업에 임하는 것이 요구된다(Hurrelmann, 2005: 141). 그 외에도 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어린 동생을 보살피는 것과 같은 다양하고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임무들을 맡게 된다.

<표 VI-9> 각 계층에 따른 가족과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가족			
일반계층		저소득계층	
책임감	11	책임감	10
돈	3	돈	7
규칙	5	규칙	10
사랑	7	사랑	11
기쁨	2	기쁨	6
믿음	8	믿음	6
만족감	9	만족감	9
소속감	4	소속감	8
불안감		불안감	2
압력	4	압력	1
성공	2	성공	
경쟁		경쟁	1
자유	3	자유	3
무관심	3	무관심	

책임감과 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18번 사용되면서 선두 층에 속한다. 오늘날 가족에 대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대 가족은 경제적인 또는 실질적인 이유에 의해서보다 감정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더 많이 결속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은 감정적인 결합의 장소이고 기준과 규칙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공동생활을 만들어나간다. 이러한 이유들이 규칙이 삼위를 차지한 것을 설명해준다. 이때 청소년들은 규칙이라는 단어를 지침보다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해한다.

반면 가족이라는 개인적인 분야는 경쟁 또는 불안감, 성공, 무관심과 같은 단어들과 가족을 연관 짓는 청소년은 거의 없었다.

(2) 친구는 신뢰와 즐거움이다.

또래집단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든다. 따라서 또래집단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관리를 벗어나려고 한다. 대부분 재미와 행복감, 구속이

<표 VI-10> 각 계층에 따른 친구와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친구			
일반계층		저소득계층	
책임감	3	책임감	2
돈		돈	2
규칙	1	규칙	
사랑	9	사랑	5
즐거움	11	즐거움	11
믿음	12	믿음	11
만족감	7	만족감	7
소속감	10	소속감	8
불안감	2	불안감	1
압력		압력	1
성공		성공	2
경쟁		경쟁	2
자유	7	자유	6
무관심	2	무관심	

없는 생각과 감정의 교환이 이뤄지는 억압이 없는 공간이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친구들과 믿음(23)과 즐거움(22)을 연결시키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표 VI-10> 참조).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가장 사이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감정도 마찬가지로 또래집단에 어울리는 감정들이다. 반면 책임감, 불안감, 성공은 친구와 연관성이 별로 없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두 명의 청소년이 경쟁, 무관심, 돈을 또래와 연관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청소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규칙은 친구 항목과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특히 또래들 안에서는 규칙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규칙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강요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특정 물들은 규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3) 학교는 성공과 압력이다.

학교는 성적을 통해서 분류가 이뤄지고 직업생활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앙 장소로 여겨진다.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위치로 배치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학업성취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공(21), 압력(19)과 같은 단어들이 학교와 연관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표 VI-11> 참조). 규칙(15)은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보다 지식전달을 우선시 여기고 규칙적인 원칙들을 강하게 실행하는 학교와 흔히 연관 짓는다. 그와 반대로 학교를 아주 예외적으로 사랑(3), 자유(2), 믿음(1)과 연결 짓는다.

<표 VI-11> 각 계층에 따른 학교와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학교			
일반계층		저소득계층	
책임감	5	책임감	6
돈	6	돈	5
규칙	7	규칙	8
사랑	3	사랑	0
기쁨	2	기쁨	4
믿음	1	믿음	0
만족감	5	만족감	1
소속감	3	소속감	2
불안감	6	불안감	7
압력	9	압력	10
성공	11	성공	10
경쟁	7	경쟁	5
자유	1	자유	1
무관심	3	무관심	6

(4) 클럽은 만족감을 주고 경쟁심을 키워준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클럽과 연결되는 단어들이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클럽과 연관 지어지는 단어들은 만족감과 경쟁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기쁨, 성공, 자유도 클럽세계를 규명하는데 사용된다. 반면 청소년이 믿음과 무관심을 클럽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표 VI-12> 참조).

<표 VI-12> 각 계층에 따른 클럽과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클럽			
일반계층		저소득계층	
책임감	2	책임감	1
돈	1	돈	2
규칙	2	규칙	2
사랑	2	사랑	0
기쁨	4	기쁨	3
믿음	1	믿음	0
만족감	5	만족감	3
소속감	3	소속감	2
불안감	2	불안감	4
압력	2	압력	1
성공	4	성공	3
경쟁	3	경쟁	5
자유	6	자유	1
무관심		무관심	1

(5) 규칙과 돈은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에게 최우선시 된다.

각 항목별로의 사회계층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서 연관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경우에서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가족에서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책임감이 1위를 차지하지만 계층 간의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부유한 또래들보다 책임감이라는 단어와 같은 빈도로 규칙이라는 단어를 가족과 연상한다(<표 VI-9> 참조). 엄격한 집안에서 성장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 가족의 경우 규정을 중요시하고 더 권위적인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 사회구조적인 요소들이 교육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직업세계에서 경험했던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식을 교육한다. 노동자 가족의 경우 대세에 수긍하는 방향으로 교육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족은 자체적인 교육을 한다(Kohn 1981: 213). 부유한 가족 출신의 청소년은 가족과 만족감은 아홉 번, 믿음은 여덟 번, 사랑은 일곱 번 연관 지었다. 사랑과 만족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가족과 돈을 연관 짓는 것에서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일곱 번 돈과 가족을 연관 짓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소년은 돈과 가족을 세 번 연관 지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돈과 돈의 출처가 더 명확한 관심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제니(저소득 계층)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가족과 돈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어머니께 돈을 보태드립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용돈을 받습니다.”

반면 경쟁, 불안감, 무관심, 성공은 가족의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가족과 연관 짓게 되는 경우가 드물다.

(6) 친구에 있어서는 특별한 계층별 차이가 없다.

친구 항목의 경우 사회계층에 따른 예외 없이 기쁨, 믿음, 소속감이 선두 그룹을 이룬다(<표 VI-10> 참조). 사회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또래집단은 즐거움을 의미하고, 청소년은 소속감을 느끼고,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길 바란다. 책임감, 돈, 규칙, 불안감, 무관심, 압력, 성공, 경쟁과 같은 단어들은 또래집단과 거의 연상되지 않는다.

(7) 학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

학교에서 결정적인 단어는 바로 성공과 압력이다. 이때 압력은 대부분 사회적 저소득계층 그리고 성공은 일반계층과 연상된다(<표 VI-11> 참조). 이때 성적에 대한 압력과 그로 인한 불안감은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학교와 연관된 것 같다. 저소득계층 청소년 한 명만이 학교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답변한 반면 일반계층 청소년의 경우 다섯 명이 학교생활과 만족감을 연관 지었다.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학교와 연결 지어지는 단어가 아닌 것은 바로 믿음, 사랑, 자유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8) 클럽 평가에 있어서의 견해차이

클럽참여는 특히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클럽과 연관되는 단어들을 매우 적게 선택했다(<표 VI-12> 참조).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클럽과 자유를 연상하는 반면 저소득계층 청소년에게는 클럽과 자유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지만 성공과 경쟁은 클럽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다.

11.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청소년은 큰 유사점을 보였다.

각 네트워크 항목과 경제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성(性)에 따른 차이를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다. 남녀 모두 가족과 연관 지어서 책임감을 첫 번째로 선택했지만 남자의 경우 만족감도 같은 중요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규칙 다음에 만족감이 위치한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가족과 기쁨을 연관 짓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족 내에서 규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론 때문에 여자청소년들이 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는다고 단정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집안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과제들과 규칙을 동일시 여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 전통적인 역할에 맞게 더 많은 가사를 분담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집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명시한 여자청소년은 없었다. 또한 다섯 명은 가족과 자유를 연결했고 그 중 세 명은 동시에 규칙도 선택했다.

남녀의 친구에 대한 평가도 거의 일치한다. 기쁨과 믿음이 가장 많이 선택된 연상개념이고 드물게 선택되는 개념들도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래집단에서 남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여자청소년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친구들에게 월등한 소속감을 느끼고 만족감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3> 성별에 따른 가족, 친구, 학교, 클럽과 연관된 가치와 연상개념

연상개념	가족	친구	학교	클럽	연상개념	가족	친구	학교	클럽
	여	여	여	여		남	남	남	남
책임감	11	3	7	2	책임감	10	2	4	1
돈	6	1	7	1	돈	4	1	4	2
규칙	9	1	5	3	규칙	6		10	1
사랑	10	9	2	1	사랑	8	5	1	1
기쁨	6	10	4	4	기쁨	2	12	2	3
믿음	8	13	1	1	믿음	6	10		
만족감	8	9	3	5	만족감	10	5	3	3
소속감	4	11	2	3	소속감	7	7	3	2
불안감		2	9	2	불안감	2	1	4	4
압력	1		11		압력	4	1	8	3
성공	1	1	12	2	성공	1	1	9	5
경쟁	1	1	10	2	경쟁		1	2	6
자유	5	7	2	4	자유	1	6		3
무관심	2		4		무관심	1	2	5	1

학교와는 모든 청소년들이 성공과 압력을 골랐다. 여자와는 달리 남자의 경우 학교에서의 규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는 경쟁과 불안감이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 여자의 경우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성에 따른 역할분담에 의해서 여자들이 연약함을 나타내도 되기 때문일 것이다.

남자들은 클럽과 성공, 경쟁을 연관 짓는 반면 여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해서 만족감과 자유를 느낀다. 이러한 차이 외에는 클럽 항목에서 눈에 띄는 성별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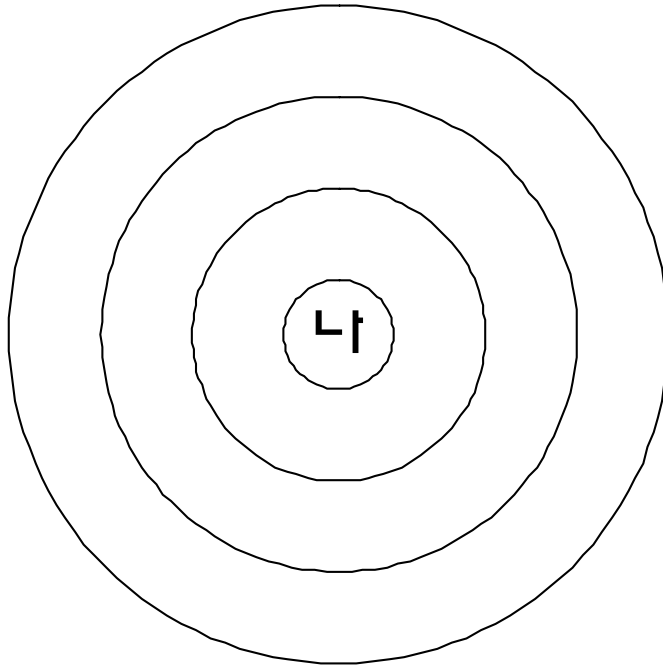
- Beck, Ulrich (1983): Jenseits von Stand und Klasse? Soziale Ungleichheiten, gesellschaftliche Individualisierungsprozesse und die Entstehung neuer sozialer Formationen und Identitäten. In: Kreckel; Reinhard (Hg.): Soziale Ungleichheiten. Soziale Welt, Sonderband 2, Gottingen: Schwartz, S. 35 –74.
- Bernardi, Laura/Keim, Sylvia/von der Lippe, Holger (2006): Freunde, Familie und das eigene Leben. Zum Einfluss sozialer Netzwerke auf die Lebens- und Familienplanung junger Erwachsener in Lubeck und Rostock. In: Hollstein, Bettina/Straus, Florian (Hg.):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S. 359–390.
- Bohm, Andreas (2000): Theoretisches Codieren: Textanalyse in der Grounded Theory. In: Flick, Uwe/von Kardorff, Ernst/Steinke, Ines (Hg.): Qualitative Sozialforschung. Ein Handbuch. Hamburg: Rowohlt, S. 475–484.
- Bundesagentur für Arbeit (2007): Der Arbeitsmarkt in Gelsenkirchen, http://www.arbeitsagentur.de/nn_170708/Dienststellen/RD-NRW/Gelsenkirchen/AA/A01-Allgemein-Info/Presse/2007/Der-Arbeitsmarkt-Augi-2007-Bu.html (2.10.2008).
- Eschborner Zeitung (2008): Online-Zeitung aus Eschborn am Taunus: http://www.eschborner-zeitung.de/index.php?we_objectID=533 (2.10.2008).
- Frankfurter Rundschau (2008): Weniger Arbeitslose. [http:// www. fronline. de/frankfurt_und_hessen/nachrichten/wiesbaden/ 1606337_Weniger-Arbeitslose.html](http://www.fronline.de/frankfurt_und_hessen/nachrichten/wiesbaden/1606337_Weniger-Arbeitslose.html) (2.10.2008).
- Hofer, Bettina/Keupp, Heiner/Strauss, Florian (2006): Prozesse sozialer Verortung in Szenen und Organisationen. Ein netzwerkorientierter Blick auf traditionale und reflexiv moderne Engagementformen. In: Hollstein, Bettina/Straus, Florian (Hg.):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S. 267–294.
- Hollstein, Bettina (2006): Qualitative Methoden und Netzwerkanalyse – ein

- Widerspruch? In: Hollstein, Bettina/Straus, Florian (Hg.): Qualitative Netzwerkanalyse; Konzepte, Methoden, Anwendungen. Wiesbaden: VS, S. 11–36.
- Hurrelmann, Klaus (2006): Einführung in die Sozialisationstheorie. Weinheim/Basel: Beltz.
- Hurrelmann, Klaus (2005):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8. Auflage. Weinheim/München: Juventa.
- Hurrelmann, Klaus/Albert, Mathias/TNS-Infratest (Hg.) (2006): Jugend 2006. 15.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 Kahn, Robert/Antonucci, Toni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Baltes, Paul/Brim, Orville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pp. 253–86.
- Kohn, M. L. (1981): Persönlichkeit, Beruf und soziale Schichtung. Stuttgart: Klett-Cotta.
- Kultusministerkonferenz KMK (2007): Statis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sministerkonferenz: Schuler, Klassen, Lehrer und Absolventen der Schulen 1996 bis 2005. Bonn.
- Langness, Anja/Leven, Ingo/Hurrelmann, Klaus (2006): Jugendliche Lebenswelten: Familie, Schule, Freizeit. In: Hurrelmann, Klaus/Albert, Mathias/TNS-Infratest (Hg.): Jugend 2006. 15. Shell Jugendstudie. Frankfurt a. M: Fischer, S. 49–102.
- Regionalverband Ruhr Online (2008): Arbeitsmarkt Regionalverband Ruhr (RVR) im September 2008. Zur Verfügung gestellt unter: <http://www.rvr-online.de/publikationen/statistik/arbeitsmarkt.php> (2.10.2008).

부록

1. 네트워크 스위트
2. 반구조화된 질문지

1. 네트워크 스위트



[그림 1] 네트워크 스위트

2. 반구조화된 질문지

-기본 인적 사항

	나이	학년	성별
본인			
형제자매1			
형제자매2			
형제자매3			
형제자매4			

	동거 여부	학력	직업
아버지			
어머니			

-영역 구분과 관련하여

- ①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 왜 _____인가요?
- ② 4번째 영역에 왜 _____를 표시했나요?
- ③ 각 영역이 학생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 영역과 관련하여

- ① (“나”와 가장 가깝게 위치시킨 사람에 대하여) 왜 _____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요?
- ② (“나”와 가장 멀리 위치시킨 사람에 대하여) 왜 _____가 가장 멀게 느껴지나요?
- ③ 가족과 (스티커에 있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왜 (그 스티커)를 가족 영역에 붙였나요?

- ④ 붙인 스티커 외에 어떤 내용을 가족 영역에 더 추가하고 싶은가요?
- ⑤ 가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 하나요?
- ⑥ 학생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네트워크 시트에 적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친구 영역과 관련하여

- ① (“나”와 가장 가깝게 위치시킨 사람에 대하여) 왜 ____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요?
- ② (“나”와 가장 멀리 위치시킨 사람에 대하여) 왜 ____가 가장 멀게 느껴지나요?
- ③ 친구와 (스티커에 있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왜 (그 스티커)를 친구 영역에 붙였나요?
- ④ 붙인 스티커 외에 어떤 내용을 친구 영역에 더 추가하고 싶은가요?
- ⑤ 우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⑥ 학생은 네트워크 시트에 적혀 있는 친구(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학교 영역과 관련하여

- ① (“나”와 가장 가깝게 위치시킨 사람에 대하여) 왜 ____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요?
- ② (“나”와 가장 멀리 위치시킨 사람에 대하여) 왜 ____가 가장 멀게 느껴지나요?
- ③ 학교와 (스티커에 있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왜 (그 스티커)를 학교 영역에 붙였나요?
- ④ 붙인 스티커 외에 어떤 내용을 학교 영역에 더 추가하고 싶은가요?
- ⑤ 학생은 네트워크 시트에 적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기타에 표시한 영역과 관련하여

- ① 가족, 친구, 학교 외에 왜 이 영역이 학생에게 중요한가요?
- ② (“나”와 가장 가깝게 위치시킨 사람에 대하여) 왜 ____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가요?
- ③ (“나”와 가장 멀리 위치시킨 사람에 대하여) 왜 ____가 가장 멀게

느껴지나요?

- ④ 기타 영역과 (스티커에 있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왜 (그 스티커)를 기타 영역에 붙였나요?
- ⑤ 붙인 스티커 외에 어떤 내용을 기타 영역에 더 추가하고 싶은가요?
- ⑥ 학생은 네트워크 시트에 적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김현욱 한국외국어대학교 · 강사

문성모 세종대학교 · 연구원

이교선 인하대학교 · 강사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특성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 강태중 · 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 김영한 · 박철웅 · 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 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 김영지 · 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 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 김경준 · 김영지 · 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 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 · 김경준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인식 실태」 (11.28)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14-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연구 -

인 쇄 2008년 12월 23일

발 행 2008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주)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58-1

ISBN 978-89-7816-756-6(세트)

